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이 정 민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연구

지도교수 구 본 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이 정 민

이정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_____ ㊞

부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국 문 초 록

언어 사용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휘 학습이 중요하다.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표현은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휘 교육은 구체적인 어휘 사용 맥락에서 어휘의 의미를 세밀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행 어휘 교육은 어휘론의 지식만을 분절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적절한 어휘 사용에 관한 논의도 교과서 차원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맥락에서 다양한 어휘를 활용해 어휘 의미를 정교화하고 어휘를 문맥에 적절하게 선택하는 과정을 통합해서 다룰 수 있는 어휘 바꿔쓰기를 전략적 차원에서 어휘 교육 내용으로 구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어휘 능력의 하위로 전략적 능력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어휘 바꿔쓰기 전략들의 세부 요인을 고찰해 어휘 능력 신장에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이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은 학습자들이 체계적으로 다양한 어휘의 의미를 정교화하고 해당 어휘의 표현 효과를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어휘를 수행하는 방법이자 전략적 능력은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게 해주고, 이는 언어적 주체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휘 사용 태도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은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평소 사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휘를 실제 맥락에서 사용해 보고, 그 맥락을 재구성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글쓰기 능력 신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Ⅲ장에서는 중, 고등학교 학습자 247명을 대상으로 어휘 바꿔쓰기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과 전략 활용 양상, 어휘 사용 과정에 개입한 세부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의 어휘 바꿔쓰기

유형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원문과의 의미적 유사성’과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바꾼 어휘 표현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유형은 총 일곱 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어휘 바꿔쓰기를 실패한 경우와 수행한 경우가 있고, 수행한 경우는 다시 직관에 의존한 어휘 바꿔쓰기와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로 나타난다. 직관에 의존한 어휘 바꿔쓰기 양상은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와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로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 양상은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어색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적절하지만 단순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정교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는 의미와 맥락 차원의 고려 요인에 따라 언어적 측면, 의미적 측면, 맥락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으로 나누어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Ⅳ장에서는 Ⅱ장의 이론적 토대와 Ⅲ장의 학습자 자료를 근거로,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내용 및 활동을 구안하였다. 본고는 기존에 어휘 지식이 분절적이고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어휘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러한 실제 사용 맥락에서 어휘 지식을 활용해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를 다룰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내용이나 활동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 및 수행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서 ‘전략’을 다루면서, 기존 국어 교육에서는 논의가 미흡했던 전략적 능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국어 교육, 어휘 교육, 어휘 능력 신장, 어휘 수행 전략, 전략적 능력, 바꿔쓰기**

*** 학　번 : 2020-27281**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 연구 ····· 4
2.1. 국어 교육에서 어휘 능력에 대한 연구 ····· 4
2.2. 어휘 전략 교육 연구 ····· 7
2.3. 바꿔쓰기를 활용한 교육 연구 ····· 8
3. 연구 대상 및 방법 ····· 11

Ⅱ.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 ····· 15
1. 어휘 교육에 대한 반성적 검토 ····· 15
1.1. 교육과정 차원 ····· 15
1.2. 교과서 차원 ····· 21
2.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전략적 능력 ····· 27
2.1. 어휘 능력의 개념 및 구성 요소 ····· 27
2.2. 전략적 능력으로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 ····· 33
3.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개념 및 과정 ····· 39
3.1. 어휘 바꿔쓰기의 개념 ····· 39
3.2.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어휘 바꿔쓰기 교육 ····· 41
3.3. 어휘 바꿔쓰기의 과정 ····· 44
3.4. 어휘 바꿔쓰기 과정의 영향 요인 ····· 49
4.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유형 및 범주 ····· 56
4.1.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유형 ····· 56
4.2.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범주 ····· 61
5. 국어 교육에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의의 ····· 70
5.1.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체계적인 어휘 사용 경험 제공 ····· 70
5.2.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 제공 ····· 71
5.3. 다양한 어휘 사용 및 맥락 재구성 경험 제공 ····· 72

Ⅲ.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 분석 ·····74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74
1.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74
1) 연구 대상 ·····74
2) 연구 절차 ·····75
1.2. 자료 분석 기준 및 방법 ·····80
1) 자료 분석 기준 ·····80
2) 자료 분석 방법 ·····85
2.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 분석 결과 ·····85
2.1. 유형 1 : 어휘 바꿔쓰기 실패 ·····86
2.2. 직관에 의존한 어휘 바꿔쓰기 양상 ·····87
1) 유형 2 :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어휘 사용 ·····88
2) 유형 3 : 적절한 어휘 사용 ·····89
2.3.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 양상 ·····91
1) 유형 4 : 부적절한 어휘 사용 ·····93
① 의미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93
② 맥락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96
2) 유형 5 : 어색한 어휘 사용 ·····97
3) 유형 6 : 적절하지만 단순한 어휘 사용 ·····99
4) 유형 7 : 정교한 어휘 사용 ·····103
① 언어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103
② 의미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105
③ 맥락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110
3.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 분석의 교육적 시사점 ·····118
3.1. 어휘 사용 태도 교육의 중요성 ·····118
3.2. 어휘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인식의 필요성 ·····119
3.3. 구체적인 어휘 사용 맥락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119
3.4. 다양한 어휘 지식을 활용하는 어휘 전략 활동 제시의 필요성 121

Ⅳ.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설계 ··123
1.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목표 ·····123
2.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내용 구성 ·····125

2.1.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내용 구성 원리 ·····125
2.2. 어휘 바꿔쓰기 양상 유형에 따른 전략 교육 내용 ·····129
1) 어휘 바꿔쓰기 실패 유형 ·····129
2) 직관에 의존한 어휘 바꿔쓰기 유형 ·····130
3)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 유형 ·····131
①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어휘를 사용한 유형 ·····131
② 적절하지만 단순한 어휘를 사용한 유형 ·····133
③ 정교한 어휘를 사용한 유형 ·····133
2.3.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 따른 전략 교육 활동 ·····134
3.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수·학습의 실제 ·····137

V. 결 론 ·····145

참 고 문 헌 ·····149
부 록 ·····156
Abstract ·····168

표 목 차

<표 Ⅰ-1> 연구 내용 및 방법 개요 ····· 12
<표 Ⅰ-2> 실증적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 ····· 14
<표 Ⅱ-1> 2015 교육과정 '국어'의 문법 영역에서 '어휘' 내용 체계(밑줄은 연구자) ····· 16
<표 Ⅱ-2> 2015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에서 '어휘' 내용 체계(밑줄은 연구자) ····· 16
<표 Ⅱ-3> 2015 교육과정에서 '어휘' 관련 성취 기준 ····· 17
<표 Ⅱ-4> 2015 공통 교육과정인 '국어'에서 '전략' 관련 내용 체계(밑줄은 연구자) ····· 19
<표 Ⅱ-5> 2015 선택 교육과정인 '화법과 작문'에서 '전략' 관련 내용 체계(밑줄은 연구자) ····· 20
<표 Ⅱ-6>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신명선, 2004: 286) ····· 29
<표 Ⅱ-7> 어휘 능력의 세부 요소(이기연, 2014: 179) ····· 30
<표 Ⅱ-8> 어휘 능력 모형(차경미, 2020; 35 재구성) ····· 31
<표 Ⅱ-9> 단어에 관한 지식(Nation, 2018: 67) ····· 50
<표 Ⅱ-10> 바꿔쓰기(paraphrasing) 학습을 통한 어휘 의미 강화 전략과 어휘 지식 틀의 통합(Chen, M. H., 2019: 45) ····· 53
<표 Ⅱ-11> 단어 단위의 바꿔쓰기 유형(민경아, 곽도형, 2021) ····· 57
<표 Ⅱ-12> 단어 수준의 바꿔쓰기 범주(팜티튀린, 2012) ····· 57
<표 Ⅱ-13> 어휘 바꿔쓰기의 언어적 유형 양상 ····· 58
<표 Ⅱ-14> 국내와 미국에서 작문의 표현 측면 평가 준거(박소희, 김주환, 천해주, 김영서, 2020; 229-243) ····· 59
<표 Ⅱ-15> 어휘 바꿔쓰기의 내용적 측면 분석 기준 ····· 61
<표 Ⅱ-16>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 ····· 62
<표 Ⅱ-17>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상위 전략 ····· 63
<표 Ⅱ-18> 어휘적 전략의 범주와 사례 ····· 65
<표 Ⅱ-19> 문법적 전략의 범주와 사례 ····· 66
<표 Ⅱ-20> 풀어쓰기 전략의 범주와 사례 ····· 67
<표 Ⅱ-21> 참조 전략과 사회 관계 전략의 범주와 사례 ····· 68

<표 Ⅱ-22>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범주 ····· 68
<표 Ⅲ-1> 연구 대상 개요 ····· 75
<표 Ⅲ-2>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의 유형 ····· 84
<표 Ⅲ-3>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의 유형에 대한 설명 ····· 84
<표 Ⅲ-4>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전략 활용 양상에 대한 기술적 통계 결과 ····· 92
<표 Ⅳ-1>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목표 ····· 125
<표 Ⅳ-2> 어휘 지식의 유형과 가장 효과적인 학습 유형 (Nation, 2013: 76) ····· 125
<표 Ⅳ-3>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 따른 전략 활동 ····· 136

그 림 목 차

【그림 Ⅱ-1】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 3-2-가 교과서 '단어의 의미 관계' 활동(교육부, 2020: 89) ····· 23
【그림 Ⅱ-2】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 3-2-가 교과서 '단어의 의미 관계' 활동(교육부, 2020: 93) ····· 23
【그림 Ⅱ-3】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1-1 교과서 '어휘의 체계' 활동(김진수 외, 2018: 117) ····· 25
【그림 Ⅱ-4】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 '단어의 의미' 활동(이관규 외, 2018: 113) ····· 25
【그림 Ⅱ-5】 어휘에 대한 관점과 어휘 교육 내용의 유형화(신명선, 2011: 90) ····· 33
【그림 Ⅱ-6】 어휘 능력의 구조(신명선, 2020: 184) ····· 35
【그림 Ⅱ-7】 바꿔 쓰기의 과정(팜티튀린, 2012: 32) ····· 44
【그림 Ⅱ-8】 표현 어휘의 생성 과정(Melka, 1997; 박종미, 2014; 6 재인용) ····· 45
【그림 Ⅱ-9】 어휘 사용 기제(신명선, 2009:14) ····· 46
【그림 Ⅱ-10】 어휘 선택 과정(강가혜, 2017: 106) ····· 47
【그림 Ⅱ-11】 '게임 중독' 사례의 경우에 현상의 개념화와 어휘 선택 과정(신명선, 2020: 194) ····· 47
【그림 Ⅱ-12】 어휘 바꿔쓰기의 과정 ····· 49
【그림 Ⅱ-13】 표현의 과정에서 고려하게 되는 맥락 요소들(신명선, 2009: 105) ····· 52
【그림 Ⅲ-14】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상위 범주 전략과 하위 범주 전략 간의 관계 ····· 70
【그림 Ⅲ-1】 본조사 1번 문항 제시 방법 예시 ····· 76
【그림 Ⅲ-2】 본조사 2번 문항 제시 방법 예시 ····· 77
【그림 Ⅲ-3】 본조사 3번 문항 제시 방법 예시 (독자 고려의 경우) ····· 79
【그림 Ⅲ-4】 본조사 3번 문항 제시 방법 예시 (장르 고려의 경우) ····· 80
【그림 Ⅳ-1】 어휘 바꿔쓰기의 과정과 어휘 학습 전략 교육과정 ····· 13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어의 사용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 교육에서 ‘어휘’는 중요하다. ‘어휘’는 개념을 담고 있는 사고 단위이자 최소의 의사소통 단위로, 학습자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휘 학습이 필요하다.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은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영역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실제 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휘는 읽기 및 쓰기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독해력 신장과 관련해 어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1]. 문법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어휘 교육도 어휘의 유형이나 품사, 어려운 개념에 대한 정의와 예시만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그 범위와 양은 더욱 줄어들어, 교과서의 날개에 어휘의 풀이를 담아 학습자가 참고하게 하는 것이 전부이다.

어휘 교육의 목표는 ‘어휘 능력’의 신장으로, 어휘 능력은 어휘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어휘 능력은 어휘의 형태, 의미, 용법 등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나아가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손영애, 1992, 2000; 김광해, 2003; 신명선, 2004, 2005, 2015, 2017; 이기연, 2012, 2014; 구본관, 2011 참고). 이때 어휘와 관련된 ‘지식’이 아닌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해야 학습자의 실질적인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이기연, 2014 참고). 따라서 ‘어휘 능력’은 단순하게 어휘에 대한 지식만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휘 지식을 맥락에 맞게 선택하고 구성하는

1) 이해 위주로 어휘를 교육하는 것은 실제 맥락에서의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휘 사용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구체적인 어휘 사용 맥락에서 어휘의 의미를 세밀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어휘를 다양하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어휘 교육은 주로 어휘의 의미를 교사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나 읽기를 통해 학습자가 문맥의 어휘 의미를 추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탈문맥적인 언어적 설명을 통한 어휘 학습은 어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실제로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김지영, 2014). 또한 어휘의 문맥적 의미는 여러 사전적 의미 중 특정한 하나의 어휘 의미가 문맥에서 결정된 것일 뿐이고, 문맥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형성된 비사전적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 문맥적 의미는 특정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사전적 의미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어휘 의미 작용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신명선, 2012). 따라서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어휘의 문맥 의존적인 의미와 맥락 내에서 어휘들의 의미 관계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어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휘는 머릿속에 독립적으로 저장되지 않고 다른 단어들과 관계를 맺으며 체계를 형성하고(신명선, 2009), 본질적으로 말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과 통합적으로 교수·학습될 필요가 있다(구본관, 2011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수 방법으로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수로 다루어지는 바꿔쓰기(paraphrase)를 활용하고자 한다. 바꿔쓰기는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표현 방식의 선택을 함께 요구하는 인지적 활동으로, ‘어휘 바꿔쓰기’는 기본이 되는 어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어휘 표현의 적절한 사용을 함께 다루는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한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휘 지식을 실제 수행과 연결해 주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전략’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차경미·이기연, 2019). 국어 교육에서 전략에 대한 논의는 주로 기능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문법 영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휘 교육은 여

전히 명제적 지식의 형태로 제공되어 실제 학습자가 언어생활에서 당면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의 수행을 기대하기에는 간극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 지식을 실제로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인 전략의 형태로 '어휘 바꿔쓰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학습자가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어휘 수행 능력에 주목해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어 화자는 알고 있는 어휘라도 그 단어들이 독해 및 작문의 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 지식에 대한 질적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어휘를 맥락에 적절하게 자유자재로 바꾸는 전략을 활용해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표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통해 자신의 어휘 지식을 확장하고, 원문 텍스트의 아이디어나 의도는 왜곡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언어로 재진술하는 바꿔쓰기 활동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 맥락을 재구성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어휘 교육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여, 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능력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세부 요인들을 고찰해 그 개념 및 범주를 탐색한다.

둘째,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과 어휘 바꿔쓰기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의 내용을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한다.

셋째,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연구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 구성의 실제를 보인다.

2. 선행 연구

본고에서는 연구사를 크게 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는 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능력에 대한 연구로 어휘 교육의 목표 및 내용, 방법과 관련지어 논의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어휘 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둘째는 어휘 전략에 대해 다룬 교육 연구이다. 어휘 전략에 대한 논의는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국어 교육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연구에서 전략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교육 방법들을 다룬 논의들도 참고하였다. 또한 어휘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한국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에서 주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도 함께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바꿔쓰기를 활용한 교육 연구이다. 바꿔쓰기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수 방법으로,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 및 언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바꿔쓰기를 교육 내용 및 방법으로 다룬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2.1. 국어 교육에서 어휘 능력에 대한 연구

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어휘 사용 능력이나 어휘 능력 등으로 지칭되는 어휘와 관련된 능력의 신장이다. 어휘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어휘 지식을 주로 언급한 논의는 손영애(2000)가 있는데, 어휘력을 ‘단어의 형태, 통사, 의미 및 활용에 관련된 지식’으로 정의한다. 김광해(1993)과 이영숙(1996)에서는 어휘 능력을 양적 어휘 능력과 질적 어휘 능력으로 구분하며, 어휘력이 단어의 형태나 의미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통사, 화용 등에 관한 여러 종류의 지식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어휘 지식은 어휘의 형태, 통사, 의미 등의 선언적 지식뿐 아니라 절차적 지식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어휘의 활용과 무관하지는 않다.

어휘의 지식에서 더 나아가 어휘의 활용까지 논의한 연구로는 마광호(1998)가 있다. 마광호(1998)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를 어휘 사용 능력의 신장으로 나타내고, 어휘가 지식의 틀로서 작용해 언어 이해 및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신명선(2005)에서도 어휘를 활용하는 능력이 언급되는데, 어휘 능력을 어휘에 관한 지식과 관련되는 능력인 상징 능력과 단어를 구체적인 의사소통에서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과 관련된 능력인 지시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어휘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 어휘 능력 전반에 대해 다룬 논의는 신명선(2017)으로, 어휘 능력을 관점에 따라 크게 지식 중심 관점, 인지 중심 관점, 맥락 중심 관점, 성향 중심 관점, 소통 중심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어휘 능력에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은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하게 논의되는 어휘 능력을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을지가 어휘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어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어휘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어휘 교육 내용을 주로 '지식, 기능, 태도'의 형식으로 체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어휘 교육 내용에 관한 신명선(2005)의 '도구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인다. '인지적 관점'은 어휘를 사고의 기본 단위로 보고 개념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논의인데 반해, '도구적 관점'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논의이다[2]. 하지만 어휘 능력은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의 적절한 사용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어휘 교육에 대한 상보적

2) 어휘를 바라보는 관점(신명선, 2005 참고)

	도구적 관점	인지적 관점
기본 단위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	사고의 기본 단위
목표	실제적 어휘 사용 능력 증진	어휘를 통한 사고력 증진
교육 방식	주로 화법, 독서, 작문, 문학 영역 중 한두 항목으로 다루어지거나 그 내용에 속함	문법 영역
초점	적절성 강조	정확성 강조

관점을 바탕으로 어휘 능력 신장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어휘 교육 내용 및 교수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국어 교육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 교육의 학습 방법은 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암기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실제 언어 사용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 학습자의 배경 지식, 실제 활용 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어휘 교육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관련된 논의로는 구본관(2011ㄱ), 김규훈・이준영・김혜숙(2013)이 있다. 구본관(2011ㄱ)에서는 어휘 교육의 내용을 양적, 질적 어휘에 대한 지식, 절차적 지식, 어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에 활용, 국어 문화의 발전이나 사고력의 발전을 위한 태도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으며, 어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단어 형성법을 활용한 어휘 학습법이나 문맥을 활용한 어휘 학습법 등을 제시하였다. 김규훈・이준영・김혜숙(2013)에서는 연어를 활용한 어휘 교육 내용을 탐구하는데, 연어는 텍스트 소통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어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다. 연어의 어휘 교육 내용으로는 ‘문맥을 고려하여 어휘의 의미 이해하기’, ‘상황에 맞는 적합한 어휘 사용하기’, ‘창조적으로 어휘 사용하기’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어휘 교육 내용 및 방법들은 어휘에 대한 이해가 곧 어휘에 대한 사용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어휘의 표현까지 이어지는 것에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표현의 관점에서의 어휘 교육 방법, 총체적인 어휘 이해 등을 강조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임성규(2003), 신명선(2010), 차경미・이기연(2019)가 이에 속한다. 임성규(2003)에서는 표현 어휘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그 목표로 개인의 이해 어휘를 양적, 질적으로 확장하는 것뿐 아니라 이해 어휘 모두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때 표현 어휘는 의도적인 교육이 더 효과적이며, 그 방법으로 문맥 유추법을 제시하였다. 신명선(2010)에서는 구체적인 표현 과정에서 상하위어 선택 상황에 주목하였는데, 상하위어를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을 중심으로 선택에 따른 표현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표현 효과는 말하기나 쓰기 교육

에서 기초 교육 내용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차경미・이기연(2019)에서는 학습자들이 문장 만들기 과제와 단어 바꾸기 과제 같은 구체적 장면에서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전략을 체계화하였다.

일련의 연구들은 어휘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뿐 아니라 이를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 교육 연구의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 신장을 목표로, 실제 어휘 사용 맥락에서 어휘에 대한 총체적 이해 및 적절한 어휘 사용을 통합해서 다룰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2. 어휘 전략 교육 연구

전략(strategy)은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차경미・이기연, 2019; 137)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국어 교육에서는 주로 기능 교육에서 다루어졌다. 국어의 문법 교육이나 어휘 교육 영역에서는 전략을 중요하게 다룬 논의는 거의 없는 반면 한국어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 논의에서는 어휘 전략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본 연구는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교육을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국어 교육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되, 그 양이 적어 한국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의 논의도 함께 참고한다.

어휘 전략(vocabulary strategy)은 '학습자가 어휘 지식을 실제로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Schmitt(1997)에서는 학습자가 어휘를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어휘 학습 전략'으로 정의하며,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전략(Discovery Strategies)과 단어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Consolidation Strategies)의 두 범주로 어휘 학습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때 발견 전략에는 결정 전략(Determination Strategies)과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ies)이 포함되고, 강화 전략에는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ies), 기억 전략(Memory Strategies),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ies), 메타인지 전략

(Metacognitive Strategies)이 포함된다. 이러한 Schmitt(1997)의 어휘 학습 전략 분류법을 바탕으로 제2 언어 학습에서는 어휘 학습 전략의 사용 빈도나 교육 효과, 선호도 등을 탐구하거나 어휘 학습 전략들의 유용성 및 어휘 능력과의 관계를 실험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사용하는 장면에서 어휘 전략을 논의한 연구로는 Chapelle(1994)이 있으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 지식을 사용하는 방식을 관리하는 능력'을 어휘 전략 능력이라고 보았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정민(2010)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해 체계화하고 그 효과를 밝혔으며, 이경(2015)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표현 전략을 연구하였다. 어휘 표현 상황에서 학습자의 전략을 '문제 해결 전략'과 '어휘 운용 전략'으로 구분하고 학습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전략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어 교육에서 어휘 전략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논의로는 차경미・이기연(2019), 차경미(2020)가 있다. 차경미・이기연(2019)에서는 학습자들이 구체적 장면에서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전략을 체계화하였다. 문장 만들기 과제와 단어 바꾸기 과제를 통해 조사한 학습자들의 어휘 표현 전략은 어휘적 전략, 문법적 전략, 참조 전략, 메타인지 전략, 맥락 및 장르 이용 전략이 활용된다고 보았다. 차경미(2020)에서는 학습자의 어휘 수행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을 제시하였다. 이때 어휘 수행 전략을 어휘 이해와 표현을 위한 전략으로 구분해서 맥락 이용 전략, 어휘적 전략, 문법적 전략, 참조 전략 등으로 새롭게 정리하였다. 이는 이해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던 어휘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어휘 표현 전략을 명시적으로 개념화해서 제시한 것이다. 차경미・이기연(2019)과 차경미(2020)의 논의는 주로 외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졌던 어휘 학습 및 수행 전략을 종합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교육을 위한 전략으로 새롭게 정리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두 연구는 구체적으로 모어 화자들이 실제 단어를 표현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전략들을 활용하는지 조사하고,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따른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상관관계를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어휘 수행 전략 교육의 내용과 활동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차원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해 실제 수행을 전제로 하는 어휘 전략을 교육 내용으로 구안하고자 한다.

2.3. 바꿔쓰기를 활용한 교육 연구

주로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수로 다루어지는 바꿔쓰기(paraphrase)를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에서 교육 내용이자 교육 방법으로 제안한 연구들을 검토할 수 있다.

국어 교육에서 바꿔쓰기는 작문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는데, 공성수(2017), 최숙기(2018)를 살펴볼 수 있다. 공성수(2017)는 자료 기반 글쓰기를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구체적 전략으로 요약하기와 바꿔쓰기 활동을 제안하였는데, 바꿔쓰기를 원자료를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고 종합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수 방법으로 보았다. 또한 학습자의 인지 학습 과정을 글쓰기 수업에 접목해 단계별 수업 모형을 설계해 제시하고 있다. 최숙기(2018)에서는 중등학생의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 나타난 자료 텍스트에서 글을 차용하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환언(paraphrase)'을 다루고 있다. 이때 환언은 단순히 자료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필자가 자신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자신이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까지를 포괄한다고 보았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유의어를 사용하거나 단어를 추가, 삭제, 재배열하는 단어 수준의 환언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바꿔쓰기는 원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언어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활동이며, 학습자들이 단어 수준의 바꿔쓰기부터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법 영역, 특히 어휘 교육과 관련해 바꿔쓰기를 다룬 연구로는 박종미(2014)가 있다.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휘를 선택하는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유의어를 떠올리고 그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의어로 바꿔쓰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휘 바꿔쓰기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의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한국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에서는 전반적인 언어 능력과 관련해서 바꿔쓰기 연구가 이루어졌다. 팜티튀린(2012)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을 가르치는 방안으로 단어, 통사 구조, 문장 단위에서의 바꿔쓰기 교육을 제시하였다. 정혜연(2014)에서는 어휘, 어구, 어절, 문장, 텍스트의 모든 언어 단위 차원에서 '표현 바꾸기'이자 'paraphrase'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바꿔쓰기는 표층적으로는 '대체, 재배치, 첨가, 삭제, 분리, 연결'의 방식으로, 심층적으로는 '요약과 풀기'의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 김미영(2016)에서는 학술적 글쓰기의 기초 교육으로 바꿔쓰기 교육을 제시하며, 한국어 수업에서 정보 활용 글쓰기에 나타난 '바꿔쓰기'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때 바꿔쓰기는 원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어휘력, 정확한 문법이 필요한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홍정민(2017)은 한국어 수업에서 바꿔쓰기 수업의 유용성을 고찰하면서 원문의 이해와 용어 사용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였다. 박현진(2017)에서는 외국인 학부생의 학문적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바꿔쓰기 교육의 효과를 다루고 있다. 바꿔쓰기 교육의 결과 학습자들의 세부적인 인용 기술뿐만 아니라 구성에 맞는 글을 작성하고 맥락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전반적인 학문적 글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민경아・곽도형(2021)에서는 한국인 대학원생과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술적 글쓰기에 나타난 바꿔쓰기 양상을 분석했으며, 바꿔쓰기 유형, 바꿔쓰기에 대한 인식 차이, 교육 경험, 학술적 글쓰기의 수행 양상, 글쓰기에서의 전략 사용 양상 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바꿔쓰기 교육은 단어 단위부터 문단 단위까지 점진적이고 명시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영어 교육에서도 바꿔쓰기는 학문적 글쓰기와 관련해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hoi, 2012; Ji, 2012; Keck, 2014). 김미혜(2015)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

용해 원문을 다양한 표현으로 바꾸는 활동은 질 높은 수준의 어휘 능력 및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바꿔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바꿔쓰기에 관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주로 쓰기와 관련해서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바꿔쓰기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바꿔쓰기의 유형은 단어, 문장, 문단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때 단어 수준의 바꿔쓰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수행이다. 이는 언어 능력의 기초가 되는 것이 어휘 능력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단어 수준의 바꿔쓰기 전략 및 활동을 어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어휘 교육 내용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국어 어휘 전략 교육의 방법 및 실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어 어휘 교육에서의 어휘 전략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연구를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휘 바꿔쓰기 활동은 기본적으로 원문의 어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므로, 최소한의 어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등 교육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고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 두 층위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기존 어휘 교육을 반성적으로 검토하여 어휘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모색하고, 이론적 검토를 통해 어휘 능력의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휘 바꿔쓰기 전략이 무엇인지, 어휘 바꿔쓰기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교육적 의의가 있는지, 세부적인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유형과 범주 등에 대해 논의하여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세부 구조를 고찰한 후, 어휘 교육에서의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개념을 확립할 것이다(Ⅱ장). 이후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어휘를 인식하고 이해한

뒤, 어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교화하고, 다양한 어휘 중에서 특정 어휘를 선택하고 바꿔쓰는 학습자의 수행 과정과 이때 활용하는 전략 양상을 분석하여 유형화함으로써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 참조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Ⅲ장). 마지막으로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설계 원리를 상세화하여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실제를 보임으로써 이를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Ⅳ장).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연구 체계에 따른 세부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은 다음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연구 내용 및 방법 개요

논문 체계	하위 연구 내용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Ⅱ.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이론적 토대	• 기존 어휘 교육의 반성적 검토	•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 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휘 능력 및 전략적 능력의 위상 •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개념 및 방법, 세부 분류 •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교육적 의의	• 문헌 연구 고찰
Ⅲ.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전략 활용 양상 분석	•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바꾼 어휘의 질적 수준 및 전략 활용 양상 분석	• Ⅱ장의 이론적 토대 • 학습자 질문지 자료 질적 내용 분석 및 면담
Ⅳ.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설계	•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목표 정립 •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내용 구성 •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실제 제시	• 문헌 연구 고찰 • Ⅱ장의 이론적 토대 • Ⅲ장의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바꾼 어휘의 질적 수준 및 전략 활용 양상 분석 결과

Ⅱ장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기존의 어휘 교육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였다.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과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현행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에 따른 어

휘 관련 내용 및 활동을 검토하였다. 또한 어휘 교육의 목표로서 어휘 능력의 개념 및 모형을 살펴보고, 그 하위 요소로 전략적 능력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휘 바꿔쓰기의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유형과 범주 등에 대해 고찰해 어휘 교육에서의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실험 구성에 앞서 중학교 3학년 학습자 33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많은 학습자들이 주어진 어휘가 '명사'일 경우 이미 개념이 집약되어 있어 바꾸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어휘 바꿔쓰기 양상 및 전략 활용 양상을 보기 위해 '용언(동사, 형용사)'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하였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자의 어휘 능력 수준 차이를 고려해 과제를 구성했으며,[3] 어휘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문장과 문단에서의 어휘 바꿔쓰기 과제로 구상하였다. 본조사는 중학교 2학년 학습자 116명,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추가 질문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학습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과제를 통해서는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점검해 깊이 있는 해석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바꿔쓰기 능력의 평가 요소, 어휘 평가 준거 등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주어진 자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내용과 맥락을 연구자의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는(김석우・최태진・박상욱, 2015: 346)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3) 예비 조사에서는 어휘와 문장을 중학교 3학년이 학습하는 교과서에서 추출하였으나, 교과서의 어휘 및 문장은 비교적 정제되어 있어 바꿔쓰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김광해(2003)에서 규정한 정규 교육의 학습자들이 배우는 어휘군인 3등급과 4등급 어휘를 활용하되, 일상생활의 언어나 뉴스, 신문 텍스트에서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는 학습자들이 어휘 바꿔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한 텍스트에 근거해 학습자의 사고 및 인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며, 학습자의 응답을 질적으로 해석해 그 응답에 내재된 잠재적인 내용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구조화 내용 분석(structuring content analysis)을 통해 어휘 바꿔쓰기 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에서 구체적인 전략 활용 및 어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토대로 각 유형의 개별적인 특징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적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 <표 Ⅰ-2>와 같다.

<표 Ⅰ-2> 실증적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

구분	목표	대상	방법	분류기호	시기
예비 조사	어휘 바꿔쓰기 양상 분석(1차)	서울 소재 E 중학교 3학년 학습자 33명	질문지 조사	E-J-1-일련번호	2021. 12.
본 조사	어휘 사용에 대한 인식 조사	서울 소재 S 중학교 2학년 학습자 116명	질문지 조사	S-J-2-일련번호	2022. 7
		경기 소재 S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52명		S-H-2-일련번호	
	어휘 바꿔쓰기 양상 분석(2차)	서울 소재 H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46명		H-H-2-일련번호	
	어휘 바꿔쓰기 양상 분석(3차)	서울 소재 S 중학교 2학년 학습자 7명	심층 면담	S-J-3-일련번호	2022. 11
		경기 소재 S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4명		S-H-3-일련번호	
		서울 소재 H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5명		H-H-3-일련번호	

II.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

1. 어휘 교육에 대한 반성적 검토

본 절에서는 기존 어휘 교육을 반성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차원에서 어휘 교육이 전개되어 온 양상을 살펴보고, 어휘 교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전략이 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반성적 검토를 통해 본고는 어휘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적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교육과정 차원

인간의 언어 활동에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언어 활동의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능력으로, 언어 활동에서 '어휘 능력'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어휘에 관련된 지식은 언어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관련되며, 읽기, 쓰기, 듣기·말하기 등 의사소통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언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중요성은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위상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국어 교육에서는 어휘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읽기와 문법 영역 정도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교육과정인 '국어'의 문법 영역과 선택 교육과정인 '언어와 매체'에서 '어휘'를 다루고 있는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 <표 Ⅱ-1>, <표 Ⅱ-2> 와 같다.

<표 Ⅱ-1> 2015 교육과정 '국어'의 문법 영역에서 '어휘' 내용 체계(밑줄은 연구자)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1~3학년
		3~4학년	5~6학년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	국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구성되며 이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국어 지식을 얻고 이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 낱말의 의미 관계 • 문장의 기본 구조	• 낱말 확장 방법 • 문장 성분과 호응	• 음운의 체계와 특성 • 품사의 종류와 특성 • 문장의 짜임 • 담화의 개념과 특성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 발음과 표기 • 어휘 사용 • 문장·담화의 사용	발음·표기, 어휘, 문장·담화 등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 능력을 기르고 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	• 낱말 분류와 국어사전 활용 • 높임법과 언어 예절	• 상황에 따른 낱말의 의미 • 관용 표현	•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 어휘의 체계와 양상의 활용 • 한글의 창제 원리

<표 Ⅱ-2> 2015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에서 '어휘' 내용 체계(밑줄은 연구자)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국어의 탐구와 활용	• 음운·단어·문장·담화 • 국어 자료의 다양성	• 국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의 체계로 구성된다. • 국어 구조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발음, 단어와 문장의 정확한 사용, 담화의 효과적인 구성에 활용된다. • 다양한 국어 자료에 대한 이해는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자료를 생산하는 데 활용된다.	• 음운의 체계와 변동 • 품사와 단어의 특성 •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 의미 관계와 어휘 사용 • 문장의 짜임과 활용 •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 담화의 특성과 국어생활 • 시대·사회에 따른 국어 자료 • 매체·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 • 국어의 규범과 국어생활

먼저 내용 체계에서 지식 측면과 관련된 어휘 교육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어휘에 대한 다양한 의미, 문법, 화용적 지식은 국어사전의 활용과 더불어 초등학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어휘의 체계와

양상, 품사, 의미 관계 같은 어휘론 지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어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탐구하면서 실제 국어 생활에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탐구하고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급으로 학년은 올라갔지만 다루는 내용 측면은 유사한 어휘론 지식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휘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도 '어휘의 의미 관계' 관련 지식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만 교육 내용으로 나타나며, '어휘의 체계' 관련 지식은 고등학교에서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휘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3> 2015 교육과정에서 '어휘' 관련 성취 기준

학교급	성취기준
초등학교	[2국04-0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읽고 쓴다. [2국04-04] 글자, 낱말, 문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흥미를 가진다. [4국04-01] 낱말을 분류하고 국어사전에서 찾는다. [4국04-02]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비슷한 말, 반대말, 상, 하위어 등)를 파악한다. [6국04-02]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탐구하고 어휘력을 높이는 데에 적용한다. [6국04-03]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탐구한다. [6국04-04]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
중학교	[9국04-03]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9국04-04]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9국04-05] 어휘의 체계(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와 양상(지역 방언, 사회 방언 등)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고등학교	[12언매02-02]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을 탐구한다. [12언매02-03]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어휘 관련 성취 기준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어휘를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휘의 적절한 사용 및 활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4국04-02]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의 해설에서는 ‘비슷한말, 반대말, 상·하위어 등을 여러 상황에서 활용해봄으로써 어휘력을 신장하도록 하는 것’, ‘[9국04-05]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의 해설에서는 ‘어휘의 유형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담화 상황에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등 ‘적절한 어휘 사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휘 교육적 측면에서 학습자가 어휘 지식에 대한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능력의 차원에서 일상 국어 생활에서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도 이와 관련해 학습자가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어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을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략’에 대해 다룬 논의를 살펴보면, ‘국어’의 ‘듣기·말하기’와 ‘쓰기’ 영역, ‘화법과 작문’에서 ‘전략’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 체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Ⅱ-4>, <표 Ⅱ-5>와 같다.

<표 Ⅱ-4> 2015 공통 교육과정인 '국어'에서 '전략' 관련 내용 체계(밑줄은 연구자)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듣기·말하기의 구성 요소	• 화자·청자·맥락 ‣ 듣기·말하기의 과정 ‣ 듣기·말하기의 전략 • 표현 전략 • 상위 인지 전략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의 목적과 상황, 매체에 따라 적절한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여 듣기·말하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며 소통한다.	• 청중 고려 • 말하기 불안에의 대처 • 설득 전략 분석 • 비판하며 듣기	•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
쓰기의 구성 요소	‣ 쓰기의 과정 ‣ 쓰기의 전략 • 과정별 전략 • 상위 인지 전략	필자는 다양한 쓰기 맥락에서 쓰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 내용의 통일성 • 표현의 다양성 •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설명 • 고쳐쓰기[일반 원리]	• 쓰기 맥락 • 고쳐 쓰기[쓰기 과정의 점검]

<표 Ⅱ-5> 2015 선택 교육과정인 '화법과 작문'에서 '전략' 관련 내용 체계(밑줄은 연구자)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화법의 원리와 실제	• 화법의 구성 요소 • 담화의 맥락 • 담화의 유형 • 화법의 전략 • 화법의 표현과 전달 방법	• 화법은 주제, 목적, 청자, 매체, 담화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된다. • 화법은 인지적·상위 인지적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표현과 전달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 대화[자아 인식과 자기표현, 갈등 조정] • 토론[반대 신문] • 협상[상황 분석, 협상 전략] • 면접[답변 전략] • 발표[청자 고려] • 연설[설득 전략] • 상황에 맞는 화행 •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
작문의 원리와 실제	• 작문의 구성 요소 • 작문의 맥락 • 글의 유형 • 작문의 전략 • 작문의 표현과 전달 방법	• 작문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글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된다. • 작문은 인지적·상위 인지적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표현과 전달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 정보를 전달하는 글[정보의 선별과 조직] • 소개하는 글[작문의 맥락] • 보고하는 글[절차와 결과] • 설득하는 글[논거와 설득 전략] • 비평하는 글[필자의 관점] • 건의하는 글[현안 분석 및 해결] • 친교 표현의 글[독자 고려] • 정서 표현의 글[진정성] • 성찰하는 글[체험의 기록]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듣기・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 구체적인 수행과 관련된 표현 전략이나 과정별 전략, 평가・점검・조정하기 같은 상위 인지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략은 의사소통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의사소통 목적'과 '상황', '매체', '맥락' 등을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전략'을 따로 언급하기보다는 세세한 지식, 기능과 함께 숙달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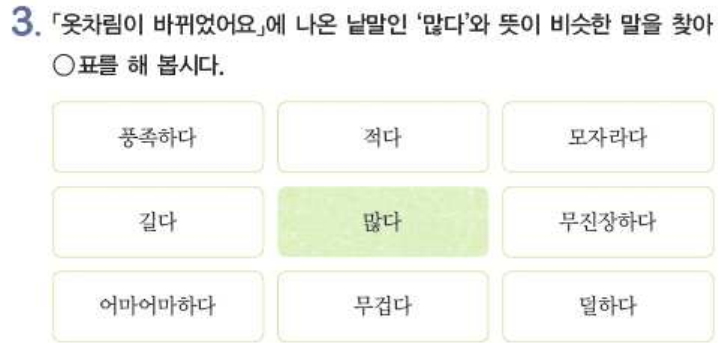
이처럼 기능 영역에서는 '전략'이 내용 체계에서 '핵심 개념'으로 다뤄질 정도로 위상이 높은 데 비해 문법 영역에서는 전략이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법 영역에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핵심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어휘'와 관련된 지식처럼 '지식'적인 속성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의 문법 교육의 목표가 '아는 학습자'에서 '할 줄 아는 학습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문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는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어휘 교육에서 목표로 삼는 학습자 역시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 학습자'가 아니라 '실제 어휘 이해와 표현을 잘하는 학습자'라는 점에서 어휘 교육에서 '전략적 능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차경미, 2020: 43).

1.2. 교과서 차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실제 교과서를 구현하는 데 반영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교과서는 추상적인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수・학습이 가능하게 구체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양세희, 2017: 66). 따라서 본고는 교육과정에서 살펴봤던 어휘 교육 내용 및 성취 기준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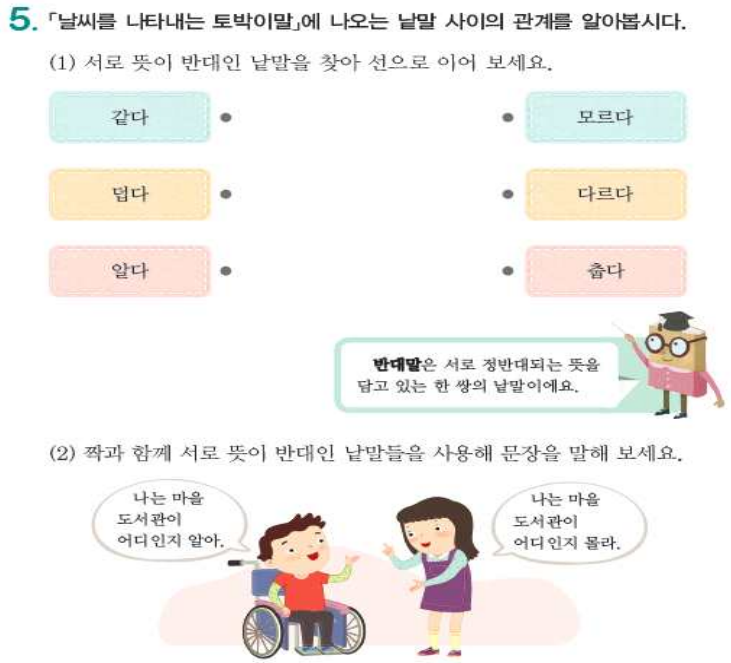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학습자는 중학생 2학년과 3학년, 고등학생 1학년으로,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 이미 어휘의 다양한 의미 및 의미 관계를 배우고, 중학교에서 품사와 어휘의 체계 및 양상 등 어휘 지식에 대해 학습한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국어'에서는 어휘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루는 '언어와 매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어휘 지식을 종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미 배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국어' 교과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언어와 매체'의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유사한 어휘 지식이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참고한다.

먼저 초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면, 어휘에 대한 다양한 의미, 문법, 화용적 지식, 국어사전의 활용 등 어휘와 관련된 기본적이면서 전반적인 지식이 초등학교에서 활동과 함께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단어 의미 관계'와 관련된 활동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Ⅱ-1】, 【그림 Ⅱ-2】처럼 기초적인 유의 관계 및 반의 관계에 대한 개념과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옷차림이 바뀌었어요」에 나온 낱말인 '많다'와 뜻이 비슷한 말을 찾아 ○표를 해 봅시다.

풍족하다	적다	모자라다
길다	많다	무진장하다
어마어마하다	무겁다	덜하다

【그림 Ⅱ-1】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 3-2-가 교과서 '단어 의미 관계' 활동(교육부, 2020: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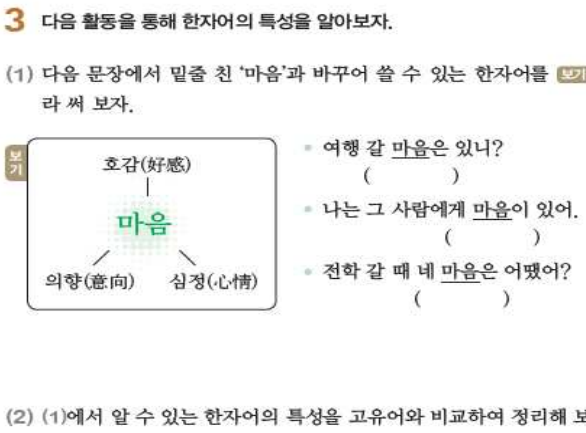
【그림 Ⅱ-2】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 3-2-가 교과서 '단어 의미 관계' 활동(교육부, 2020: 89)

또한 초등학교 국어 <6-2-가> 교과서에서는 한 단원 전체가 '관용 표현을 활용해요'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관용 표현의 뜻을 알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 생각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을 활용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4]. 즉 학습자가 기본적인 관용 표현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 표현 효과를 인지하고, 실제 관용 표현을 일상생활에 사용해 보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관용 표현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기본적인 어휘 지식개념부터 활용까지 차근차근 학습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어휘는 일반적으로 단어, 낱말 등과 혼동해서 쓰이지만,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어휘'는 집합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바꿔쓰기 과정에서는 흔히 단어로 언급되는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뿐 아니라 관용어, 사자성어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휘'는 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문법적인 기능어로 주로 다루어지는 조사나 어미는 제외한다.

한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비슷한 어휘론 지식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으면서 학습 목표로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탐구하면서 실제 국어 생활에 ‘사용’ 하고자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이를 구현한 교과서를 살펴보면, 어휘 교육의 목표로 ‘어휘 능력 신장’ 을 내세우면서도 교육 내용으로는 어휘의 체계 및 양상,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한 어휘론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휘의 체계’ 활동을 다룬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학습 목표로 능동적인 언어생활, 적절한 어휘 사용을 추구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명시한다. 즉,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 상황에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해 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활동 구성에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 및 특성과 관련된 활동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아래 그림처럼 고유어를 한자어로,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활동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는 대화 상황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어 비교를 통한 어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유도하는 활동일 뿐이다. 이는 어휘 표현 활동에 있어 고려하게 되는 단어의 종류가 가지는 표현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어휘 사용에 있어 기반적인 지식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어휘 교육의 목표로서 어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 보는 교육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3 다음 활동을 통해 한자어의 특성을 알아보자.

(1)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마음'과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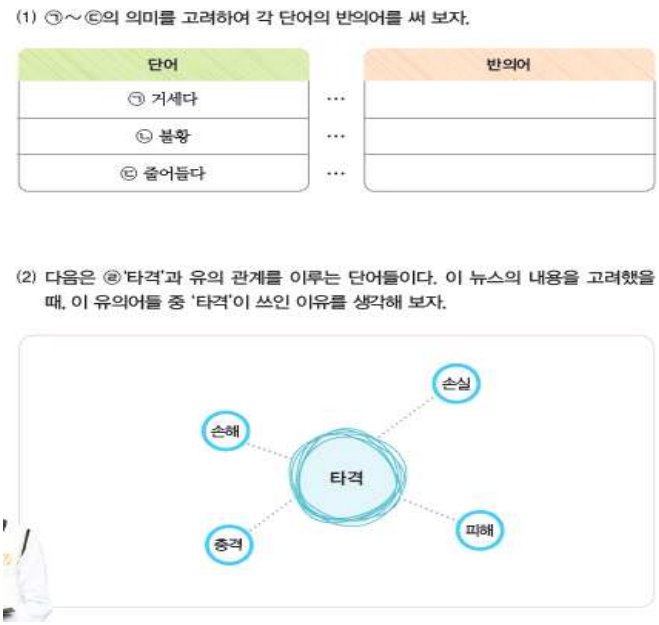
호감(好感)
마음
의향(意向) 심정(心情)

- 여행 갈 마음은 있니?
  (　　)
-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
  (　　)
- 전학 갈 때 네 마음은 어땠어?
  (　　)

(2) (1)에서 알 수 있는 한자어의 특성을 고유어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자.

【그림 Ⅱ-3】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1-1 교과서 '어휘의 체계' 활동(김진수 외, 2018: 117)

또한 초등학교와 비슷한 내용인 '어휘의 의미 관계'를 다룬 고등학교의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도 실생활에서 단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 간에 어떤 의미 관계가 있는지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어휘 지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단순하고 간단한 어휘 몇 개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어휘의 의미 관계를 아는 수준의 초등학교급에 비해서는 아래 그림처럼 유의 관계 중에서도 해당 단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탐구하는 활동을 제시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학습자들이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차원에서만 머무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 지식을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의 밑거름으로 삼고, 이를 다양한 어휘 사용 맥락을 고려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어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Ⅱ-4】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 '단어의 의미' 활동(이관규 외, 2018: 113)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종합하면, 기존 어휘 교육에서 다루는 어휘 교육 내용은 '어휘 체계와 양상', '품사', '단어 형성', '의미 관계'의 어휘론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교과서에서 이러한 지식은 단원별로 구분되어 교육되고 있으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해서도 어려운 어휘의 의미를 각주로 제공해주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어휘 지식들이 통합되지 않고 분절적으로 교육되고 있다는 문제를 보인다. 이러한 어휘 지식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휘 지식은 어휘에 대한 형태, 의미,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 지식과 여러 어휘 간의 연결망 지식, 절차적 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유의미한 형태로 가르치기 위한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어휘 이해 및 표현 과정이 통합되어 실제 사용 맥락에서 어휘를 다룰 수 있으면서, 이러한 어휘의 사전적 의미,

어휘의 의미 관계, 어휘의 체계 및 양상 등과 같은 어휘 지식들을 종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휘 바꿔쓰기’를 교육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어휘에 대한 진정한 앎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신명선, 2007: 2008), 어휘 바꿔쓰기 활동을 통해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 의식적으로 주목하면서 학습자는 어휘에 대한 인지적인 정교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어휘 학습을 심층적으로 만들고, 이러한 심층적 학습의 결과는 자동화 및 내면화로 이어져서 앞으로의 어휘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이영애 역, 2012:307). 또한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어휘 학습 과정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어휘 지식을 실제로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인 ‘전략’의 형태로 교육 내용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전략적 능력

2.1. 어휘 능력의 개념 및 구성 요소

어휘 교육의 목표인 어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어휘 교육 내용으로서 어휘 바꿔쓰기를 전략의 형태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어휘 능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어휘 능력을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이나 어휘 이해와 어휘 표현으로 구분하거나, 교육과정에 근거해 어휘 능력을 지식, 기능, 태도 차원에서 다루기도 하며, 여러 관점에 따라 어휘 능력을 지식, 인지, 맥락, 성향, 소통 중심으로 체계화한 논의도 있다. 최근에 어휘 능력은 어휘의 형태, 의미, 용법 등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나아가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손영애, 1992, 2000; 마광호, 1998; 김광해, 2003; 신명선, 2004, 2005, 2015, 2017; 구본관, 2011; 이

기연, 2012, 2014 참고). 기존에 지식 중심의 어휘 능력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 다원적, 다층적으로 어휘 능력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휘 능력 개념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어휘에 대한 지식 학습뿐만 아니라 어휘의 이해 및 표현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교과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수행의 경우 교육적인 실천이 체계적,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구체적인 수행을 담보하는 어휘 교육 내용으로서 어휘 바꿔쓰기를 제안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어휘 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마광호(1998)에서는 직접적으로 어휘 사용 능력[5]을 강조하면서 이해 과정 및 표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어휘 사용 능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때 어휘들의 역동적인 사용을 어휘 교육의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사용 과정으로서의 전략적 접근도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본고에서 어휘 능력의 신장을 위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사용하는 과정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신명선(2004)에서는 어휘 능력을 ‘지식’이 아닌 ‘능력’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다음 <표 Ⅱ-6>처럼 상징 능력과 지시 능력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

5) 어휘의 평가 영역에서도 어휘의 사용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어휘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에 의하면 수능의 ‘어휘 영역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어휘의 이해와 사용
①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② 어휘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는가
③ 어휘의 짜임과 의미 변화를 이해하고 탐구하는가
(나) 어휘 용법의 이해와 적용
① 어휘의 지시적·문맥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② 어휘의 비유적·관용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표 Ⅱ-6>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신명선, 2004: 286)

상징 능력	지시 능력
주로 단어(어휘)의 형식과 내용과의 관계 탐구	주로 단어(어휘)의 내용과 세계와의 관계 탐구
정확성, 체계성, 과학적 개념 중시	적절성 중시, 비체계적, 일상적 개념
탈맥락적(의사소통 상황과 일정한 거리 유지)	맥락적(의사소통 상황 중시)
형태론,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등과 주로 관련	의미론, 화용론 등과 주로 관련
궁극적으로는 CALP 추구, 언어 의식 고양(Language awareness)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BICS 추구

상징 능력은 단어 그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능력을, 지시 능력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본다. 기존에 '어휘 자체'에만 주목해 어휘의 지식적인 측면을 다루었던 것에 비해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의의가 있다. 예컨대 유의어 그 자체에 대한 지식에서 더 나아가 유의어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해당 어휘 선택과 표현의 효과에 대한 이해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기연(2012, 2014)에서도 어휘 능력이 '지식'이 아닌 '능력'이어야 한다고 보면서, 구체적인 어휘 능력의 하위 요소인 '운용'을 가장 '능력'에 가까운 영역으로 언급하고 있다.

<표 Ⅱ-7> 어휘 능력의 세부 요소(이기연, 2014: 179)

지식	어휘 내적 지식	의미	사전적 의미, 백과사전적 의미
		구조	형태소(어원 정보, 한자 정보), 품사 및 범주 정보
		형태	발음, 표기
		화용	
	어휘 외적 지식	어휘 관계, 어휘 체계 등 어휘론과 관련된 제반 지식	
운용	변별: 추상적인 어휘 의미 사이의 의미들을 인지하고, 점검하고, 검토하고, 비교하면서 의미 차이 및 사용상의 차이 등을 변별하는 능력		
	추론: 문맥 등을 통해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		
	정의(개념화): 나타내고자 하는 상황이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개념을 분명히 하는 능력		
	생성: 단어의 창조적 사용 능력과 관계된 기능이다. 단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태도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 어휘 능력에 대한 태도		

이기연(2014)에서 어휘 능력의 '운용'은 단순히 어휘를 '아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머릿속에 저장된 어휘부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고, 이를 실제 의사소통 행위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이 발달할수록 어휘의 세밀한 의미 차이에 주목하고 좀 더 정교하고 적확하게 단어를 부려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휘 능력의 평가와 관련해서 다룬 이기연(2012)에서도 기능 측면에서 둘 단어 이상의 의미 차이를 변별할 수 있으며, 의미를 명료화하여 그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태도 측면에서 언어 사용의 주체로서 어휘를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의미 차이를 변별하거나, 의미를 명료화하는 등 어휘부 내에서의 학습자의 사고 기능[6](이기연, 2012: 79)'

6) '전략'과 '기능'은 그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개념은 모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기능'은 정해진 바에 따른 일률적인 행동인 것에 반해 '전략'은 자기 반성이나 유연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으로 정의한 어휘의 ‘운용’ 능력을 차경미(2020)에서는 어휘 능력의 ‘전략적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차경미(2020)의 논의는 수행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능력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학습자가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어휘 능력에 중점을 두고자 하므로, 차경미(2020)에서 다루는 ‘어휘 능력 모형’을 따르면서 어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으로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Ⅱ-8> 와 같다.

<표 Ⅱ-8> 어휘 능력 모형(차경미, 2020; 35 재구성)

지식	전략적 능력	태도
어휘 지식	어휘 바꿔쓰기 전략	어휘 사용 태도
어휘 사용 맥락		

차경미(2020)에서는 전략적 능력과 함께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어휘 지식, 태도, 맥락[7]에 대해 다루었으며, 어휘 사용 맥락은 어휘 능력의 전제가 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인간의 어휘 능력은 지식, 전략적 능력, 태도가 모두 어우러져서 발현되는 것으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교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어휘 사용 맥락은 어휘 사용 과정에 항상 관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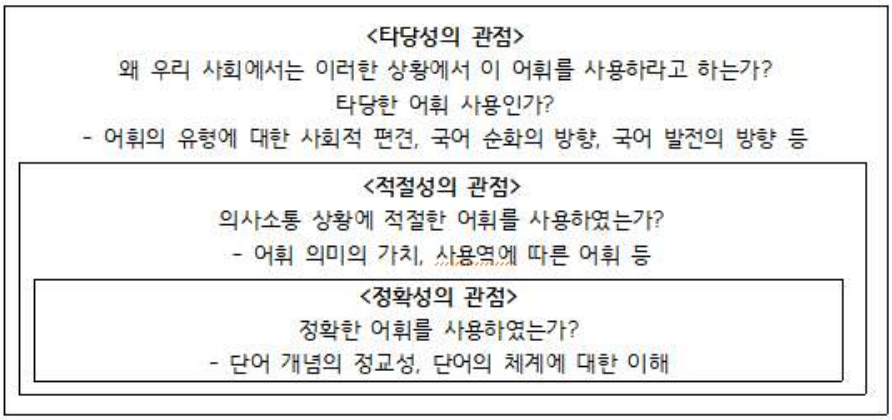
차이점이 있다.

7) 여기서 어휘 지식은 단어의 의미, 구조, 형태, 화용적 지식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하며, 태도는 적절한·타당한·창의적인 어휘를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와 어휘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태도로 세분화할 수 있다. 어휘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태도에는 단어 자체에 대한 흥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어휘 사용 맥락은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맥락과 관련되며, 화·필자의 입장이나 상태, 청·독자의 특징, 화제 및 주제, 상황 맥락, 발화·글의 목적이나 성격, 장르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기연, 2012; 차경미, 2020).

한편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신명선(2011)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언어에 대한 관점은 다음과 같이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의 관점으로 구분된다(신명선, 2011: 73).

- 정확성의 관점: 언어는 규칙이며 체계이므로, 정확한 언어 사용을 강조하는 관점
- 적절성의 관점: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므로,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언어 사용을 강조하는 관점
- 타당성의 관점: 언어는 하나의 사회 제도와 유사한 것이므로, 언어에 담겨 있는 이념과 이데올로기 등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어 사용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관점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의 관점은 언어 사용에서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완전히 구별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각 관점이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포함 관계에 있으며, 어휘 사용에 있어 어떠한 요인을 더 고려하는지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림 Ⅱ-5】어휘에 대한 관점과 어휘 교육 내용의 유형화(신명선, 2011: 90)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성취 기준의 어휘 교육 내용에서는 ‘적절한 어휘 사용’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본고에서 주목해서 다루고자 하는 지시 능력이자 어휘 능력도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휘의 적절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교과서를 구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어휘 사용의 측면이 잘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습자들이 어휘론적인 지식만을 바탕으로 정확성 측면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학습자가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상정하며, 이미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습자에게는 더 나아가 타당성의 관점에서 어휘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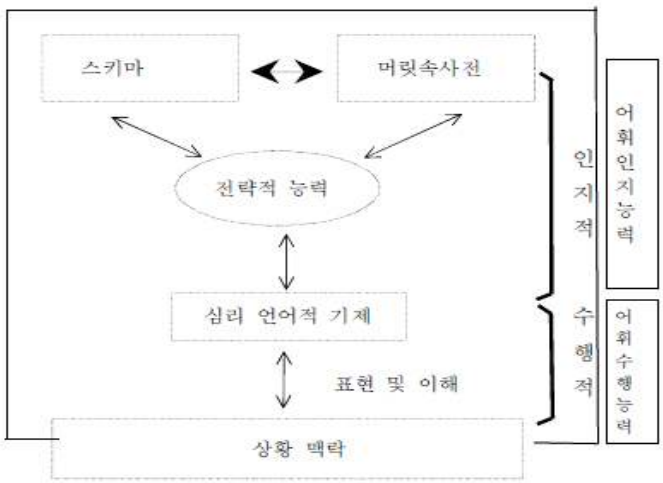
2.2. 전략적 능력으로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

어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으로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전략(strategy)의 교육학적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으로, 처음에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조직을 가리키는 말(van Dijk & Kintsch, 1983: 62, 천경록, 1995: 321 재인용)이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개념이다.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로 전략적 능력을 다루면서 전략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Selinker, 1972; Canale & Swain, 1980 참고). 따라서 전략은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차경미・이기연, 2019; 137)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국어 교육에서는 주로 기능 교육에서 다루어져 왔다. 상술하였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듣기・말하기, 쓰기,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만 ‘전략’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략에 대한 논의는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구성 요소로 전략을 다루면서 본격화되었다. Bachman(1990)에서는 전략적 능력을 의사소통하는 맥락에서 언어 능력을 구성하는 발음, 어휘, 문장 구조 같은 하

위 요소들을 언어 사용에 활용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정신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M.Canale(2013)에서는 전략적 능력을 의사소통이 중단될 때 이를 보완하거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 비언어적 전략에 대한 숙달로 보고 있다. 국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언어 사용 능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며,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어 교육에서 매우 높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대한 절차적 지식 및 기능과 관련되어 전략적 능력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어휘 능력과 관련해서 ‘전략적 능력’을 다룬 연구로는 신명선(2004, 2017, 2020), 차경미(2020)이 있다. 신명선(2004)에서 ‘전략적 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성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어 구사 방법으로, 인지적인 측면이 강한 ’추론 능력’이라고 보았다. 신명선(2017)에서는 어휘 능력을 머릿속 사전(lexicon)이나 인지 능력과의 관련성에 주목해 ‘전략(strategy)’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신명선(2020)에서는 ‘어휘 능력의 인지적 측면과 수행적 측면’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전략적 능력으로 ‘관점 선택 능력’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리하면 신명선(2004, 2017, 2020)의 논의에서는 어휘 능력과 관련된 전략적 능력을 아래 【그림 Ⅱ-6】처럼 ‘상황을 전략적으로 파악(평가, 계획, 실행)’하는 상위 인지 전략으로 다루고 있다.



【그림 Ⅱ-6】 어휘 능력의 구조(신명선, 2020: 184)

반면 차경미(2020)의 논의는 상술했듯이 수행적 차원에서의 어휘 전략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학습자가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어휘 능력에 중점을 두고자 하므로 차경미(2020)의 논의를 따르면서 어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으로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앞에서 다룬 전략의 개념을 바탕으로 어휘 전략(vocabulary strategy)은 '학습자가 어휘 지식을 실제로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어의 문법 교육 및 어휘 교육에서 전략을 다룬 논의는 거의 없는 반면 한국어 교육이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같은 외국어 교육에서는 활발하게 어휘 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어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전략 사용을 강조하고(Schmitt, 1977), 어휘 학습에 효과적인 다양한 전략들을 탐구해왔다.

모어 화자에게도 이러한 어휘 전략의 중요성이 낮지 않은데(차경미, 2020: 22), 이는 앞에서 다루었던 국어 어휘 교육의 목표인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과도 관련된다. 여기서 최근의 문법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어휘와 관련된 '지식'이 아닌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교육의 대상이 개별 '지식'이 아닌 익혀야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학습자의 실질적인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본다(이기연, 2014 참고). 따라서 '어휘 능력'은 단순하게 어휘에 대한 지식만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휘 지식을 맥락에 맞게 선택하고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어휘의 이해 및 표현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학습자가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어휘 수행 능력에 주목하는 어휘 전략 교육을 다루고자 한다.

상술했듯이 어휘 전략과 관련한 논의는 한국어 교육이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포함하는 외국어 교육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참고로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 어휘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자 한다.

어휘 전략은 주로 어휘 학습 전략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Schmitt(1997)는 학습자가 어휘를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어휘 학습 전략'으로 정의했다. Schmitt(1997)에서는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전략(Discovery Strategies)과 단어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Consolidation Strategies)의 두 광범위한 범주로 그룹화해서 어휘 학습 전략을 제시했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사용하는 장면에서 어휘 전략을 논의한 연구로는 Chapelle(1994)이 있으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 지식을 사용하는 방식을 관리하는 능력'을 어휘 전략 능력이라고 보았다. 차경미(2020)는 이렇게 외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졌던 어휘 학습 및 수행 전략을 종합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교육을 위한 어휘 이해와 표현을 위한 전략으로 구분해서 새롭게 정리하였다. 이는 이해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던 어휘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어휘 표현 전략을 명시적으로 개념화해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어휘 전략 연구들에서 바꿔쓰기(paraphrasing) 전략을 다룬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외국어 학습자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 표현 전략으로 패러프레이즈(paraphrase), 언어 전환, 상위어 사용 등이 제시되는(Blum-Kulka & Levenston, 1983; Tarone, Cohen & Dumas, 1983)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패러프레이즈(paraphrase)는 동일한 아이디어를 같은 언어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전략으로, Schmitt(1997)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다루어진다. 단어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한번 본 어휘를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차경미(2020)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어휘를 학습해야 하는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필요하지만, 모어 화자를 위한 어휘 전략으로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지 중심이

나 맥락 중심의 관점에서 어휘 능력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보다 주어진 상황 및 맥락에 맞는 단어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꺼내서 표현해낼 수 있는지가 능력의 판단 척도로 작용하기 쉽다. 또한 소통의 관점에서도 상대가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보다 상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로 주어진 맥락에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신명선, 2017: 196). 이러한 점에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은 학습자가 주어진 맥락에 적절한 어휘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전략 및 활동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사소통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 '판단(judgement)'으로, 이는 실제 수행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신명선, 2005).

차경미(2020)의 어휘 수행 전략에서는 인지 전략 중의 하나로 개인적 전략이자 어휘적 전략 범주에서 '대체 표현 고려 전략'으로 바꿔쓰기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바꿔쓰기' 전략은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에 부합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대체어를 활용해 어휘 표현을 이어 나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 전략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맥락을 인식하거나 글에서 지나친 반복을 피하고 더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소극적 전략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가 적극적 전략으로서 바꿔쓰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교육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원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어휘를 선택·사용하는 전략적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지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어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또한 학습자들이 단어를 의식적으로 다른 단어로 바꾸어 보는 연습을 통해 맥락에 적절하게 다양한 어휘를 부려 쓸 수 있는 어휘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에서는 구체적인 어휘 전략 활용과 관련된 교육 내용 및 방법이 연구되고 있지만, 국어 교육에서는 어휘 교육 차원에서

전략과 관련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차경미(2019, 2020)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어 교육의 어휘 교육 차원에서 어휘의 이해 전략과 표현 전략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차경미(2019)는 어휘 전략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수행을 위한 어휘 전략 교육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며, 차경미(2020)은 학습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어휘 수행 전략의 사용을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학습자들의 실제 어휘 수행 현장 및 사고 활동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 수행을 전제로 하는 어휘 사용 전략을 교수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휘 능력의 하위에 전략적 능력을 포함시키는 논의를 따르면서, 그 전략적 능력으로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한다.

3.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개념 및 과정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다루기에 앞서 더 상위 개념인 ‘바꿔쓰기(paraphrase)’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술했듯이 어휘 전략을 다룬 Schmitt(1997), 차경미(2020) 등의 논의에서 ‘바꿔쓰기’가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과정, 세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 등에서 읽기와 쓰기 통합 교수 방법으로 자주 다루어지는 ‘바꿔쓰기’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문장이나 문단 수준에서의 바꿔쓰기에 주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휘 수준의 바꿔쓰기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다루어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휘 전략으로서의 ‘바꿔쓰기’ 논의와 읽기 및 쓰기에서의 ‘바꿔쓰기’ 논의를 참고해 그 교차점을 찾아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구체적인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어휘 바꿔쓰기의 개념

본래 바꿔쓰기(paraphrase)는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새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표현 방식의 선택을 함께 요구하는 인지적 활동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언어 지식과 사고력을 함께 활용하는 표현 수단으로 교육적 의의가 크다. 또한 자료의 활용에 있어 인용과 표절 문제 등 학문 윤리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어 교육에서 주로 바꿔쓰기(paraphrase)는 작문 영역에서 인용과 함께 텍스트를 차용하는 행위로 다루어진다. 요약과 비교했을 때, 정보가 초점화되어 있는 요약과 달리 바꿔쓰기는 원문의 길이와 유사하게 원문과 동일한 정보를 필자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최숙기, 2018; 212). 즉, 바꿔쓰기는 요약하기나 인용하기와 달리 원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문을 반드시 변형해야 한다는 점에서 글의 내용 및 언어적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변환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주로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산적인 연습이 될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 바꿔쓰기(paraphrase)를 다루고 있다. 바꿔쓰기는 원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어휘력, 정확한 문법의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급 수준 이상의 학생들에게 활용되고 있으며, 바꿔쓰기의 유형, 전략, 교육 효과 등에 대한 연구(김지혜, 2009; 팜티튀린, 2012; 정혜연, 2014, 2016; 박현진, 2017, 2018; 민경아・곽도형, 2021)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 교육에서도 바꿔쓰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학문적 글쓰기와 관련해 강조되고 있다(Choi, 2012; Ji, 2012; Keck, 2014). 일반적으로 국어나 영어 교육에서 읽기와 쓰기의 통합 수업으로 교과서에 가장 많이 제시되는 쓰기 활동은 ‘요약하기’이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본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때 학습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 원문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바꾸는 활동은 질 높은 수준의 어휘 및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미혜, 2015). 즉 바꿔쓰기 활동을 선행함으로써 작문의 질과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본격적인 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바꿔쓰기는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바꿔쓰기를 위해서는 필자가 체계적으로 단어, 문장, 문단 수준의 바꿔쓰기의 각 단계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Gleitman. L & Gleitman. H, 1971), 이때 단어 수준의 바꿔쓰기는 바꿔쓰기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이는 문법 교육, 어휘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바꿔쓰기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단어의 대체, 축소, 확장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활용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삭제하거나, 단어를 추가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풀어쓰는 방법이다(민경아, 곽도형. 2021). 어휘에 주목해서 이를 자신의 언어로 재생산하는 바꿔쓰기를 통해, 문맥에 적절한 어휘 표현의 사용에 초점을 둘 수 있으며 다양한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직접 쓰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즉 바꿔쓰기는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표현 방식을 선택하는 인지적 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 과정과 표현 과정을 포괄하는 어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전략적 능력에 초점을 두어 ‘어휘 바꿔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탈맥락적으로 어휘를 제시하고 이를 바꾸는 활동은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대체하거나 유의어로 바꾼다는 점에서 아주 단순한 전략이다. 이때는 실제 사용 맥락에서 어휘의 의미를 세밀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인지 과정이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장 및 문단에서의 어휘 바꿔쓰기’를 다루고자 하며, 구체적인 어휘 사용 맥락 안에서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꾸는 과정에서 어휘 표현의 정확성 및 적절성, 표현 의도 및 효과까지 고려하는 적극적인 어휘 바꿔쓰기 활동을 추구하고자 한다.

3.2.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어휘 바꿔쓰기 교육

바꿔쓰기(paraphrasing)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수 방법으로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바꿔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의식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어휘 바꿔쓰기는 자연스럽게 어휘 능력을 신장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Milićević, J.(2008)에서는 어휘 능력이 담론을 재구성하기 위해 어휘 관계를 활용하는 능력인 바꿔쓰기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해 바꿔쓰기를 목적으로 한 교육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해 실제로 바꿔쓰기(paraphrasing) 활동을 다룬 연구들을 찾을 수 있다. 먼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같은 외국어 교육에서 ‘paraphrasing’을 어휘 지식을 강화하고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룬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Chen, M. H.(2019)는 어휘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 전략으로 말뭉치 기반 패러프레이징 시스템을 활용한 구절 패러프레이징 학습을 다루었다. 영어를 대상으로 하는 구절 패러프레이징 학습을 국어 교육에 적용한다면 관용구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McLeod, A. K.(2020)는 중급 수준 학습자들을 위한 패러프레이징 게임을 제안하는데, 그 수준을 단어, 문장, 문단 순으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도록 구성했다. 3인 1조로 두 명의 참가자와 1명의 평가자가 있으며, 한 사람이 읽거나 말해주는 단어, 문장, 문단을 다른 사람이 제한 시간 내에 바꿔쓰고(paraphrase), 이를 평가자가 원문의 의미와 얼마나 유사한지, 그대로 옮겨 적거나 반복하지 않고 적절하게 바꿔 썼는지 등을 평가한다. 이러한 활동을 역할을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하고, 활동이 끝난 후에는 새로 배운 어휘 항목에 대한 퀴즈나 설명을 통해 전체 학습을 통합할 수 있다. Polat, Y., Bajak, S., & Zhumaeva, A.(2021)에서는 구문 측면에서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장을 단순한 문장으로 최소화하고, 변형 규칙을 통해 복잡하고 추상적인 단어를

단순하고 구체적인 단어로 전환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때 유의어, 반의어, 대체 단어, 상호 단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들은 바꿔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영어 단어, 구절, 용법에 대한 지식 차이를 인식하고, 모방을 넘어서 언어 사용자로서 자율성을 가지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바꿔쓰기 활동은 어휘 교육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활동 및 게임 방법을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활동 구성에 참고할 수 있다.

외국의 모어 교육에서는 주로 읽기 교육을 위해 'paraphrasing'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텍스트를 재작성하거나 바꾸어 쓰는 활동을 통해 어휘를 함양하고, 의미를 위한 텍스트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Hagaman, J. L., Casey, K. J., & Reid, R, 2016). 또한 바꿔쓰기를 어휘 교육에 활용한 논의도 있는데 Jun, J.(2021)은 숙어 사전의 정의를 활용해 중국어 관용구를 패러프레이징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때 패러프레이징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전을 활용해 유의어를 바탕으로 어휘 말뭉치를 구축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번역된 동일한 텍스트에서 유사한 맥락에 나타나는 패러프레이즈 말뭉치를 추출하거나, 같은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들을 활용해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 구, 문장을 통해 패러프레이즈 쌍을 찾고, 동일한 의미를 번역한 형태를 찾아서 전이 관계를 바탕으로 관련되는 어휘를 찾는 방법 등이 있다. 이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어휘 바꿔쓰기 전략 유형 및 활용되는 어휘 지식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국어 모어 교육의 어휘 교육 측면에서 바꿔쓰기 교육 방법을 다룬 논의도 있는데, 박종미(2014)에서는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8]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

8) 지식의 유형은 '수용적(receptive)'과 '생산적(productive)'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듣거나 읽음으로써 언어 입력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후자는 말하거나 씀으로써 언어 형식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어휘에 적용하면, 수용적 어휘는 단어의 형태를 인식하고 그 의미를 재생하는 것을, 생산적 어휘는 단어의 적절한 형식을 회상해서 의미를 표현하고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Nation, 2018; 64). 여기서 수용적 어휘는 '이해 어휘'로, 생산적 어휘는 '표현 어휘'로 사용될 수

으로 유의어 바꿔쓰기를 제안하고 있다. 중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습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양적으로 많아졌으며 비교적 저빈도 어휘들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유의어 바꿔쓰기 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관련 유의어들을 인출하고 사용해 보는 경험을 제공해주며, 이를 통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휘망의 결속력을 높여 표현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모어 교육에서 어휘 바꿔쓰기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의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박종미(2014)의 유의어 바꿔쓰기 방법에서 더 나아가 본고는 유의어뿐 아니라 다양한 어휘 의미 관계, 어휘 종류, 관용 표현 등 넓은 범위의 어휘 연결망 지식을 다루고자 하며, 학습자들이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어휘 지식을 다루는 사고 능력으로서 ‘전략적 능력’을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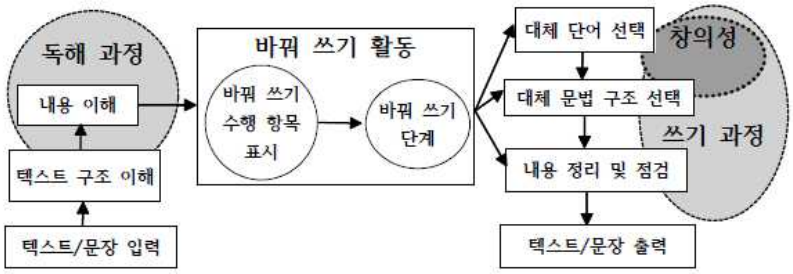
이처럼 외국어 교육 및 국어, 한국어 교육에서 바꿔쓰기 교수 방법은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해 자주 활용되며, 그 교육 효과도 증명되고 있다. 어휘에 주목해서 이를 자신의 언어로 재생산하는 바꿔쓰기를 통해 학습자들은 문맥에 적절한 어휘 표현의 사용에 초점을 둘 수 있으며 다양한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직접 쓰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즉 ‘어휘 바꿔쓰기’는 원문의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맥락에 적절한 표현 어휘를 선택하는 활동으로, 어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휘 바꿔쓰기에 주목해 전략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3.3. 어휘 바꿔쓰기의 과정

상술했듯이 바꿔쓰기(paraphrase)는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표현 방식의 선택을 함께 요구하는 인지적 활동이다. 문법적 측면에서 바꿔쓰

있다.

기를 다룬 팜티튀린(2012)에 따르면 바꿔쓰기의 과정은 다음 【그림 Ⅱ-7】과 같이 읽기와 쓰기뿐 아니라 단어, 문법 차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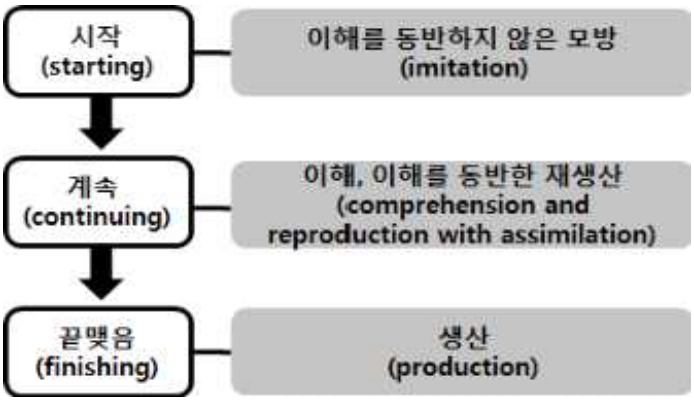
【그림 Ⅱ-7】 바꿔 쓰기의 과정(팜티튀린, 2012: 32)

즉 텍스트를 이해하는 '독해 과정'과 대체 단어 및 문법 구조를 선택하는 '쓰기 과정' 사이에 '바꿔쓰기 활동'이 개입되는 것이다. 이는 언어 습득의 각 기능이 연결되는 것으로, 결국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휘 바꿔쓰기'는 자연스럽게 원문의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어휘의 선택을 요구하면서 필연적으로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통합되게 된다.

박종미(2014)에서는 유의어 바꿔쓰기를 다루면서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전환되는 과정[9]이 다음 【그림 Ⅱ-8】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단순 모방의 수준에서 어휘를 사용해 보는 '시작(starting)', 해당 단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사용하는 '계속(continuing)', 그 후

9)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는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구별되어 양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연속체상에 존재한다(Henriksen, 1999 참고). 이러한 연속체 접근에 따르면, 이해 어휘가 생성되고 표현 어휘로 전환되는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강보선, 2013). 대체로 이해 어휘의 규모가 표현 어휘보다 크며 학년이 올라가고 학습이 진행될수록 그 간격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 전환 과정을 돕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재생산의 경험을 반복해서 표현 어휘로 정착하는 ‘끝맺음(finishing)’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박종미, 201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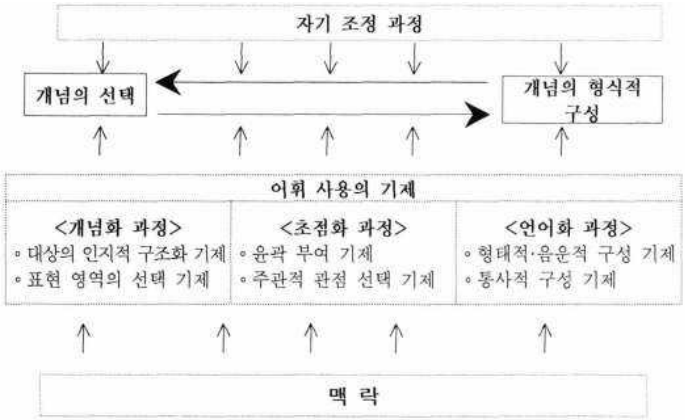
【그림 Ⅱ-8】 표현 어휘의 생성 과정(Melka, 1997; 박종미, 2014; 6 재인용)

학습자들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며, 특히 대부분의 모어 화자들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떠올리기 위해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표현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어휘를 떠올리고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자에게는 어휘를 재생산하는 경험, 즉 어휘 사용 경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휘 사용 과정 및 경험을 다룬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휘 사용 과정은 어휘의 이해를 전제로 하며, 머릿속 사전에 등재된 단어들에서 다양한 맥락 요소를 고려해 특정한 의미 덩어리를 선택하고 이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신명선, 2009; 10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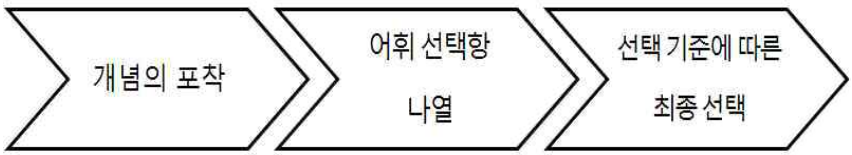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신명선(2009)에서는 아래 【그림 Ⅱ-9】과 같이 어휘 사용 기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험이나 생각 등을 구조화하거나 구체화하는 ‘개념화 과정’, 표현 내용을 자신의 시각에서 재정립하는 ‘초점화 과정’,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형태를 선택하는 ‘언어화 과

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어휘 사용 과정의 구체적인 인지 과정과 그 과정에 개입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림 Ⅱ-9】 어휘 사용 기제(신명선, 200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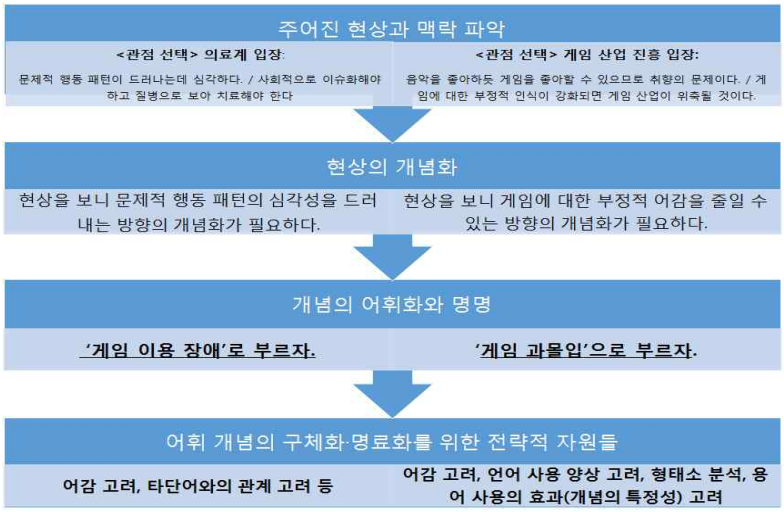
강가혜(2017)에서는 언어 산출에서의 어휘 선택 과정을 아래 【그림 Ⅱ-10】과 같이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의 포착-어휘 선택항 나열-선택 기준에 따라 최종 선택’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는 언어 사용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어휘를 선택하는 과정에 주목해 그 인지 과정과 이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림 Ⅱ-10】 어휘 선택 과정(강가혜, 2017: 106)

전략적 능력으로 관점 선택을 다룬 신명선(2020)에서는 토론 과정에 나타난 현상의 개념화 및 어휘 선택 과정을 ‘주어진 현상과 맥락 파악-현상의 개념화-개념의 어휘화-선택 어휘의 적절성 파악-실패 시 이전 단계로의 회

귀 및 반복’을 거친다고 보았다. 아래 【그림 Ⅱ-11】은 토론 담화에서 ‘게임 사용’에 대해 논의할 때 현상을 개념화하고 어휘를 선택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전략적 능력이 어휘를 인지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예시 상황에서의 사고 과정을 부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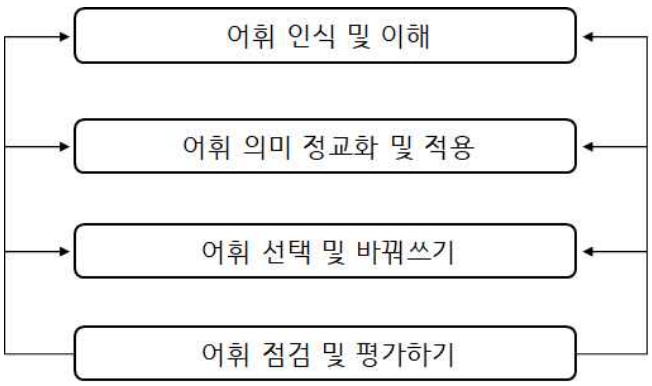


【그림 Ⅱ-11】 ‘게임 중독’ 사례의 경우에 현상의 개념화와 어휘 선택 과정(신명선, 2020: 194)

위에서 다룬 논의들을 비교하면 신명선(2009)은 개념을 구체화하는 개념화 과정과 초점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면, 강가혜(2017)는 개념을 포착한 후에 어휘를 선택하는 과정인 선택항 나열과 선택 기준에 따른 최종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신명선(2020)에서는 이를 종합하면서 현상을 해석해서 개념화하고 다시 명명하는 과정[10]에 초점을 맞추고, 이때 다루는 전략적 자원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모어 화자의 어휘 사용 및 산출 과정을 종합해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10) 인지언어학에서 ‘해석’은 장면을 개념화해서 표현하는 개념 화자의 선택을 가리킨다. 따라서 특정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을 사태에 대해 해석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으로 본다(신명선, 2020).

즉 전체적인 어휘 바꿔쓰기 과정은 학습자가 원문에서 어휘를 인식하고 문맥에서의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바꿔쓸 수 있는 어휘를 떠올려 어휘망 및 선택항을 구성하고, 맥락과 주변 단어와의 의미 호응을 고려해 문장에 적절한 활용형 및 문법 구조를 고려해 바꿔쓰는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에는 스스로 바꿔 쓴 어휘를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어휘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적절한 어휘의 선택에 있어 학습자의 인지적인 노력 및 태도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어휘를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어휘를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함이다. 즉,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과정은 '어휘 인식 및 이해-어휘 의미 정교화 및 적용-어휘 선택 및 바꿔쓰기-어휘 점검 및 평가하기'의 순서로 나타나며 자기 점검을 바탕으로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는 순환적인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모든 가정에서 전략적 자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모어 화자의 경우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휘 교육 차원에서 개념을 더 구체화하고 초점화는 과정인 '어휘 의미 정교화 및 적용'과 맥락을 재개념화하면서 새로운 언어 표현을 선택하는 '어휘 선택 및 바꿔쓰기' 과정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과 전략 활용 양상은 이 두 단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Ⅱ-12】 어휘 바꿔쓰기의 과정

3.4. 어휘 바꿔쓰기 과정의 영향 요인

본고는 어휘 능력의 하위에 ‘전략적 능력’을 다루는 차경미(2020)의 논의를 따르고, 그 전략적 능력으로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전략적 능력으로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은 어휘 지식, 어휘 사용 태도, 어휘 사용 맥락과 분리되어 다루어질 수 없으며,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휘 바꿔쓰기 전략은 어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는 어휘 및 어휘 능력에 대한 태도가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어휘 능력에 어휘가 사용되거나 사용되어야 하는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어휘의 사용을 맥락을 떠나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어휘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할 때는 어휘 사용 맥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차경미, 2020: 34).

어휘를 실제 맥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어휘의 형태, 의미, 통사, 화용적 지식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어휘 간 관계를 인식하면서 이러한 개념적 지식을 적절히 운용하는 절차적 지식이 필요하다(손영애, 2000). 이에 Nation(2018)은 어휘 지식에 관해 정보를 이해하는 차원(R: 수용적 지식)과 표현하는 차원(P: 생산적 지식)으로 세분화해서 형식, 의미, 사용 측면에서 아래 <표 Ⅱ-9>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Ⅱ-9> 단어에 관한 지식(Nation, 2018: 67)

형식	**구어**	R	단어가 어떻게 들리는가?
		P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가?
	문어	R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P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
	단어 구성소	R	단어에서 어떤 구성소를 인식할 수 있는가?
		P	의미를 표현하는 데 단어의 어떤 구성소가 필요한가?
의미	**형태와 의미**	R	이 단어의 형태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P	이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어떤 단어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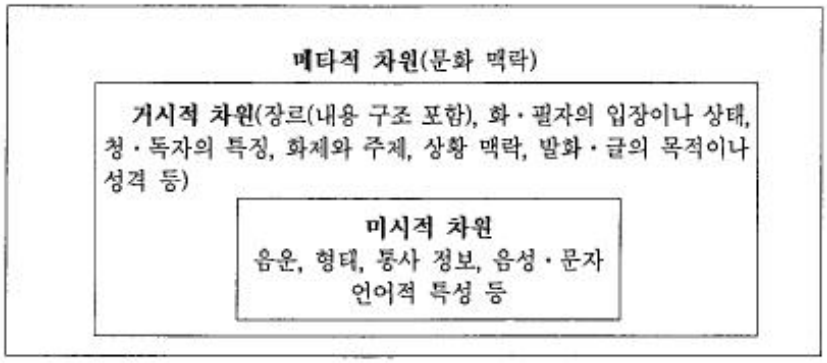
	개념과 지시대상	R	이 개념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P	이 개념이 어떤 항목을 지시할 수 있는가?
	연상 관계	R	이 단어가 어떤 단어들을 연상시키는가?
		P	이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	**문법적 기능**	R	이 단어는 어떤 패턴으로 출현하는가?
		P	이 단어를 어떤 패턴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연어 관계	R	이 단어가 어떤 단어, 어떤 단어 유형과 함께 출현하는가?
		P	이 단어를 어떤 단어, 어떤 단어 유형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가?
	사용 제약 (사용역, 빈도 등)	R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P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를 종합하면 어휘 바꿔쓰기 전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휘 지식’은 개별 어휘에 대한 형태, 의미,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 지식과 여러 어휘 간의 연결망 지식, 절차적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어휘 의미를 정교화하고 어휘를 선택할 때 학습자의 노력 없이는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자동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태도와 자신이 가진 다양한 어휘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강보선, 2013). 또한 단어 그 자체에 대한 흥미를 가지는 등 어휘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태도도 필요하다(이기연, 2012).

마지막으로 ‘어휘 사용 맥락’은 어휘 능력의 전제가 되며,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맥락의 개념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펴낸 『국어교육학사전』에서는 맥락을 발화를 둘러싼 상황 요소 그 자체가 아니라 발화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맥락이 해석 과정에서 선택된다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231), 맥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 주체에 의해 구성된 심리적 구조로 볼 수 있다(신명선, 2013: 81). 맥락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접한 언어 요소들로 된 ‘언어적 맥락’, 화자, 청자를 포함한 시간, 공간 등의 물리적 상황인

‘상황적 맥락’, 그 밖에 언어 표현이 속한 세계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이 있다. 관련해서 문법 교육 및 어휘 교육에서 맥락에 대해 다룬 신명선(2009, 2013), 오현아(2011)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먼저 오현아(2011)는 문법 교육에서 맥락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이해 중심에서 표현 중심으로, 언어적 맥락과 상황 맥락 중심에서 사회문화적 맥락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관련 교육 내용으로 언어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적절한 언어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고려하는 언어적 맥락, 청자 혹은 독자를 고려해 상황에 적절한 발화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고려하는 상황적 맥락,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언어 관습을 파악해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고려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제시한다. 어휘 교육에서 맥락을 다룬 신명선(2009)에서는 어휘 표현의 과정에서 고려하게 되는 맥락 요인을 아래 【그림 Ⅱ-13】처럼 미시적 차원, 거시적 차원, 메타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Ⅱ-13】 표현의 과정에서 고려하게 되는 맥락 요소들(신명선, 2009: 105)

미시적 차원은 '언어' 그 자체인 언어적 맥락에, 거시적 차원은 '상황 맥락'에, 메타적 차원은 '문화 맥락'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실제 표현의 상황에서 이러한 각 맥락 요소들은 순환적이고 유동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표현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즉 어휘 사용 과정에서 개념을 구체화하고 초점을 명료하게 하고 적절한 어휘 형태를 선택하는 모든 과정에서 맥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맥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언어 주체가 어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휘의 적절성을 고려하는 어휘 사용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이 구성하는 맥락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이 어휘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맥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때 맥락 요인은 언어적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어휘 개념의 정확성 및 적절성, 어휘의 의미 가치 탐구, 표현의 의도 및 효과 파악, 독자 및 글의 주제 및 성격(장르와 관련) 고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구문 바꿔쓰기 활동을 다룬 Chen, M. H.(2019)에서 아래 <표 Ⅱ-10>과 같이 바꿔쓰기 학습을 통해 Schmitt(1997)의 어휘 의미 강화 전략과 Nation(2001)의 어휘 지식 틀을 통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10> 바꿔쓰기(paraphrasing) 학습을 통한 어휘 의미 강화 전략과 어휘 지식 틀의 통합(Chen, M. H., 2019: 45)

Schmitt(1997)의 의미 강화 전략		Nation(2001)의 어휘 지식 틀
(a) 단어의 철자 공부하기 (Study the spelling of a word) (b) 형태를 이미지화하기 (Image word form)	**형태**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 단어에서 어떤 구성소를 인식할 수 있는가?
(c) 단어의 유의어에 연결시키기 (Connect the word to its synonyms) (d) 단어의 의미 바꿔쓰기 (Paraphrase the word's meaning)	**의미**	이 단어가 어떤 단어들을 연상시키는가? 이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단어는 어떤 패턴으로 출현하는가?
(e) 대등어끼리 관련시키기 (Associate the word with its coordinates) (d) 단어를 주제별로 묶기 (Group words together to study them)	**사용**	이 단어를 어떤 패턴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이 단어가 어떤 단어, 어떤 단어 유형과 함께 출현하는가? 이 단어를 어떤 단어, 어떤 단어 유형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가?

이처럼 어휘 지식, 태도, 맥락을 모두 고려하면서 이를 통합하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다루는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 스스로 어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 있다(O'Malley & Chamot, 1990; Oxford & Scarcella, 1994).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 및 활동은 학습자들이 의식적으로 어휘를 바꾸는 과정에서 어휘 지식을 바탕으로 섬세한 사고 과정을 거쳐 맥락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도록 유도해 어휘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어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늘리려는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될 수 있다.

한편 어휘의 선택 및 사용 전략과 관련하여 언어 수행의 질과 관련한 종합적인 언어 능력으로서 유창성(Fluency)에 대한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지표로 주로 언어의 복잡성(Complexity), 정확성(Accuracy), 유창성(Fluency)이 다루어지며(원미진, 2019; 227), 여기서 '유창성'은 외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서도 교육 내용이자 목표로 중요하게 언급된다. 외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서 유창성은 흔히 말하기나 쓰기에서 막힘없는 언어 사용으로, 머뭇거림이나 발화 속도 같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창성을 능력의 개념으로 다루면서,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언어 사용, 언어 사용의 정확성, 자연스러움, 창조적 언어 사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이경, 2015ㄴ; 63). 즉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언어 사용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휘 지식, 전략적 능력, 태도, 어휘 사용 맥락이 통합되어 발현되는 어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지식 측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사용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휘 유창성'은 단순한 어휘 지식 차원을 넘어서 실제 어휘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능력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외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휘 유창성의 요인은 상황 맥락의 적절성이며, 다양성이나 어휘 수준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이경, 2015ㄱ). 이를 바탕으로 어휘 유창성의 요인으로 어휘의 다양성 및 어휘 수준,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어휘 사용의 정확성과 적절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어휘 다양성은 학습자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는지로, 이는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휘의 양이 많고 그만큼 계속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휘의 표현에 있어 정확성과 적절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인 반면, 다양성은 비교적 선택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비해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동

일어 반복 사용을 꺼리는 영작문[11]에 비해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텍스트 내에서 동일어 반복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라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사한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평소 사용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표현 어휘를 사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강보선, 2013; 109). 본고에서 제시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 활동은 어휘를 바꿔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표현 능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바꿔쓰기는 고쳐쓰기[12]와는 또 다르게 어휘를 재해석 및 재구성하는 과정이므로,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질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면서 어휘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13].

미시적 차원의 어휘 유창성은 개별 어휘와 어휘 관계에 주목한 것으로, 어휘 사용의 정확성 측면과 가장 연관된다. 이는 적절한 형태와 문법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어휘 관계에서의 결합 관계 및 계열 관계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적 차원의 어휘 유창성은 개별 어휘를 넘어 의사소통 단위에서 파악되는 어휘 사용의 적절성과 가장 관련된다. 이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의사소통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지, 의사소통 상황 및 독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화용적 능력을 토

---

11) 대부분의 영작문 평가 기준에는 어휘의 다양성과 어휘의 정교성이 필수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12) 고쳐쓰기 등에서 문맥에 어울리는 적절한 어휘 사용이 측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문맥적 의미 파악 능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3) [인터뷰]

연구자: 마지막 소감으로 이 활동에 대해서 느낀 점을 좀 자유롭게 말해 줄 수 있을까요?

S-H-3-A2 : 이 활동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다한 단어만 쓰고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뭐가 있지 이렇게 좀 고착화돼 있는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어휘 능력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걸 일부러 바꾸려고.. 의식을 하고 바꾸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다음 번에 글을 쓸 때도 좀 더.. 더 쉽게 잘.. 다른 단어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죠.

대로 한다. 이러한 어휘 유창성 요인을 바탕으로 실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 활동은 어휘를 질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4.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유형 및 범주

4.1.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유형

바꿔쓰기의 과정은 원문에 담긴 의미적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내용적 측면과 유의어 활용 및 문법적인 변화를 통해 원문을 변형시키는 언어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Bhagat & Hovy, 2013; Shi, Fazel, & Kowkabi, 2018). 내용적 측면이 내적 차원이라면 언어적 측면은 외적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효과적인 바꿔쓰기를 위해서는 이러한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이 함께 학습되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노숙원, 2019).

먼저 언어적 측면에서 바꿔쓰기의 유형과 관련해서 한국어 교육에서 바꿔쓰기를 다룬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다. 김지혜(2009)는 바꿔쓰기의 유형을 단어, 문장, 문단 단위로 구분했으며, 정혜연(2014)는 표층적, 심층적 변화에 따라 바꿔쓰기 유형을 구분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민경아・곽도형(2021)은 언어 기호의 바꿔쓰기를 단어, 문장, 문단에서의 대체, 축소, 확장, 분리, 연결, 재배치 유형으로 구분했다.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바꿔쓰기를 다룬 팜티튀린(2012)에서도 바꿔쓰기는 원문 텍스트 내에서 통사・의미 분석 단계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통사 차원의 단어, 통사 구조, 문형의 수준에서 축소, 변형, 확장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논의에서 단어 수준에서의 바꿔쓰기 유형만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11>, <표 Ⅱ-12>와 같다.

<표 Ⅱ-11> 단어 단위의 바꿔쓰기 유형(민경아, 곽도형, 2021)

단위	유형	방법
단어	**대체**	동의어 및 유의어 사용
	축소	중요하지 않은 단어 삭제
	확장	접속사, 부사 등의 단어를 추가하거나 단어를 쉬운 표현으로 풀어씀

<표 Ⅱ-12> 단어 수준의 바꿔쓰기 범주(팜티튀린, 2012)

바꿔쓰기 유형	항목	형태	구체적인 양상
확장	단어 수준	단어 보충	-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유형 -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맥락과 적절한 단어를 더 보충하여 표현하는 유형
변형	단어 수준	단어 변형	- 원문 텍스트에서 제시한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대체하는 유형 - 원문 텍스트에서 제시한 단어를 맥락과 적절하게 다른 형태로 바꾸는 유형

이를 종합하면 바꿔쓰기는 언어적 측면에서 통사 차원에서는 단어, 문장, 문단 수준으로, 의미 차원에서는 확장/보충, 변형/대체, 축소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지혜, 2009; 팜티튀린, 2012; 정혜연, 2014, 2016; 민경아·곽도형, 2021). 중요하지 않는 단어를 삭제하는 '축소'도 바꿔쓰기의 유형이지만, 본고는 모어 화자의 어휘 이해 및 표현을 통합하는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해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확장'과 '대체'의 바꿔쓰기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모어 화자를 위한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 적용하여, '확장' 유형의 구체적인 양상에는 유의어/반의어/상하위어 활용, 고유어/한자어/외래어 활용, 관용어/사자성어[14] 활용이 포함되

14) 관용 표현은 다채로운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휘 자산(김광해 외, 1999: 324)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교육과정에서도 관용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세련된 말하기를 가능하게 하고 듣는 이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국어 문화에 즐

고, ‘대체’ 유형에는 어휘를 구나 절로 풀어쓰기와 맥락에 적절한 어휘 보충하기를 포함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Ⅱ-13>과 같다.

<표 Ⅱ-13> 어휘 바꿔쓰기의 언어적 유형 양상

바꿔쓰기 유형	구체적인 양상
변형/대체	(1) 유의어/반의어/상하위어 활용하기 (2) 고유어/한자어/외래어 활용하기 (3) 관용구/사자성어 활용하기
확장/보충	(1) 어휘를 구나 절로 풀어쓰기 (2) 맥락에 적절한 어휘 보충하기

다음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바꿔쓰기는 원문에 담긴 내용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의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변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에 나타난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거나 원문에 나타난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밝히거나 새로운 맥락에서 재개념화하는 것이다(D’ Angelo, 1979; Shi, 2012; Shi, Fazel, & Kowkabi, 2018)[15]. 즉, 내용적 측면에서 바꿔쓰기는 기존의 자료를 이해하고 재해석해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변형하는 쓰기 기술로, 일종의 원문을 활용한 작문이자 읽기와 쓰기를 연결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의 질적 분석을 위해 작문의 표현 영역 평가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국내와 미국의 작문 평가 관련 문헌들을 검토한 박소희, 김주환, 천해주, 김영서(2020)에서는 양국에서 작문 목적에 따라 설명하는 글쓰기와 설득하는 글쓰기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의 특징을 바탕으로 모든 글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요소

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강보선, 2013).

15) 이때 바꿔쓰기의 분석은 내용적 측면에서 정보의 생략과 추가, 일반화, 구체화 등의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다(Shi, Fazel, & Kowkabi, 2018).

를 찾고자 한다. 작문이라는 점에서 내용, 조직, 표현, 표기의 4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평가 준거를 다루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어휘 바꿔쓰기와 관련된 평가 구성 요소에 주목하므로 표현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표현은 맞춤법에 맞게 쓰는 표기와 다르게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사적 요소나 문장 및 단어 요인들을 의미하는데, 본고에서는 어휘와 관련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Ⅱ-14>와 같다.

<표 Ⅱ-14> 국내와 미국에서 작문의 표현 측면 평가 준거(박소희, 김주환, 천해주, 김영서, 2020; 229-243)

국가	평가 범주	세부 평가 준거
국내	설명하는 글쓰기	- 내용이 기계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고 표현이 유창한가? - 독자 인식에 따른 어조가 일관되게 유지되었는가? - 단어의 선택이 적절한가?
		- 설명의 대상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선택했는가? - 문장의 구조,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표현법을 활용했는가?
		- 5점: 독창적이며 흥미롭게 표현되어 있으며, 독자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다. 필자의 주체적인 목소리도 드러난다. - 5점: 내용을 정확히, 흥미롭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선택되었다.
	설득하는 글쓰기	- 표현이 정확한가? : 이해하기 쉬운 문장 구조를 선택했고, 명확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 어휘의 적절성, 문체의 적절성
		-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에 맞게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풀어서 진술하는가? - 문장의 구조,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표현법을 활용했는가?
미국	공통 (장르 불문)	- 정확하고 적절한 단어의 사용이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필자의 생각이 더 잘 드러나게 한다. - 목소리와 어조가 필자의 목적과 독자 고려와 관련해 효과적이다.
		- 필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기술적 언어를 사용하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시한다. 어조와 목소리를 단조롭게 만드는 일반적인 진술 및 모호한 단어 일부와 함께 생

		동감 넘치는 언어 역시 일부 사용한다.
		- 필자는 독자에게 개별적이고, 설득력 있고, 몰입 가능한 방식으로 직접 이야기한다. 필자는 헌신적이지만 동시에 글의 목적과 독자를 인식하고 존중한다. - 단어가 필자가 의도한 메시지를 정확하고, 흥미롭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전달한다. 단어들은 강력하고 몰입감이 있다.
		- 입장은 명확하고 적절한 관점의 존재를 의미, 글 자체의 관점, 어조, 문체, 글의 목적과 독자, 형식의 수준까지를 포함 - 단어뿐만 아니라 적절한 표현과 구문의 사용에 관한 준거

즉, 국내와 미국에서는 작문의 표현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어휘와 관련한 평가 준거로 어휘 및 문체의 적절성과 독자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의 적절성은 글의 문맥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문체의 적절성은 작문의 목적인 장르에 맞는 어조와 문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독자에 대한 고려는 독자의 관심이나 흥미, 입장 등을 고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평가 준거들은 정교한 어휘 바꿔쓰기를 내용적 측면에서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실제 바꿔쓰기 능력 평가 시 사용되는 구성 요소들도 참고할 수 있다. McCarthy, Guess, McNamara(2009)[16]에서는 바꿔쓰기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구성 요소로 의미적 완전성(semantic completeness), 어휘적 유사성, 구문적 유사성을 제시했다. 퍼듀대학교(The Purdue University) 온라인 작문 학습센터(OWL)에서는 학습자들의 올바른 바꿔 쓰기 능력 평가 내용을 유의어 사용의 적절성과 수정한 문장 구조의 의미 유지 정도로 설정하였다. 한국어 문

16) 컴퓨터 기반의 자동화된 패러프레이징 평가와 사람에 의한 패러프레이징 평가 비교를 통해 바꿔쓰기 평가 시 사용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다양한 통사적, 어휘적 지식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바꿔쓰기의 근본적인 자질이라고 보고 있다(McCarthy, Guess, McNamara, 2009).

법 교육에서의 바꿔쓰기 활동을 다룬 팜튀티린(2012)에서는 의미 동일성과 대체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의 항목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모두 종합하면 효과적이고 정교한 어휘 바꿔쓰기의 요소로 '원문과의 의미적 유사성'과 '바꾼 어휘 표현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원문의 의미를 어떻게 온전하게 표현했는지, 대체 및 확장 표현의 사용이 적절한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Ⅱ-15>와 같다.

<표 Ⅱ-15> 어휘 바꿔쓰기의 내용적 측면 분석 기준

의미적 유사성	바꾼 어휘 표현의 정확성 및 적절성	
	정확성	적절성
의미 차원의 유사성은 원래 어휘와 바꾼 어휘와의 연관성으로, 어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어휘를 사용할 때 적절한 활용형이나 조사를 사용했는지, 연어 관계 및 주변 단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였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어휘의 의미역을 고려해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어휘를 사용하는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 표현 의도, 장르 및 독자 등을 고려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4.2.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범주

학습자가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전략들로 어떤 종류들을 활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본조사에서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어휘 사용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인식 조사에서 '생각나지 않는 단어가 있을 때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응답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고 및 행동을 보이는 전략적 능력과 관련된다. 학습자의 응답들을 어휘 전략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Schmitt(1997)의 어휘 학습 전략 분류와 이를 국어 교육의 어휘 수행 전략으로 재정립한 차경미(2020)의 논의와 관련지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Ⅱ-16>과 같다.

<표 Ⅱ-16>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

Schmitt(1997)의 어휘 학습 전략	학습자의 어휘 사용 전략	차경미(2020)의 어휘 수행 전략
- 접사와 어근 분석하기 - 대등어끼리 관련시키기 - 유의어나 반의어로 연결시키기 - 의미를 풀어서 기억하기	- 최대한 비슷한 의미와 느낌을 가진 단어를 대신 사용한다 - 단어의 뜻을 풀어서 서술한다 - 문장/내용 자체를 바꾼다 - 쉬운 어휘, 아는 어휘를 사용한다 - 비슷한 형태의 단어를 사용한다 - 외국어, 외래어를 활용한다 - 어휘의 한자음을 바탕으로 단어를 추측해서 사용한다 - 앞뒤의 단어나 맥락을 보고 단어를 추측해서 사용한다	-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단어로 대체한다 -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풀어서 표현한다 - 글에서 지나치게 반복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꾼다 - 단어의 기술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단어의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를 활용하여 의미를 추론하고 표현한다 - 대응되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를 떠올리고 바꾸어 본다 - 단어와 단어의 의미 호응을 고려하여 표현한다 -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 동료에게 의미 물어보기 - 교사에게 단어의 유의어나 쉬운 말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	- 주변 사람(어른, 가족, 친구)에게 물어본다	- 나의 표현이 적절한지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에게 확인한다 -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고 표현을 더 잘 하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한다
- 단일어 사전 이용하기	- 인터넷 사전을 검색한다(단어의 뜻 검색, 유의어/반의어, 예문 기능 활용) -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을 참고한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기술적 의미를 찾아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를 찾아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학습자들은 생각나지 않는 어휘가 있을 때 주로 사전을 활용하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대신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사전 활용 전략과 유의어 고려 전략을 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식 조사에서 학습자들이 언급한 전략들 외에도 어휘 바꿔쓰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하위 전략들이 있다. 이를 학습자의 인식 조사, Schmitt(1997)의 어휘 학습 전략 분류, 차경미(2020)의 어휘 수행 전략 분류 등을 참고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모어 화자는 적극적인 바꿔쓰기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언어 수행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 이는 '상위 인지 전략'과 관련되며, 학습자가 스스로의 어휘 사용 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다. 또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 및 장르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맥락 이용 전략'과 관련된다. 학습자가 어휘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초점을 명료화하고 적절한 어휘 형태를 선택하는 모든 과정에는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어휘 바꿔쓰기 활동을 수행하면서 '상위 인지 전략'과 '맥락 이용 전략'은 상위 전략으로서 항상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신명선, 2009).

<표 Ⅱ-17>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상위 전략

상위 전략	
맥락 이용 전략	- 글의 맥락을 인식하여 단어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상위 인지 전략	-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의 목표를 설정한다. - 자신의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을 점검·평가·조정한다.

학습자가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수행할 때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들은 일종의 전략적 능력으로 하위 전략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인식 조사, Schmitt(1997), 차경미(2020)를 바탕으로,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위 전략으로 '어휘적 전략, 문법적 전략, 풀어쓰기 전략, 참조

전략, 사회 관계 전략’을 다룰 수 있다. 하위 전략들의 구체적인 범주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적 전략’에는 단어의 기술적 의미 고려, 연상적 의미 고려, 어휘의 의미 관계 고려, 어휘의 종류 고려, 관용 표현 고려, 통합 관계 고려 전략이 있다.

‘단어의 기술적 의미 고려’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어휘의 이해와 표현 과정에서 핵심으로 작용하며 문맥에서 어휘가 다루어지는 의미를 파악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략이다. ‘단어의 연상적 의미 고려’는 단어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 가치나 단어가 주는 느낌, 어감을 고려하는 것으로, 어휘의 이해 측면보다는 어휘를 선택하고 바꿔쓰는 표현 과정에 작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단어의 계열 관계 고려’에서 계열 관계는 어휘의 종적인 관계로 문법 범주가 같으면서 서로 대치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단어의 계열 관계는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위) 관계, 부분 관계 등으로 나뉘는데(구본관 외, 2016: 156), 바꿔쓰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어휘 의미 관계인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위) 관계를 활용할 수 있고, 유의 관계에서 어휘의 유형을 고려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및 외국어의 대응이 포함될 수 있으며 관용구나 사자성어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차경미(2020)에서는 계열 관계에 속하는 어휘의 양상들을 모두 묶어서 함께 다루었지만, 본고에서는 어휘 의미 관계인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과 대응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고려하는 전략을 나누어서 제시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전략을 사용할 때 유의 관계 중에서도 유의어들 사이의 세밀한 의미 차이를 고려하는 것[17]과 어종에 따른 표현 효과를 고려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차경미(2020)에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계열 관계에서 ‘대응되는 관용 표현(사자성어, 관용구)을 활용하는 전략’을 다룰 수 있다. 관용 표현은 문장의 다채로운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휘 자산(김광해 외, 1999:324)으로 중요성이 크며, 이를 적절한 상황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학

17) 어휘 교육적 측면에서 어휘의 의미 관계에 대해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어휘소의 다양한 의미 관계를 토대로 어휘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언어적인 감각과 언어 사용을 정교화할 수 있다.

습자는 효과적으로 표현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어휘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어의 통합 관계 고려’는 성공적인 바꿔쓰기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략으로, 어휘는 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나 문단에서 특정한 맥락에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어휘를 바꿔쓸 때 주변 단어와의 의미 호응 등 해당 단어가 문맥에서 사용될 때의 제약이나 연어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어휘적 전략의 세부적인 범주와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Ⅱ-18>과 같다.

<표 Ⅱ-18> 어휘적 전략의 범주와 사례

하위 범주 지식		어휘 이해	어휘 표현
어휘적 전략	단어의 기술적 의미 고려	-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단어의 기술적 의미를 대응시키면서 단어가 개념을 적확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확인한다.
	단어의 연상적 의미 고려	- 단어의 가치(긍정적, 부정적, 중립적)를 추론한다. - 단어의 어감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 단어의 가치(긍정적, 부정적, 중립적)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 단어의 어감을 고려하여 표현한다.
	단어의 의미 관계 고려	- 유의 관계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 반의 관계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 내가 알고 있는 상하위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해, 내가 생각한/표현한 단어를 유의어로 바꾸어 본다. -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 단어의 반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 상하위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해, 내가 생각하거나 표현한 단어를 상하위어로 바꾸어 본다. - 단어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단어의 종류 고려	- 한자어라면, 대응되는 고유어를 떠올려 본다.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

		- 외래어라면, 대응되는 고유어나 한자어를 떠올려 본다. - 고유어라면, 대응되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떠올려 본다.	여, 내가 생각하거나 표현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로 바꾸어 본다.
	관용 표현 활용		- 대응하는 관용구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 대응하는 사자성어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 관용 표현의 표현 효과를 고려해 표현한다.
	단어의 통합 관계 고려		- 단어와 다른 단어가 맺는 어휘적 연어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 단어와 단어의 의미 호응을 고려하여 표현한다.

다음으로 ‘문법적 전략’에는 단어의 어형 고려, 문형 고려 전략이 있다.

‘단어의 어형 고려’는 단어의 접사나 어근,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의미 추론 및 단어 표현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한자, 접사, 어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비교적 잘 다루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휘의 경우 한자 어휘가 많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포함한다. ‘단어의 문형 고려’는 단어가 문장을 이룰 때 자주 사용되는 문장의 유형을 고려하는 것으로 단어를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문법적 전략의 세부적인 범주와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Ⅱ-19>와 같다.

<표 Ⅱ-19> 문법적 전략의 범주와 사례

하위 범주 지식		어휘 이해	어휘 표현
문법적 전략	**단어의 어형 고려**	-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	-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추론

		론한다. -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한다. - 단어에 쓰인 한자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추론한다.
	단어의 문형 고려		-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문형을 고려하여 표현한다.

다음으로 '풀어쓰기 전략'은 차경미(2020)의 어휘 수행 전략에서는 '대체 표현 고려'로 다루어진 것으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풀어쓰는 소극적인 전략으로만 언급되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바꿔쓰기의 '확장' 유형을 고려해 단어의 뜻이 어려워서 이를 쉽게 풀어서 표현하거나 더 구체적인 의미 표현이나 강조를 위해 적절한 어휘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경우를 다룬다. 이러한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풀어쓰기 전략의 세부적인 범주와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Ⅱ-20>과 같다.

<표 Ⅱ-20> 풀어쓰기 전략의 범주와 사례

하위 범주 지식		어휘 이해	어휘 표현
풀어쓰기 전략	**어휘를 구나 절로 풀어쓰기**	-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풀어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 단어를 의미를 쉽게 풀어서 표현한다.
	맥락에 적절한 어휘 보충해서 풀어쓰기		-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맥락과 적절한 단어를 더 보충해서 표현한다.

다음으로 '참조 전략'은 사전이나 그 밖의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사전에서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의어, 반의어, 예시로 제공된 문장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주제의 다른 장르의 글을 참고해 그 글에 활용된 어휘들을 참고할 수도 있다. '사회 관계 전략'은 학습자가 읽기나 듣기의 상황에서 주변인에게 단어의 의미나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물어보는 전략이다.

이러한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참조 전략과 사회 관계 전략의 세부적인 범주와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Ⅱ-21>과 같다.

<표 Ⅱ-21> 참조 전략과 사회 관계 전략의 범주와 사례

하위 범주 지식	어휘 이해	어휘 표현
참조 전략	- 사전을 통해 단어의 기술적 의미를 찾아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찾아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등을 찾아본다. - 사전을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본다. - 비슷한 주제의 다른 장르의 글을 참고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한다.	- 사전에서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참고로 표현한다. - 사전에서 단어의 연어 관계를 참고로 표현한다. - 말뭉치를 통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참고로 표현한다. - 비슷한 주제의 다른 장르의 글을 참고해 그 글에 활용된 어휘들을 활용해 표현한다.
사회 관계 전략	- 내가 생각한 어휘의 의미가 맞는지 친구, 선생님, 부모님께 확인한다. -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한다.	- 생각나지 않는 어휘를 친구, 선생님, 부모님께 물어보고 표현한다. - 내가 표현한 어휘가 적절한지 친구, 선생님, 부모님께 확인한다. - 단어의 표현을 더 잘 하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한다.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범주를 어휘 이해와 어휘 표현의 차원으로 구분하기는 했지만, 실제 학습자가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는 주로 어휘 표현 차원에서의 전략 사용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어휘 이해 및 표현 전략이 모두 다루어져야 하지만,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 분석에서는 어휘 표현 차원의 전략 사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모두 종합해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상하위 전략과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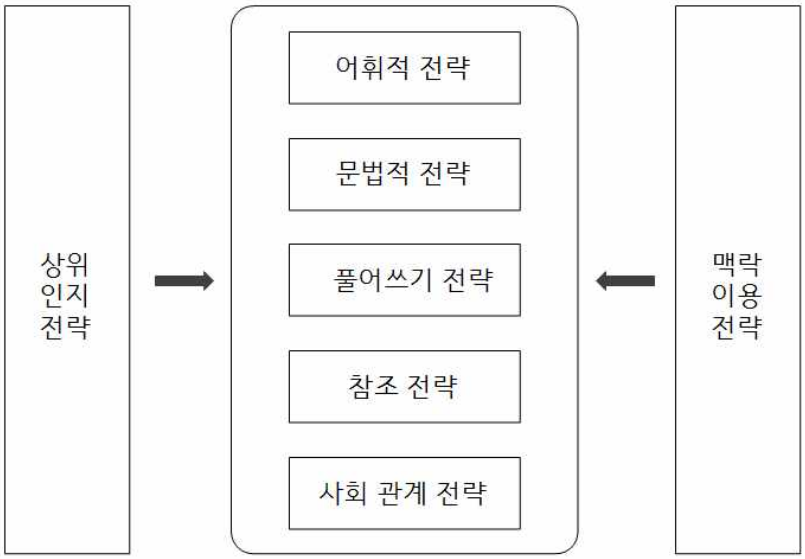
<표 Ⅱ-22>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범주

상위 범주 전략	상위 인지 전략, 맥락 이용 전략	
하위 범주 전략	**어휘적 전략**	- 단어의 사전적 의미 고려 - 단어의 연상적 의미(가치, 어감) 고려 - 단어의 어휘 관계(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위 관계) 고려 - 단어의 종류(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려 - 관용 표현(관용구, 사자성어) 활용 - 단어의 통합 관계(연어 관계, 의미 호응) 고려
	문법적 전략	- 단어의 어형(단어의 한자, 접사, 어근) 고려 - 단어의 문형 고려
	풀어쓰기 전략	- 어휘를 구나 절로 풀어쓰기 - 맥락에 적절한 어휘 보충해서 풀어쓰기
	참조 전략	- 사전 활용 (사전적 의미, 어휘 관계, 예문 참고) -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참고
	사회 관계 전략	- 친구, 부모님, 교사에게 물어보기

본조사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사전을 검색하는 '참조 전략' 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사회 관계 전략' 은 학습자가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전략이자 언제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하위 전략들을 모두 고려하되 본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전략 활용 양상을 살펴볼 때는 외재적인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과제인 만큼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들인 '어휘적 전략, 문법적 전략, 풀어쓰기 전략' 에 더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들은 실제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단일하게 또는 순서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그림 Ⅲ-14】와 같이 학습자가 전략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상위 범주 전략인 상위 인지 전략과 맥락 이용 전략은 모든 어휘 수행 과정에 항상 작용하지만, 하위 범주 전략인 어휘적 전략, 문법적 전략, 풀어쓰기 전략, 참조 전략, 사회 관계 전략은 학습자에 따라, 어휘에 따라, 어휘 수행의 과정에 따라, 어휘가 사용

된 맥락에 따라 각 전략들의 활성화 여부와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림 Ⅲ-14】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상위 범주 전략과 하위 범주 전략 간의 관계]

5. 국어 교육에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의의

5.1.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체계적인 어휘 사용 경험 제공

흔히 외국어 어휘를 공부할 때는 비슷한 말, 반대말, 같은 어원을 가지는 말 등의 기준으로 체계적인 어휘 늘리기 연습을 하는 데 비해 모국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길러진다는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휘는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로만 쓰이지 않고 어휘의 뜻과 용법이 확대되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휘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단어의 사전적 정의와 함께 문맥적 의미, 맥락적 의미, 상황적 의미 등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즉 어휘를 개별적으로 배우기보다는 대화나 문맥을 통해 배우고, 새로운 어휘를 공부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 어휘 능력을 기르는 단계는 ‘새로운 단어와 접하는 단계 → 단어의 형식을 아는 단계 → 단어의 뜻을 아는 단계 → 단어의 형태와 뜻을 기억 속에 확실히 저장하는 단계 → 단어를 사용하는 단계’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진다(Alvi, F., Stevenson, M., & Clough, P, 2021). 새 단어를 접하고 형식과 뜻을 이해하고 암기한 뒤에는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제대로 써봐야 어휘 능력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 어휘 바꿔쓰기 학습 및 경험이 어휘 사용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한 베껴 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바꿔쓰기는 의식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단어들의 유의어를 찾아 바꿔쓰는 형식에서 출발해 더 적절한 단어를 찾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어휘 학습에서 문장에 알맞은 단어를 찾거나 고르고 바꿔쓰기 좋은 단어나 좋지 않은 단어 등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문장에서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 학습할 수 있으며, 평소에 안 쓰는 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휘의 양을 늘리고 이해력도 높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어휘를 다루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장에 사용된 어휘뿐 아니라 관련된 유의어/반의어/상하위어, 고유어/한자어/외래어, 관용구 및 사자성어 등의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다. 즉 바꿔쓰기 전략 및 활동은 구체적인 어휘 사용 맥락에서 학습자들이 의식적으로 어휘 지식을 활용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어휘 사용 기회’를 제공해, 기계적인 모방이나 반복이 아니라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휘와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새로운 지식에 대한 확장적 이해가 가능한 경험’(Melka, 1997)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

5.2.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 제공

어휘 교육의 목표가 실질적인 어휘 능력의 신장이라면, 그 주체는 학습자가 된다. 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은 ‘언어적 주체’로 개념화될 수 있는데, 이는 ‘언어에 관한 기본 지식과 언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분석하고 탐구하여 언어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주체적·능

동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인간’ 으로 정의된다(신명선, 2007: 450). 일반적으로 언어 학습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Oxford, 1990: 10). 따라서 언어적 주체가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서 학습자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전략’ 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하나의 도구로서 작용하며, 어휘 전략 사용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갖게 되고 이러한 태도가 내면화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이유림, 2016).

또한 어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어휘 능력을 수시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이는 어휘 사용 과정에 항상 작용하는 상위 인지 전략과 관련된다. 기존의 어휘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 평가 도구가 없기 때문에 어휘 능력에 대한 평가가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학습자가 평소 어휘 사용에 인지적인 노력을 들이려고 하지 않으며, 의미가 통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괜찮다는 인식을 가진다. 이때 어휘 바꿔쓰기 전략 활동은 학습자가 맥락에서 원문의 어휘와 관련된 유의어/반의어/상하위어, 고유어/한자어/외래어, 관용구 및 사자성어 등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휘를 맥락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때 다양한 맥락 요인을 고려해 적절한 어휘를 스스로 점검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한편 다른 친구들이 바꿔 쓴 어휘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다양한 어휘 사용 양상을 학습할 수 있고 자신의 어휘 사용도 반성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어휘를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5.3. 다양한 어휘 사용 및 맥락 재구성 경험 제공

어휘 사용 및 표현 측면에서 정확성과 적절성뿐 아니라 다양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맥락에서의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은 중

요하게 여기지만, 상대적으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18]. 하지만 비슷한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다양한 표현 어휘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강보선, 2013). 이때 어휘 바꿔쓰기 전략 및 활동은 언어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학습자가 원문의 의미는 유지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휘를 고려하게 하며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어휘적 지식으로 학습하고 있는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의 어휘 의미 관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어휘 종류, 관용표현 등을 각각 구분된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문맥에서 적용해보고 그 표현 효과를 인식하는 경험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학습자는 언어를 사용할 때 같은 어휘를 반복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어휘를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때 주도적으로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바꿔쓰기는 원문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자신의 관점과 언어로 바꾸는 과정으로, 맥락을 재구성하고 재개념화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때 맥락에 적절하게 어휘를 바꿔쓰는 것은 맥락, 문법적인 정확성, 화용적 적절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법, 통사적 지식까지 모두 고려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바꿔쓰기 자체에서 어휘 단위의 바꿔쓰기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모어 화자에게 원문 텍스트의 인용 및 표절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어휘 바꿔쓰기를 통한 맥락 재구성 경험은 학문 윤리 의식과 관련해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이인영, 2015).

---

18) 인식 조사에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답변을 살펴보면, '보통이다'나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중학교 학습자의 비율은 27%, 고등학교 학습자의 비율은 48%나 된다.

III.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 분석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학습자가 어휘 바꿔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어떤 요인을 고려해 어휘를 바꾸는지를 분석해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실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앞서 교육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초등학교급에서 다루어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급에서는 어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자는 이미 어휘에 대한 최소한의 의미, 화용, 문법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략에 대한 논의를 중학교와 고등학교급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에 대한 논의가 낯설지 않을 것이라 보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에서는 예비 조사와 인식 조사에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 활용한다고 응답한 방법들, 어휘 바꿔쓰기 수행의 하위 전략들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실제 어휘 바꿔쓰기 수행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사고 활동을 연구하고, 학습자의 전략 사용 유형을 체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바꿔쓰기 문장 및 문단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을 시도하며, 언어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Ⅲ-1> 연구 대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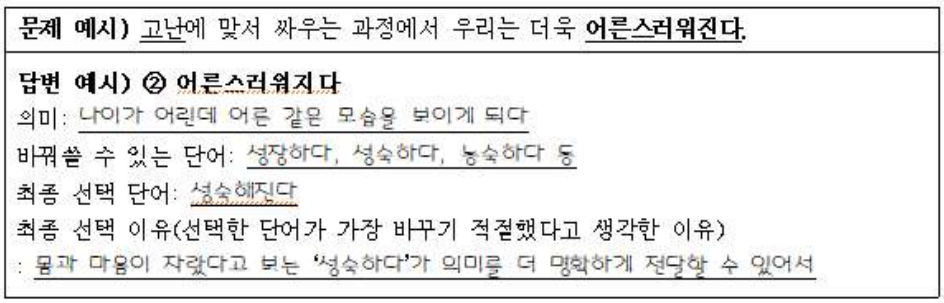
구분	조사 기간	연구 대상
예비 조사	2021. 12.	E 중학교 3학년 학습자 33명
본조사	2022. 7.	S 중학교 2학년 학습자 116명
	2022. 7.	S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52명
	2022. 7.	H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46명
계		247명

2) 연구 절차

본고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자의 어휘 능력 수준을 고려해 김광해(2003)에서 규정한 정규 교육을 시작해서 사춘기를 겪는 학습자들이 배우는 어휘군인 3등급과 4등급 어휘를 활용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에서 다수의 학습자들이 어휘가 '명사'일 경우 이미 개념이 어휘에 집약되어 있어 바꾸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어휘 바꿔쓰기 양상 및 전략 활용 양상을 보기 위해 '용언(동사, 형용사)'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어휘라도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학습자들이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어휘 및 문장 수준의 차이를 두어 과제를 구성했다. 이는 중학교 3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에서의 결과를 고려한 것으로, 다소 어려운 문맥이나 문장을 제공한 경우 다수의 학습자들이 어휘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문장 수준의 차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상대적으로 중학교 학습자에 비해 고등학교 학습자는 비교적 전문적인 비문학 지문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이 많다고 보았다. 그래서 중학교 설문지는 최대한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장이 많은 반면 고등학교 설문지는 뉴스나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문장도 함께 활용했다. 또한 어휘는 탈맥락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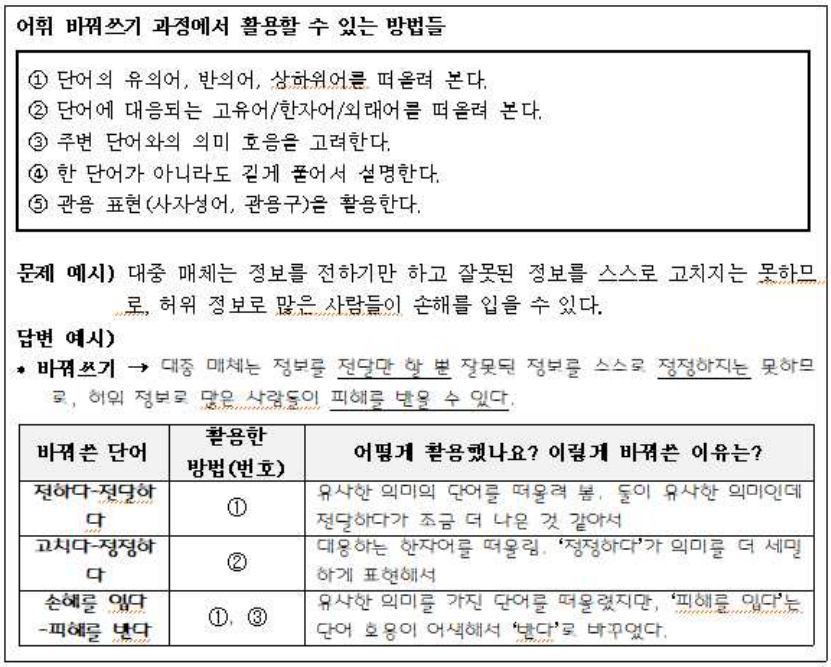
학습하기보다는 문맥을 통해 배우고, 새로운 어휘를 공부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문장과 문단에서의 어휘 바꿔쓰기 과제로 구상했다. 하지만 본조사에서 맥락을 담은 문단으로 구성된 문항도 있지만 대부분 문장으로 구성된 과제가 많은 것이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예비 조사의 결과를 고려한 것으로, 다수의 중학교 3학년 학습자들이 문단으로 구성된 문항 자체에는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최대한 문항을 학습자들이 맥락을 추측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장으로 구성했으며, 문단으로 이루어진 문항도 제시해 학습자들의 어휘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본조사의 1번 문항은 학습자들이 문장에서 밑줄로 주어진 단어를 바꾸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어휘를 바꿔쓰기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연습 활동이다. 과제에서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어휘의 의미, 바꿔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들, 해당 어휘로 바꿔쓴 이유를 서술하게 한 것은 학습자들이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2번 문항에 비해 응답한 비율이 높고 활용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전략을 활용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어휘를 다룬 경우와 직접적으로 전략을 활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림 Ⅲ-1】 본조사 1번 문항 제시 방법 예시

본조사의 2번 문항은 제시된 문장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어휘를 바꿔보는 활동이며, 이때 다양한 어휘 전략, 방법들을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제시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단어의 의미 관계 고려하기, 단어의 종류 고려하기, 어휘를 구나 절로 길게 풀어쓰기, 관용 표현 활용하기’ 가 있다. 이는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어휘 전략들로 학습자들에게 제공한 전략들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맥락 이용 전략’은 필수적으로 모든 어휘 수행을 할 때 화자는 맥락을 고려하게 되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 고려 전략’은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항상 작동되는 핵심적이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략이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상위 인지 전략’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휘 수행 전략 사용을 점검・평가・조정하는 것은 어휘 사용 태도와 연관 지어서 분석할 수 있다. ‘단어의 연상적 의미 고려 전략’ 은 표현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어휘 사용 맥락을 고려하는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학습자들이 제시한 전략들 외에도 인식조사에서 다루었던 전략들을 활용한 경우는 따로 언급하거나 기타 전략으로 다루었다. 한편 ‘주변 단어와의 호응 고려하기’ 는 어휘를 바꿔쓸 때 의미뿐 아니라 통사적 구조까지 고려해서 바꿔쓰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전략으로, 의미적 차원과 문법적 차원에서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전체 문장에서 어휘를 자유롭게 바꾸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전략들을 주로 활용하고, 어떤 기준이나 이유를 바탕으로 어휘를 바꿔쓴 지를 살펴보면서 원문과의 의미적 유사성과 바꾼 표현의 정확성 및 적절성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전략 활용 양상 및 어휘 사용 태도를 분석할 수 있다.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①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를 떠올려 본다.
② 단어에 대응되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를 떠올려 본다.
③ 주변 단어와의 의미 호응을 고려한다.
④ 한 단어가 아니라도 길게 풀어서 설명한다.
⑤ 관용 표현(사자성어, 관용구)을 활용한다.

문제 예시) 대중 매체는 정보를 전하기만 하고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고치지는 못하므로, 허위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답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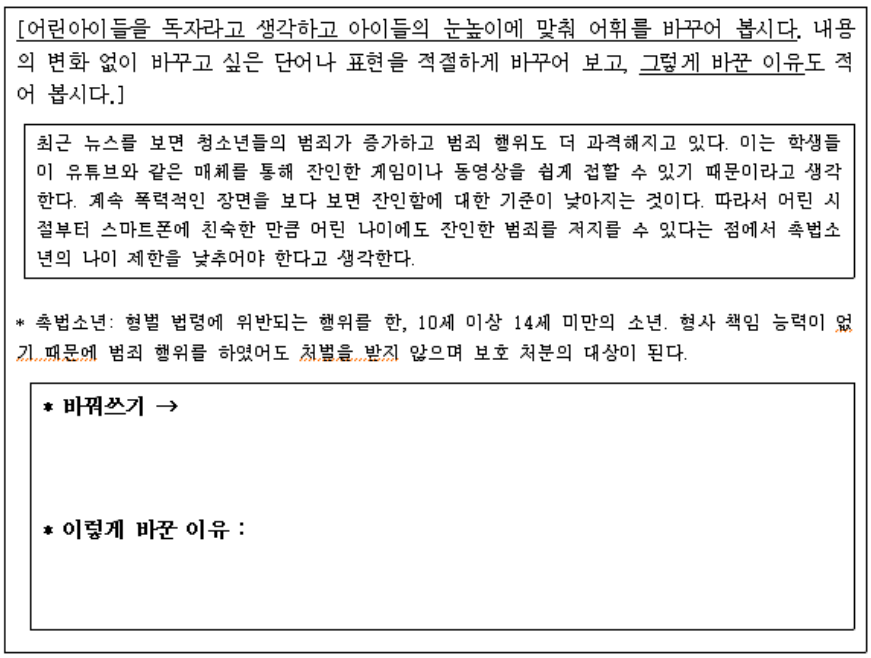
* **바꿔쓰기** → 대중 매체는 정보를 전달만 할 뿐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정정하지는 못하므로, 허위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바꿔쓴 단어	활용한 방법(번호)	어떻게 활용했나요? 이렇게 바꿔쓴 이유는?
전하다-전달하다	①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떠올려 봄. 둘이 유사한 의미인데 전달하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고치다-정정하다	②	대응하는 한자어를 떠올림. '정정하다'가 의미를 더 세밀하게 표현해서
손해를 입다-피해를 보다	①, ③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떠올렸지만, '피해를 입다'는 단어 호응이 어색해서 '보다'로 바꾸었다.

【그림 Ⅲ-2】 본조사 2번 문항 제시 방법 예시

본조사의 3번 문항은 문장 단위가 아니라 한 문단에서의 어휘 바꿔쓰기를 다루었는데, 조금 더 전체적인 맥락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어휘를 바꿔쓰고 전략을 활용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때 같은 내용의 한 문단을 독자가 어린아이와 선생님일 때 어떻게 어휘를 바꾸고, 주장하는 글과 보고하는 글이자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제공한 문단을 서로 장르를 고려할 때 어떻게 어휘를 바꾸는지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독자나 장르를 선택해서 어휘를 바꾸게 하는 것은 한쪽으로 조사 결과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어, 독자가 어린아이와 선생님인 경우와 장르가 주장하는 글과 보고하는 글이자 정보 전달하는 글인 4가지 유형의 과제로 나누어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휘를 선택할 때 독자와 장르를 고려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어휘 수준에서 바꿔쓰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문장, 문단 수준에서 주제 및 장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바꿔쓰기

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어휘 이해 및 표현 능력, 문법적 및 화용적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종합적인 바꿔쓰기 능력 수준을 분석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을 독자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휘를 바꾸어 봅시다. 내용의 변화 없이 바꾸고 싶은 단어나 표현을 적절하게 바꾸어 보고, 그렇게 바꾼 이유도 적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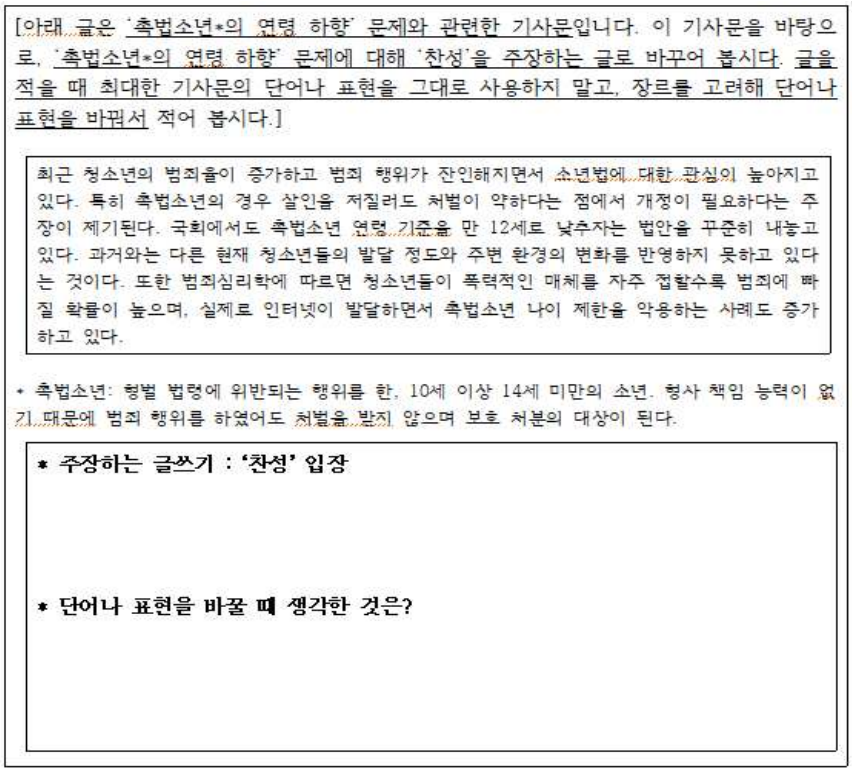
최근 뉴스를 보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행위도 더 과격해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 잔인한 게임이나 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폭력적인 장면을 보다 보면 잔인함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에 친숙한 만큼 어린 나이에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나이 제한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바꿔쓰기 →**

* **이렇게 바꾼 이유 :**

【그림 Ⅲ-3】 본조사 3번 문항 제시 방법 예시 (독자 고려의 경우)


[아래 글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한 기사문입니다. 이 기사문을 바탕으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찬성'을 주장하는 글로 바꾸어 봅시다. 글을 적을 때 최대한 기사문의 단어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장르를 고려해 단어나 표현을 바꿔서 적어 봅시다.]

최근 청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범죄 행위가 잔인해지면서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법안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현재 청소년들의 발달 정도와 주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심리학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매체를 자주 접할수록 범죄에 빠질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촉법소년 나이 제한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주장하는 글쓰기 : '찬성' 입장**

*** 단어나 표현을 바꿀 때 생각한 것은?**

【그림 Ⅲ-4】 본조사 3번 문항 제시 방법 예시 (장르 고려의 경우)

1.2. 자료 분석 기준 및 방법

1) 자료 분석 기준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의 바꿔쓴 어휘와 전략 활용 양상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자료 분석의 기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Ⅱ장에서 검토한 어휘 바꿔쓰기 과정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상술하였듯이 어휘 바꿔쓰기 과정은 '어휘 인식 및 이해-어휘 의미 정교화 및 적용-어휘 선택 및 바꿔쓰기' 단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모어 화자로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어휘 인식 및 이해'에서는 큰 어려움

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어휘 의미 정교화 및 적용’과 ‘어휘 선택 및 바꿔쓰기’ 과정에서 바꾼 어휘의 질적 차원과 활용한 전략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바꿔쓰기는 언어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효과적인 바꿔쓰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내용적 차원에서 바꾼 어휘 표현의 질적 정교성이 확보되어야 바꿔쓰기가 결과론적으로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던 국내외 작문 채점 기준, 바꿔쓰기 능력의 평가 요소, 어휘 평가 준거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 유형을 위계화할 수 있다.

먼저 내용적 차원에서는 학습자들이 바꾼 어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 유형은 앞에서 다룬 ‘원문과의 의미적 유사성’과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바꾼 어휘 표현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분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원문과의 의미적 유사성’은 원래 어휘와 바꾼 어휘와의 연관성으로, 어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전제로 한다. 본 조사 과제를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어휘로 구성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어휘 의미는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 유형 위계화에서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바꾼 어휘 표현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주요 척도로 판단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어휘를 바꿀 때의 표현 의도 및 목적과 활용한 전략들에 따라 어휘 바꿔쓰기 능력 수준은 정확성과 적절성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언어적 차원에서 다룬 대체 유형과 확장 유형의 전략들을 학습자들이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전략적 능력[19]과 관련된다(INJAI, R., 2015).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의 바꾼 어휘 표현의 정확성 및 적절성은 개별 어휘 또는 어휘 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어휘 사용의 정확성’과 ‘의미의 적

19) 전략적 능력은 학습자들이 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기여한다(신명선, 2009).

절성’을 포함할 수 있다. 어휘 사용의 정확성은 ‘형태 차원의 정확성’과 ‘의미 차원의 정확성’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 차원의 정확성은 학습자가 단어를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였는지와 관련되는데, 대부분 학습자는 맞춤법을 맞게 어휘를 사용했다. 만약 어휘의 정확한 표기를 모르는 경우, 아는 어휘나 익숙한 어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형태 차원의 정확성은 분석 기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한편 의미 차원의 정확성은 개별 단어를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과 주변 어휘와의 호응 문제로 어휘나 문장과의 연결과 관련된다. ‘의미의 적절성’은 어휘 사용의 오류 차원을 넘어서 독자에게 어색한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의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어휘의 의미 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하며, 어휘의 의미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거시적 차원에서의 바꾼 어휘 표현의 정확성 및 적절성은 개별 어휘 단위를 넘어서 의사소통 단위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화용적 능력과 관련된다. 어휘 사용 과정에 개입되는 맥락 요인은 언어적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거시적 차원에서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룰 수 있다. 이는 어휘의 의미 가치 탐구, 표현의 의도 및 효과 고려, 상황 맥락 인식, 독자와의 관계 및 어휘 수준 파악, 글의 주제 및 성격(장르와 관련) 고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크게 어휘를 사용하는 맥락과 관련되는 요인을 고려하는 것과 어휘를 바꾸면서 어휘의 뉘앙스나 표현 효과 등을 고려하는 것을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에서는 ‘어휘 의미의 정확성’과 ‘어휘 의미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거시적 차원에서는 ‘맥락의 적절성’과 의미 전달 측면에서 ‘어휘의 어감 및 표현 효과를 고려’하는 것을 기준으로 학습자가 바꾼 어휘의 질적 수준을 분석할 수 있다. 어휘 사용 과정에 개입하는 요인들은 당연히 어휘를 전략적으로 탐색하여 사용하는 전략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도 학습자가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사용한 전략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학습자는 모어 화자로서 어휘를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어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어휘를 전략적으로 탐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어휘 교육적 차원에서는 학습자가 보이는 양상 모두 유의미할 것으로 보고 논의에 포함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휘 전략 교육의 측면에서는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 양상에 더 주목해서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이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 양상은 귀납적으로 크게 언어적 측면, 의미적 측면, 맥락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언어적 측면은 어휘의 음운, 형태, 통사 정보 등 언어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고, 의미적 측면은 의미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휘가 가지는 뉘앙스나 특정 어휘 선택으로 인한 표현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맥락적 측면은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 즉 독자와의 관계 및 수준, 격식/비격식의 상황, 글의 주제 및 성격, 장르 등을 염두에 두고 어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먼저 어휘 바꿔쓰기 양상 유형을 어휘 바꿔쓰기를 실패한 경우와 수행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어휘 바꿔쓰기의 수행 양상은 직관에 의존한 어휘 바꿔쓰기와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어휘 바꿔쓰기의 수행 양상은 바꾼 어휘에 대한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의 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어휘 바꿔쓰기, 어색한 어휘 바꿔쓰기, 적절한 어휘 바꿔쓰기, 정교한 어휘 바꿔쓰기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의 경우에는 의미와 맥락 차원의 고려 요인에 따라 언어적 측면, 의미적 측면, 맥락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떻게 어휘를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휘 바꿔쓰기 전략들을 어떻게 활용했고 어떤 의도 및 목적으로 표현했는지 등의 전략적 능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 유형을 다음 <표 Ⅲ-2>, <표 Ⅲ-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Ⅲ-2>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의 유형

어휘 바꿔쓰기 양상	학습자 유형	전략적 능력 (전략 활용)	바꾼 어휘의 질적 차원			
			미시적 차원		거시적 차원	
			의미의 정확성	의미의 적절성	맥락의 적절성	어감 및 표현 효과 고려
어휘 바꿔쓰기 실패	유형 1	x	x	x	x	x
직관에 의존한 어휘 바꿔쓰기	유형 2	x	△	x	x	x
	유형 3		o	o	x	x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	유형 4	o	x	x	△	△
	유형 5		o	x	△	△
	유형 6		o	o	△	△
	유형 7		o	o	o	o

<표 Ⅲ-3>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의 유형에 대한 설명

어휘 바꿔쓰기 양상	학습자 유형	설명
어휘 바꿔쓰기 실패	유형 1	어휘 바꿔쓰기를 실패한 경우
직관에 의존한 어휘 바꿔쓰기	유형 2	직관에 의존해 어휘를 바꿨지만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	유형 3	직관에 의존해 어휘를 바꿨지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유형 4	전략을 활용해 어휘를 바꿨지만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1) 의미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2) 맥락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유형 5	전략을 활용해 어휘를 바꿨지만 어색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유형 6	전략을 활용해 적절한 어휘로 바꿨지만 단순한 기초 어휘를 사용한 경우
	유형 7	전략을 활용해 정교한 어휘로 바꾼 경우 1) 언어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2) 의미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3) 맥락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2) 자료 분석 방법

본고는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 및 전략 활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주어진 자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내용과 맥락을 연구자의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는(김석우・최태진・박상욱, 2015: 346)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은 '메시지의 구체적 특성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여러 가지 추론을 만들어내는 그 어떤 기술'(Holsti, 1969; 김석우・최태진・박상욱, 2015: 328 재인용)로, 그중 질적 내용 분석은 단어부터 전체 맥락에 대한 연구자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타당도 높은 자료의 해석이 필요하며 잠정적이고 수정이 가능한 유연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Krippendorff,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어휘 바꿔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한 텍스트에 근거해 학습자의 사고 및 인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며, 학습자의 응답을 질적으로 해석해 그 응답에 내재된 잠재적인 내용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어휘를 사용하고 전략을 활용하는 양상을 유형화해서 각 유형이 보이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질적 내용 분석 방법 중 자료의 유형이나 형식적 구조를 탐색하는 구조화 내용 분석(structuring 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이는 유형화를 통해 개별적인 특성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Flick, 2002; 임은미・최금진・최인호・허문경・홍경화, 2009: 339-340). 따라서 어휘 바꿔쓰기 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에서 구체적인 전략 활용 및 어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토대로 각 유형의 개별적인 특징을 심층적으로 해석하였다.

2.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 분석 결과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 및 전략 활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과제를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해 유형화하였다. 이에 어휘 바꿔쓰기의 실패, 직관에 의존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의 양상을 보이며, 바꾼 어휘의 질적 수준에 의한 구체적인 어휘 사용 및 전략 활용 양상은 부적절한 어휘 사용, 어색한 어휘 사용, 적절한 어휘 사용, 정교한 어휘 사용 등으로 분류되어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학습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이 각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1. 유형 1 : 어휘 바꿔쓰기 실패

유형 1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문장에서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바꿀 수 있는 어휘를 생각해내지 못해 어휘 바꿔쓰기를 실패한 경우이다.

몇몇 학습자의 경우 기본적인 어휘 의미의 이해부터 부족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바꿔쓰기 과제의 문장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어휘는 학생들의 어휘 수준을 고려해 제시한 것으로, 학습자들은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략적인 의미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어휘를 이해하고 이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전략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처럼 어휘 이해 단계부터 실패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어휘 바꿔쓰기를 실패한 유형의 대부분 학습자는 바꿀 수 있는 어휘를 떠올리지 못한 경우로, 이해 차원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어휘 연결망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몇몇 학습자는 관련된 단어를 생각하기는 했지만 어휘를 바꾸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는 떠올린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어휘를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J-2-D3]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에서 '부정하다'의 의미는 '어떤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이다.
→ 바꿔쓸 수 있는 어휘는 떠올리지 못함

[H-H-2-C13] '대규모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되어'에서 '예측되다'는 '미리 생각하다'를 의미한다. 바꿔쓸 수 있는 어휘로 '예상'을 떠올렸지만 '예상'과 '예측'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러한 학습자 유형은 어휘의 이해 측면부터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어휘 지식 및 어휘 목록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학습자 스스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어휘 이해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도 이루어져야 한다. 전략적 능력의 신장을 논하기 전에 어휘를 학습하기 위한 전략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서 학습자 머릿속의 어휘 목록 및 지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면서 어휘 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2.2. 직관에 의존한 어휘 바꿔쓰기 양상

학습자가 어휘를 바꿔쓸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휘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깊은 사고 과정을 생략한 채 직관적으로[20] 어휘를 바꿔쓰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이다. 즉 학습자들이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고 및 행동으로서의 다양한 어휘 전략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어휘, 익숙한 어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20) 언어 사용 측면에서는 모어 화자에게 이러한 직관적인 사고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어휘 교육의 관점에서는 직관적으로 어휘를 바꾼 학습자의 어휘 사용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해 교육적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때 학습자들이 최종적으로 바꿔쓴 어휘를 살펴보면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와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형 2 :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어휘 사용

유형 2의 학습자들은 어휘를 바꿔쓰기는 했지만, 의미상 부적절한 어휘로 바꾸거나, 주변 단어와의 호응에 적절하지 않은 어휘로 바꾸거나, 인터넷 용어 같은 속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학습자들은 문장에 사용된 어휘의 의미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는 부적절한 어휘 표현을 선택한 것이다.

[S-H-2-A22]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에서 '이견'을 '의의'로 바꾸었다.
→ ‘의의’도 남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견’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의미상 부적절한 어휘로 바꾼 경우는 기존 어휘의 의미는 제대로 이해했지만 바꿀 수 있는 어휘를 잘못 생각해내서 바꾼 경우로, 바꿔서 표현한 문장이 원문의 의미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기존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어휘 지식으로 인해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것이다.

[S-H-2-B8]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에서 '뛰어난'을 '잘하는'으로 바꾸었다. → 그냥
[S-H-2-A24] 'OO 그룹의 작년 실적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에서 '발표되었는데'를 '연설되었는데'로 바꾸었다.
→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는 거 썼다
[S-J-2-A5]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에서 '뛰어난'을 '개쩌는'으로 바꾸었다. → 의미가 비슷해서

문맥에 맞지 않거나 주변 단어와의 호응에 적절하지 않은 어휘로 바꾸거나 인터넷 용어 같은 속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학습자들은 어휘에 대해 고민하는 사고 과정을 생략한 채 맥락에서의 적절성이나 표현 의도 및 효과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떠올린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서 고민 없이 바꿨거나 바꿀 수 있는 어휘를 떠올리는 어휘 연결망 지식이 양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완전히 틀린 어휘는 아니지만 어색한 느낌을 주는 어휘로 바꾼 경우도 있는데, 학습자들의 머릿속 어휘 목록에서 생각나는 어휘를 바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J-3-C20]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에서 '부정하지'를 '비평하지'으로 바꾸었다.
→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서, '비평'이 제일 나은 거 같다

[인터뷰]

S-J-3-C20 : '부정하다'는 사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는 괜찮은 단어가 별로 없어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비난하다'랑 '비평하다'랑 '부정하다'랑 좀 다른데... 각각 다른데... 부정하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비슷한 어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살짝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의미의 정확성보다는 적절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어휘가 사용된 것으로, 어휘 사용의 오류 차원을 넘어서 독자의 인식 및 이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에 따라 잘못된 어휘라기 보다는 어색한 느낌을 주는 어휘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어휘의 의미 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하며, 어휘의 의미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유형 3 : 적절한 어휘 사용

유형 3의 학습자는 바꾼 표현의 개별 어휘 및 어휘 관계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의사소통 전반을 고려해서 깊은 사고 과정 없이 어휘를 바꾼 경우이다. 이는 학습자가 원래 언어 능력이 기본적으로 뛰어나거나 큰 고민 없이 생각난 어휘로 바로 바꾸었지만 바꾼 단어가 우연히 적절한 경우로 볼 수 있다.

[S-J-2-A22]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에서 '뛰어난'을 '훌륭한'으로 바꾸었다. → 자연스럽다

[H-H-2-C18]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금액은 넉넉하지 못하다는'에서 '넉넉하지'를 '충분하지'로 바꾸었다. → 자연스러워서

전자의 경우에 속하는 학습자는 어휘 사용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어휘의 의미 가치나 맥락에서의 적절성, 표현 의도 및 효과 등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자연스러워서’ ‘표현이 좋아서’ 어휘를 사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에게는 다양한 전략 활용을 통해 더 세심하게 여러 어휘 및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해 적극적인 어휘 사용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

[S-H-2-B23]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에서 '뛰어난'을 '특출난'으로 바꾸었다. → 이유라기엔 뭣하고 그냥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S-J-2-A18] '이번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에서 '발표되었는데'를 '나왔는데'로 바꾸었다. → 생각이 이것밖에 안 나서

[S-J-2-B11]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에서 '예측된다'를 '보인다'로 바꿈. → '보인다'밖에 생각이 안 나서

한편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학습자는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어휘로 바꾸었더라도 단어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휘 능

력 수준이 높은 학습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어휘망 지식을 늘리고 떠올린 다른 어휘와의 의미 비교를 통해 의식적으로 다양하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고 여러 어휘 및 요인들을 고려하며 맥락에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어휘 사용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유형 2와 유형 3의 학습자는 단순하게 의미가 유사한 어휘를 바꾼 것에 만족하며, 화용적인 적절성이나 표현 의도 및 효과 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어휘를 바꿔쓸 때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의미가 통해서', '자연스러워서' 처럼 단순하게 떠오른 어휘를 사용해 표현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대체로 학습자에게 친숙한 어휘를 사용하려는 태도와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다' 같은 수동적인 어휘 사용 태도를 보인다.

2.3.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 양상

학습자가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고 및 행동으로서 다양한 어휘 전략들을 활용하고 여러 고려 사항들을 토대로 어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이다. 이들은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면서 어휘의 언어적 특성,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표현 의도 및 효과, 독자와의 관계나 글의 성격 및 장르 등을 고려해 어휘를 바꿔 쓰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바꿔쓰고자 하는 어휘를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맥락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바꿔쓴 어휘 표현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어색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적절하지만 단순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정교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학습자들이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단어의 의미 관계(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고려하기 > 단어의 종

류(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려하기 > 길게 풀어서 설명하기 > 관용 표현(사자성어, 관용구) 활용하기 > 기타’ 순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학교급별로 학습자들이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전략을 활용한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전략 활용 양상에 대한 기술적 통계 결과

전략	중학교	고등학교
단어의 의미 관계 고려하기	75.7%	79.7%
단어의 종류 고려하기	15.4%	10.8%
길게 풀어서 설명하기	5.1%	7.6%
관용 표현 활용하기	3.2%	1.3%
기타[21]	0.6%	0.6%
계	100%	100%

어휘 바꿔쓰기는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어휘를 바꿔쓰는 것으로 학습자들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휘 의미 관계, 특히 유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휘를 바꿔 쓰는 과정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유의어를 떠올리는 것이 학습자들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같은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전략 활용의 목적 및 의도, 바꾼 어휘의 사용 및 인식 양상, 태도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제시한 어휘 바꿔쓰기 과제의 어휘들이나 문장이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계 결과만으로 학교급에 따라 전략 활용의 선

21) 기타는 학습자들이 의존 명사나 대명사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어휘의 의미를 주로 다루는 다른 전략들과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 따로 언급한다.

[S-H-2-B7] ‘사퇴하고자 하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에서 '예정'을 '것'으로 바꾸었다. → ‘예정’보다 ‘것이’ 나을 거 같아서

택에 차이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다양한 전략들을 무슨 의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보이는 특징을 간략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어 언급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의 어휘 바꿔쓰기 결과로 나타난 어휘 사용 양상과 그 과정에서 활용한 전략 양상의 특징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형 4 : 부적절한 어휘 사용

유형 4의 학습자는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떠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어휘를 바꿔쓰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이다. 학습자들이 어휘를 전략적으로 탐색해서 사용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전략 활용 양상을 귀납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의미적 측면과 맥락적 측면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① 의미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학습자가 어휘를 사용하는 양상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어휘의 의미가 큰 영향을 미치며,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개념, 의도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학습자들이 개별 어휘에만 주목해 원문 어휘와의 의미적 유사성만을 고려하다 보니 문맥에서 의미적, 문법적, 화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학습자들은 다양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들을 활용하면서도 어휘 지식의 부족으로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전략 활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은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어휘를 바꿔쓰는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휘 관계, 특히 유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유의어를 떠올리기는 했지만, 의미나 문법, 화용적으로 부적절한 어휘로 바꾼 경우이다.

[H-H-2-D9]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에서 '뛰어난'을 '높은'으로 바꾸었다.
→ 어차피 둘 다 '잘한다'의 의미여서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함

[S-H-2-A5] '대규모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되어'에서 '예측되어'를 '암시되어'로 바꾸었다.
→ 미래의 일을 '암시하다'라는 말이 어떠한 일을 미리 '예측하는' 것과 비슷해서

원문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유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어휘들을 떠올렸지만, 해당 문맥에 적합한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중 하나를 그대로 사용해서 문맥상 적절하지 않거나 주변의 다른 단어와 호응이 어색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어휘 간의 의미적 유사성만 고려하고 문법적인 정확성이나 화용적인 적절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에게는 어휘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사용됨을 인식하고, 주변 단어와의 호응이나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 등을 고려하면서 어휘를 사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문 어휘와 의미가 유사하게 바꾸기 위해 서로 공존하는 유의 관계로서 대응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고려하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때 어휘를 서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의미적 유사성만을 고려해 부적절한 어휘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고유어나 한자어를 외래어로 바꿀 때 학습자들은 '뜻이 같다'라는 이유를 넘어서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외국어를 남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E-J-1-19] '부모와 마찰이 일어나기도 한다'에서 '마찰이'를 '스파크가'로 바꾸었다. → 뜻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S-J-2-C4] '곡을 결정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에서 '결정하는'을 '초이스하는'으로 바꾸었다. → 개 간지나서
'최대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와의 시합'에서 '시합'을 '컴피티션'으로 바꾸었다. → 멋있어 보여서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중학교 학습자가 고등학교 학습자에 비해 외래어를 더 많이 사용했으며, 이때 학습자들은 '요즘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글로벌한 시대니까' 라는 인식을 가지고 외국어로 자주 바꾸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중학교 학습자에게 제시한 어휘 바꿔쓰기의 문장이 고등학교 학습자에게 제시한 문장에 비해 어렵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의 어휘들이 많아 비격식적인 표현으로 외래어를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오히려 의미 전달 측면에서 본래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문의 의미와 유사하게 어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의미상 대립되는 어휘 관계인 반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학습자는 문법적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의미상 부적절한 어휘로 바꾼 모습을 보인다.

[S-J-2-A20]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에서 '부정'을 '동의'로 바꾸었다.
→ '부정'의 반대말이 '동의'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어휘를 바꿔쓸 때 반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을 사용할 때는 의미상 바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 형식을 사용해 문장의 의미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원문의 어휘와 반의어가 의미적 유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정 부사나 부정 용언 같은 부정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S-J-2-A20] 학습자의 경우 반의어를 사용해 바꿔쓸 때 원문과 동

일한 의미로 바꿀 수 있도록 부정 용언 ‘않는다’를 삭제했어야 하지만, 반의어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서 문장의 의미를 반대로 전달하고 있다. 반의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정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 용법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맥락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학습자가 어휘를 사용하는 양상에는 맥락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경우는 학습자가 어휘를 바꿀 때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이나 독자와의 관계 및 수준, 글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미, 문법, 화용적으로 부적절한 어휘로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개별 어휘에 주목해 원문 어휘와의 의미적 유사성만을 고려한 경우보다는 맥락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전략 활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휘 바꿔쓰기 과제의 수행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유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S-J-2-A11]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에서 '뛰어난'을 '강한'으로 바꾸었다. →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H-H-2-D16] 'OO 그룹의 작년 실적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에서 '발표되었는데'를 '선택되었는데'로 바꾸었다.
→ 아이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쉬운 표현으로 바꾸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유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을 활용했지만, 주변 단어와 호응할 수 없거나 의미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원문 의미를 유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휘 사용 맥락을 고려하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어휘 지식의 부족으로 적절하지 못한 어휘 바꿔쓰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표현 효과를 고려해 관용 표현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많은 학습자들이 원문의 어휘에 대응할 수 있는 관용 표현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는다. 이 유형은 학습자가 관용 표현을 활용하기는 했지만 부적절한 표현으로 바꾼 경우이다.

[S-J-2-B26] '그는 스스로 갈고닦아 실력을 키웠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에서 '갈고닦아'를 '피를 깎는 노력을 통해'로 바꾸었다.
→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단어를 바꿀 수 있는 관용 표현을 활용해 독자에게 참신한 표현으로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관용 표현을 잘못 알고 활용한 경우이다. 본래 학습자가 활용하고자 했던 표현은 '피를 깎다' 가 아니라 '뼈를 깎다'가 적절한 관용 표현으로, '몹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의 의미를 가진다. 관용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했다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 실력을 키웠다' 라는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지만, 이 경우는 표현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어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관용 표현은 적절한 상황에서 잘 활용되면 어휘의 다양성을 보여주면서 문장의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휘 자산으로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관용 표현에 대해 배우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

2) 유형 5 : 어색한 어휘 사용

유형 5의 학습자는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어휘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사고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들

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색한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학습자들이 어휘를 전략적으로 탐색해서 사용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전략 활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유형의 학습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S-H-2-A25]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에서 '뛰어난'을 '빼어난'으로 바꾸었다.
→ '리더십'이 강점이므로 '리더십'을 꾸며주면서 '뛰어나다'와의 의미가 제일 비슷한 거 같아서

어휘를 바꿀 때 다른 단어와의 의미 호응도 고려하기는 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어색한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떠올린 유의어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경험이 부족한 경우로 어휘 의미에 대한 모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의어 간의 세심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문형이나 용법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에게는 어휘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사용됨을 인식하고, 떠올린 유의어들의 의미를 세밀하게 비교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원문의 의미와 유사하게 어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의미상 대립되는 어휘 관계인 반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을 활용했지만, 의미상 어색한 어휘로 바꾼 경우도 있다.

[S-J-2-C17]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에서 '부정하지'를 '비동의하지'로 바꾸었다.
→ 의견에 아니라고 부정하는 뜻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휘를 바꿔쓸 때 반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표현 형식을 사용해 문장의 의미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정 부사나 부정 용언 같은 부정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S-J-2-C17] 학습자의 경우에는 부정의 의미를 더하는 한자 접두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원래 문장의 의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색한 표현이라는 문제가 있다. 반의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정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뿐 아니라 그 의미와 사용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어휘의 의미를 구나 절로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쉬운 어휘를 사용해 기존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색한 표현으로 바꾼 모습을 보인다.

[H-H-2-D24]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 지원 대책으로'에서 '청년'을 '젊은 사람'으로 바꾸었다. →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서

학습자는 ‘청년’이라는 한자 의미를 그대로 풀어쓴 ‘젊은 사람’으로 바꾸고 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 의미가 변하지 않았고 주변 단어와의 호응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제시된 문장의 장르가 뉴스, 신문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보고하는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어휘의 사용이 어색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어휘를 바꿀 때는 해당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특정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장르’적인 특성(Miller, 1994)도 함께 고려해야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3) 유형 6 : 적절하지만 단순한 어휘 사용

유형 6의 학습자는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어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기는 하지만, 최종 어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단순한 경우이다. 이들은 어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쉬워서, 익숙해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라서'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 즉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쉽고 익숙한 어휘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어휘 사용 태도를 보이며, 맥락에 더 적합한 어휘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구체적으로 전략을 활용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원문 어휘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유의어를 고려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학습자는 다양한 유의어를 떠올리기는 하지만, 비교적 의미 국면이 넓은 기초 어휘[22]로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

[S-J-2-B8]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에서 '예측된다'를 '보인다'로 바꿈. → 발음이 편하다

[S-H-2-B4] '대규모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되어'에서 '예측되어'를 '보여'로 바꾸었다. → 직관적이고 단어가 쉽기 때문

[S-J-2-B23]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에서 '예측된다'를 '보인다'로 바꾸었다.
→ 가장 쉽게 또 의미는 같게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학습자는 대부분 '발음이 편해서, 의미가 쉬워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어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기초 어휘 외에도 다른 구체적인 단어도 떠올리기는 했지만, 떠올린 어휘의 의미 및 쓰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이해하기 쉬운 기초 어휘를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 어휘들은 문맥상으로는 의미가 통하고 호응 측면에

22) 김광해(2003)에서 규정한 기초 어휘나 정규 교육 이전의 학습자들이 배우는 어휘군인 1등급과 2등급 어휘에 속하는 것이 많다.

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원문의 어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어휘소가 다른 어휘소를 의미적으로 포함하는 상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독자를 고려해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상위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S-J-2-C19] '학교 축제를 준비하는 회의가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에서 '진행되고'를 '되고'로 바꾸었다.
→ 간단하게 하기 위해 바꿨다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일한 계통의 상하 관계는 아니더라도 상위어가 하위어에 비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더 쉬운 단어, 더 자주 사용되고 익숙한 단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는 목적으로 상위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도 문맥상으로는 의미가 통하지만, 원문의 어휘에 비해 넓은 의미 국면을 가지고 있고 원문의 정보를 일반화하기 때문에 의미의 완전성과 전달성 측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단어의 의미를 쉽게 바꾸기 위해 어휘의 의미를 구나 절로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쉬운 어휘를 사용해 기존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S-H-2-A7]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에서 '침체'를 '암울한 상황'으로 풀어서 ‘경기의 암울한 상황이’로 바꾸었다.
→ ‘침체’를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아 바꿨다
[S-H-2-A3] ‘최대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와의 시합에서’에서 '최대 경쟁자'를 ‘꼭 이기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꾸었다.
→ 뜻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주로 한자어로 표현된 어휘를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로 인식하고 이를 고유어나 상대적으로 쉬운 한자어로 풀어쓰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어휘 바꿔쓰기는 의미 이해의 측면에서 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장이 과도하게 길어져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풀어쓰는 과정에서 의미의 변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는 ‘더 쉬운 단어, 더 자주 사용되고 익숙한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 단어의 종류를 고려하는 전략을 많이 활용하며, 주로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경향을 보인다. 또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외래어를 선호하는 모습도 보인다.

[H-H-2-C4] '넉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에서 '지적'을 '말'로 바꾸었다.
→ '지적'보단 '말'이 읽기에 편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

[S-H-2-A17] '최대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와의 시합'에서 '경쟁자'를 '라이벌'로 바꾸었다.
→ '라이벌'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직관적으로 어휘를 선택하기보다는 어휘의 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사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바꾼 어휘가 문맥상 적절하기는 하지만, 의미 전달 측면이나 태도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독자를 고려해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표현하기 위해 바꾼 학습자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익숙하고 쉬운 어휘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여러 단어를 떠올려도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변별하지 않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가장 쉬운 어휘를 선택하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중학교 학습자가 고등학교 학습자에 비해 적절하지만 단순한 어휘 바꿔쓰기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비교적 조금 더 쉽고 익숙한 어휘로 한자어에 비해 고유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중학교 학습자들이 한자어를 사용할 때 ‘수준 높은 단어, 고급 어휘’로 언급하는 것에 비해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언급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등학교 학습자는 중학교 학습자보다 상대적으로 한자어가 익숙한 것이다. 또한 제시한 어휘 바꿔쓰기 과제의 문장의 주제나 수준 차이를 바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중학생에게 제시한 문장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것 같은 내용인 반면에 고등학생에게 제시한 문장은 뉴스나 신문에서 언급될 것 같은 경제 관련 내용이다.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글의 분위기를 고려해 비교적 격식체인 한자어를 선호하는 반면, 중학교 학습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비격식체인 고유어와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4) 유형 7 : 정교한 어휘 사용

유형 7의 학습자는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며, 동시에 어휘의 언어적 특성, 의미, 어휘 사용 맥락, 표현 의도 및 효과, 장르 및 독자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정교한 어휘로 바꾼 경우이다. 유형 7의 학습자들은 다른 유형의 학습자들보다 여러 가지 전략들을 동시에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적절하면서 정교한 어휘를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학습자들이 어휘를 전략적으로 탐색해서 사용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 활용 양상을 귀납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언어적 측면, 의미적 측면, 맥락적 측면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① 언어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학습자가 어휘를 이해할 때 어휘의 언어적 특성인 음운, 형태, 통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어휘를 사용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유형 7의 학습자는 다른 유형의 학습자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전략들을 활용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단어의 어형 및 문형을 고려하

는 전략은 어휘의 언어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정교한 어휘를 사용한 학습자 유형에만 나타난 전략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어휘에 대한 형태 및 통사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S-J-2-C2]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에서 '예측'을 '예상'으로 바꾸었다.
→ '예(豫)'라는 한자가 겹치기에 뜻이 비슷하고 어감이 튀지 않기 때문이다

[S-H-2-A25]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에서 '폭락하다'를 '떨어지다'로 바꾸었다.
→ '폭락'에서 '폭'의 의미도 같이 설명하긴 힘들지만, '락'의 의미는 다른 단어들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어휘의 형태 정보를 고려해 어휘를 바꿔쓴 학습자는 단어에 사용된 한자 지식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몇몇 학습자들이 기존 어휘의 한자 의미를 고려해 그 한자와 겹치는 어휘를 찾아 바꾸었다. 이러한 전략의 사용이 다른 전략에 비해 적은 이유는 학습자들의 한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어휘의 한자 의미와 형태를 고려해 어휘 의미를 추론하기도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한자 지식을 활용하는 전략은 형태가 완전히 다른 유의어나 반의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떠올리는 것에 비해 조금의 노력으로도 의미 및 형태가 비슷하면서 다양한 어휘들을 떠올리고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표의 문자인 한자어의 특징상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특정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자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정확하고 세밀한 어휘 바꿔쓰기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어휘는 한자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의 문형이나 주변 단어와의 호응을 고려하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어휘의 통사 정보를 고려한 것이다.

[E-J-1-1] '독자적인 삶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을 '살아가는'으로 바꾸었다. → 목적어 '삶'과 어울리는 단어 사용함

[S-J-2-A21]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에서 '뛰어난'을 '훌륭한'으로 바꾸었다.

→ '굉장한 리더십'보다 '훌륭한 리더십'이 더 적절한 것 같아서

[S-H-2-B3]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에서 '거두었다'를 '쟁취했다'로 바꾸었다.

→ '쟁취하다'가 '승리'와의 단어 호응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떠올린 어휘 중에서 비교를 통해 주변 단어와의 호응이 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휘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맥락 속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휘의 통사적 지식은 어휘 사용 국면에서 항상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어휘의 형태 및 통사 지식에 초점을 두고 더 자연스럽고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더 나아가 어휘의 선택에 의한 표현 효과, 독자의 수준 및 관계, 글의 주제 및 성격 등까지 고려해야 더 깊은 사고 과정에 바탕을 둔 어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의미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정교한 어휘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은 자연스러운 어휘를 선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한다. 어휘를 선택할 때 어휘가 전달하는 뉘앙스나 특정 어휘 선택으로 인한 표현 효과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구체적으로 전략을 활용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는 어휘를 바꿔쓸 때 해당 어휘가 가지는 의미 가치 및 느낌을 고려해 어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단어의 연상적 의미를 고려하는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떠올린 여러 어휘 중에서 특정 단어가 지니는 부정적, 긍정적, 중립적인 의미 가치를 고려하면서 바꾸는 것이다.

[E-J-1-1] '기후 변화로 가뭄이 심화되어'에서 '심화되어'를 '악화되어'로 바꾸었다.
→ 가뭄의 부정적 면모를 강화함

[E-J-1-14] '독자적인 삶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을 '개척하는'으로 바꾸었다.
→ 삶을 경험한다기보다는 만들어 나가는 게 더 희망차서

[S-H-2-B3] '그의 인성에 대한 평가는'에서 '인성'을 '성품'으로 바꾸었다.
→ 둘 다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특성이 강하고 단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그의 인성에 대한 평가는'에서 '인성'을 '성품'으로 바꾸었다.
S-H-3-A2 : 인성은 너무 좀 부정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성품으로.. 뭔가 좀 더 부드럽고.. 또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좀 연예인들 욕할 때 먼저 '인성'.. 이런 단어부터 쓰잖아요. 그래 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들어 가지고 '성품'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에요.

학습자는 어휘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어휘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의 가치 판단을 하며, 이는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 의도나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인식에 따라 최종적인 언어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때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 단어의 연상적 의미를 고려하는 전략, 단어의 통합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 등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는 이러한 표현 효과의 차이를 정교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적절하고 정교한 어휘로 바꾸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

학습자가 반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을 활용할 때도 유의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H-H-2-C1] '내놓은 금액은 넉넉하지 못하다는'에서 '넉넉하지 못하다'를 '부족하다'로 바꾸었다. → 부정보단 긍정

이 학습자는 반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단어가 주는 느낌이나 긍정적, 부정적 가치 등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반의어를 활용하기 위해 부정 부사나 부정 용언 같은 부정 표현을 문맥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학습자는 원문과 의미가 유사하다 할지라도 부정 표현의 사용에서 오는 세밀한 의미 전달 차이를 인식할 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단어의 의미를 풀어쓰면서 설명하는 전략을 활용할 때도 어휘의 의미나 전달하는 느낌을 고려해서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

[S-J-2-B15] '그는 스스로 갈고닦아 실력을 키웠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에서 '갈고닦아'를 '노력을 반복해서'로 바꾸었다.
→ 더 사실적이고 그 느낌을 더 실감나게 상상해볼 수 있어서

어휘를 구나 절로 풀어썼을 때 '더 사실적이고 실감나는 표현'이라는 인상은 어휘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풀어쓰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표현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이를 고려해 문맥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바꿔쓴 어휘 표현이 전달하는 의미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는 어휘를 바꿔쓸 때 어휘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 전략을 활용해 어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매우 다양한 전략들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특정 어휘 선택을 통한 표현 의도 및 표현 효과를 드러내고자 한다. 먼저 유의 관계를 고려해 다양한 유의어를 떠올린 학습자의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S-J-2-C2] ‘□□와의 시합에서 낭패를 맛본’에서 ‘시합’을 ‘대결’로 바꾸었다.

→ 둘만의 대립이라는 부분에서 ‘대결’이 좀 더 맞는 것 같기 때문이다

‘실력을 키웠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에서 '거두었다'를 '쟁취했다'로 바꾸었다.

→ 이 단어가 길고 긴 과정 끝에 승리를 이룬 느낌이기 때문이다.

[S-H-2-A4] ‘□□와의 시합에서 낭패를 맛본’에서 ‘낭패’를 ‘참패’로 바꾸었다.

→ 제일 유사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활용했고 ‘참패’가 더 깊은 의미를 줄 것 같아서

학습자들은 여러 유의어들을 떠올리고 그중에서 문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어휘의 구체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어휘를 바꾸고 있다. 또한 의미를 더 명확히 전달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내용적 측면에서 원문의 정보를 더 구체화하거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어휘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변 단어와의 의미 호응과 문장의 맥락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단어의 종류를 고려하는 전략을 활용한 학습자는 대체로 의미 폭이 넓은 고유어를 대신해 구체적이고 섬세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한자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H-H-2-C8] ‘대책으로 내놓은 금액은 넉넉하지 못하다는’에서 '넉넉하지'를 '충분하지'로 바꾸었다.

→ ‘넉넉하다’보다는 ‘충분하다’가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학습자는 어휘를 바꾸는 과정에서 한자어의 사용 제약을 고려하고 미세한 의미 차이를 인식하고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때 의미의 전달성 및 표현 의도 등을 고려하고, 상대적으로 음절의 길이가 짧은 한자어를 통해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S-J-2-C1] '곡을 결정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에서 '결정하는'을 '선정하는'로 바꾸었다.
→ '결정하다'라는 말보다는 곡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선정'이라는 단어로 바꾸었다.

다른 어휘 종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자어에서 다른 한자어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학습자는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미를 고려해 한자어의 섬세한 의미 비교를 통해 어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자들은 각 어휘의 종류가 가지는 특성들을 인식하고 그 사용 제약과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해 적절하고 정교한 어휘를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가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전략을 활용할 때,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더 나아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H-H-2-D7] '그는 스스로 갈고닦아 실력을 키웠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에서 '갈고닦아'를 '열심히 단련해서'로 바꾸었다.
→ '갈고닦아'라는 표현보다 '열심히 해서 다시 승리했다'라는 걸 중요히 생각했다

[S-J-2-B26]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에서 '부정하지'을 '회의적 태도를 보이지'로 바꾸었다.
→ '부정하다'의 의미가 들어가는 다양한 말 중 구체적 개념을 언급한다

원문의 의미를 전달할 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표현 의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학습자는 어휘 의미를 풀어쓰면서도 주변 단어와의 호응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다.

관용 표현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는 관용 표현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그 표현 효과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S-J-2-A10] '그는 스스로 갈고닦아 실력을 키웠고'에서 '갈고닦아'를 '절차탁마하여'로 바꾸었다.
→ 갈고닦는 것을 어떤 참신한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함

[S-H-2-A3]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에서 '밝힐 예정이다'를 '밝히고자 마음을 먹었다'로 바꾸었다.
→ 스스로 결정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다

학습자들은 '참신하게 의미를 표현하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단어에 대응하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때 동시에 주변 단어와의 호응이나 표현의 사용역 및 형태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자가 사용한 사자성어인 '절차탁마'나 관용구인 '마음을 먹다' 같은 관용 표현을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용 표현에 대한 의미, 문법, 화용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자유자재로 관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관용 표현은 대부분 원문의 어휘 의미를 동일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으로 활용되어 문장의 표현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맥락에서 관용 표현을 활용할 때는 그 의미 전달성 및 표현 의도를 면밀하게 고려해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③ 맥락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

학습자가 어휘를 바꿀 때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이나 독자와의 관계 및 어휘 수준, 글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맥락에 적

절하고 정교한 어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문장의 어휘 바꿔쓰기 과제에서 직접적으로 독자나 장르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학습자가 어휘 및 문장을 보고 추측해서 고려한 경우나 명시적으로 문단의 어휘 바꿔쓰기 과제에서 독자나 장르를 고려해 어휘를 바꿔쓰라고 지시한 과제에서 나타난다. 학습자들이 어휘를 전략적으로 탐색해서 사용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 활용 양상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문장의 어휘 바꿔쓰기 과제에서 학습자는 읽는 사람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어휘를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

[E-J-1-26] '부모와 마찰이 일어나기도 한다'에서 '마찰'을 '싸움'으로 바꾸었다.
→ '마찰' 같은 단어는 사람에 따라 어렵다고 생각해 '싸움'으로 고쳤다.

[S-H-2-B2]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에서 '이견'을 '다른 의견'으로 바꾸었다.
→ '이견'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다른 의견'은 이해하기 쉬워서

[S-H-2-B12] '대규모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되어'에서 '예측되어'를 '짐작되어'로 바꾸었다.
→ '예측되다'보다 '짐작되다'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습자들은 대체로 독자를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로 상정하고 어려울 수 있는 어휘를 쉽게 바꾸려고 하며, 이때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전략, 풀어쓰는 전략, 유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 등을 함께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문장의 의미 전달성 및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장의 어휘 바꿔쓰기 과제에서 학습자는 글의 분위기나 주제, 장르 등을 고려해 어휘를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

[S-H-2-A12]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금액은’에서 ‘내놓은’을 ‘제시한’으로 바꾸었다.

→ 뉴스 같은 곳에서 발표하는 내용일 확률이 크므로 적절한 언어를 쓴다

[H-H-2-C8] 'OO 그룹의 작년 실적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에서 '발표되었는데'를 '공표되었는데'로 바꾸었다.

→ 문장 내에 한자어가 많아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S-J-2-C2] '곡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서 '결정하는'을 '정하는'으로 바꾸었다.

→ 문장 전체에서 딱딱한 단어보다 쉬운 단어 위주로 쓰였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주로 문장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종류를 보고 글의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글의 내용 및 주제를 바탕으로 글의 장르를 추측하는 모습을 보인다. [S-H-2-A12] 학습자는 글의 내용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글의 장르를 뉴스 같은 정보 전달 또는 보고하는 글이라고 생각해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 [H-H-2-C8] 학습자는 글에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딱딱한 분위기, 공적인 글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은 한자어라도 더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어휘를 선택하고 있다. [S-J-2-C2] 학습자는 글에서 쉬운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위어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직접적으로 독자나 장르를 고려해 어휘를 바꿔쓰라고 지시한 문단에서의 어휘 바꿔쓰기 과제는 정교한 어휘로 바꿀 수 있는 유형의 학습자들만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가 많다. 학습자들이 독자를 고려하는 과제는 어휘 표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장르를 고려하는 과제는 잘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자들이 글의 분위기나 성격 등은 간략

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보고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의 장르가 가지는 어휘적 특징 및 차이까지는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학교급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학습자보다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더 적극적인 태도로 독자를 고려하면서 정교한 어휘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단에서의 어휘 바꿔쓰기 과제에서 학습자들은 대부분 단어의 종류, 즉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고려하는 전략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S-J-2-A8] '범죄 행위도 더 과격해지고 있다'에서 '과격해지고'를 '심해지고'로 바꾸었다. → '과격'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도 있어서

[S-H-2-A2]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에서 '증가하고'를 '늘어나고'로 바꾸었다.
→ 한자라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S-H-2-B3]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에서 '잔인한'과 '저지를'을 '잔혹한'과 '범할'으로 바꾸었다.
→ 알아보기 쉽게 풀어쓴 우리말들을 한자어나 외래어로 바꾸면 단어의 수준이 높아지고 단어의 수준이 높으면 글의 수준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를 독자로 하는 어휘 바꿔쓰기에서 학습자는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글을 읽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라는 목적을 가지고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한글이나 더 친숙한 한자를 사용하거나,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대폭 줄이고 더 쉬운 외래어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선생님을 독자로 하는 어휘 바꿔쓰기에서는 ‘공적인 글’이라는 생각에 ‘더 어려운 어휘로 더 정확하고 세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려고’ 한자어로 바꾸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학습자들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전문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 라는 인식처럼 한자어 사용을 격식체라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통적으로 독자와 관계없이 학습자는 문단 단위에서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이 문장에서

어휘를 다룰 때보다 전체적인 맥락과 글의 분위기, 통사 구조를 더 의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어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거나 단어를 추가해서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양상도 볼 수 있다. 주로 독자가 어린 아이인 경우에 '개념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휘를 풀어서 써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어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거나 정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어휘를 보충해서 풀어쓰는 전략은 문장 단위보다 문단 단위에서의 바꿔쓰기에서 관찰되는데, 문단은 문장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적절한 어휘를 추가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얻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S-J-2-A10]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에 친숙한 만큼 어린 나이에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나이 제한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촉법소년'을 '청소년이 범죄 행위를 하면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 바꾸었다.

[S-H-2-A2] '따라서 영유아 시기부터 스마트폰에 친숙한 만큼 어린 나이에도 잔인한 범죄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나이 제한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촉법소년'을 '처벌받지 않고 가족들이나 청소년 시설에서 맡겨지는 촉법소년'으로 바꾸었다.

[S-H-2-A15] '따라서 영유아 시기부터 스마트폰에 친숙한 만큼 어린 나이에도 잔인한 범죄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나이 제한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촉법소년'을 '10세부터 14세 아래의 아이들 중 보호 처분이 되는 촉법소년'으로 바꾸었다.

특히 어린아이를 독자로 하는 어휘 바꿔쓰기에서 학습자는 '단어의 뜻이 어렵기 때문에 단어 앞에 단어의 뜻을 추가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모

습을 보인다. 즉 문단에서 중요한 핵심어에 대해 적절한 단어를 추가해 어휘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할 때 문장이 과도하게 길어져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문법 단위들끼리 연결 방식을 고려해 문장을 적절하게 분리하거나 어순을 변경하는 등 통사적 단위의 바꿔쓰기까지 고려할 필요도 있다.

소수의 학습자이기는 하지만 주장하는 글의 장르가 가지는 특징을 고려한 어휘 선택을 보이는 바꿔쓰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본조사에서는 지면 및 시간상의 문제로 이와 관련해 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면담을 통해 학습자들의 장르를 고려한 어휘 선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인터뷰] (밑줄은 연구자)

연구자 : 우리가 흔히 주장하는 글을 쓴다고 할 때 고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럼 이 글을 쓸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어휘와 관련해 좀 더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S-H-3-A1 : 먼저 처음에는... 제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주장하는 글이니까 저의 주장을 뚜렷하게 전할 수 있는 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주장이 뚜렷하게 글에 나타났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주제 자체가 자칫하면 민감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됐었어서... 너무 공격적인 어휘나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어휘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인터뷰]

연구자 : 우리가 흔히 주장하는 글을 쓴다고 할 때 고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럼 이 글을 쓸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어휘와 관련해 좀 더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S-J-3-C20 : 아무래도 주장하는 글은 상대방을 설득시킨다거나 아니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두 방향의 의견으로 갈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이제 상대방을 설득시

켜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너무 어휘가 너무 간단하다 보면, 약간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다 자주 사용하는 어휘면은...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뭔가 조금 덜 고지식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자 : 뭔가 전문적이지 않으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S-J-3-C20 : 네네! 외래어 같은 그런 것보다 조금 한자어나 고유어 같은 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 이제 어느 정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쓴다고?'... 약간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쉬운 말을 하는 것보다 어려운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뭔가 조금 심리적 압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걸 위주로... 그걸 중요시해서 쓰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인상 깊고 그런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습자들은 주장하는 글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이라는 것을 고려해 S-H-3-A1 학습자처럼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최대한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어휘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거나, S-J-3-C20 학습자처럼 너무 쉽지 않으면서 조금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면담 시에 추가로 제시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찬성이나 반대를 주장하는 글을 쓰는 작문 과제에서도 장르를 고려한 어휘 바꿔쓰기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제 학습자가 쓴 글] (밑줄은 연구자)

인터넷의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인터넷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접하는 콘텐츠의 종류와 그 범위도 커졌다. 수많은 콘텐츠를 접하면서 댓글이나 채팅과 같은 기능을 이용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들 중에는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현재 인터넷의 익명제를 믿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비방하는 성향의 글을 쓰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인터넷상의 익명제가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무차별적인 말을 하는 것인데, 이는 이런 글을 읽는 당사자에게 스트레스, 심하면 정신적 피해를 주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

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익명제에 따라 발생하는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익명제를 폐지하고, 실명제로 자신이 적은 댓글이나 글에 대한 책임을 져 이런 문제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뷰] (밑줄은 연구자)
연구자: 이 글을 쓰면서 고려한 사항들이 있나요?
S-J-3-B26 : 주장하는 글이어서.. 다른 뭐 설명하는 글을 쓰거나 그럴 때보다 조금 더 강한 어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처음에 그 문제 상황을...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는 방법으로 글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 상대편.. 제가 생각하는 의견과 반대의 주장을 조금 언급하고, 그다음에 '하지만'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문장을 연결해서 제 주장을 좀 더 강조했고 ..... 그 전 문장에서 스트레스, 심하면 정신적 피해 그다음에 그 뒷 문장에서 자살이라는 문제까지 생긴다는 것을 언급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전철을 밟지 않는다'라는 단어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인데.. 이 구를 써서 좀 더 인상적으로 글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연구자 : 아까 혹시 조금 더 강한 어감의 어휘를 쓰려고 노력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용도로 쓴 어휘가 있을까요?
S-J-3-B26 : '무차별적인 말'이라던가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다'

학습자들은 글에서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강한 어감을 가진 어휘를 사용하고자 하며, 관용 표현도 활용해 인상적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어휘 전략들이 활용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 분석의 교육적 시사점

3.1. 어휘 사용 태도 교육의 중요성

언어 사용 측면에서 모어 화자인 학습자가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은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깊은 사고 과정은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짧게 스쳐 지나갈 뿐이다. 즉 학습자들이 어휘 사용 과정에서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고 및 행동으로서 다양한 어휘 전략들을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하게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어휘, 익숙한 어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휘를 사용하는 과정에는 어휘 사용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어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교한 어휘를 전략적으로 탐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어휘 사용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

어휘 사용 과정에서 어휘 사용 태도의 중요성은 학습자들이 실제 바꾼 어휘의 질적 수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부적절한 어휘나 어색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는 주로 생각나는 어휘를 바로 사용하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어휘 사용 태도를 보이며, 외래어나 외국어를 남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적절하지만 단순한 기초 어휘를 사용한 경우는 쉽고 익숙한 어휘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어휘 사용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어휘 바꿔쓰기를 잘 수행하지 못한 학습자는 어휘를 사용할 때 주로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어휘 사용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교한 어휘 사용을 위해서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어휘 사용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가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어휘를 다루고 능동적으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이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자신의 어휘 사용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면서 스스로 어휘 사용 태

도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유도하고, 어휘 사용 맥락에서 정확하고 적절하며 정교한 어휘를 선택하고자 하는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2. 어휘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인식의 필요성

한편 학습자들이 바꿔쓴 어휘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여부를 기준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의미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어휘 바꿔쓰기 양상을 보인 유형 2, 유형 4, 유형 5와 적절하거나 정교한 어휘 바꿔쓰기 양상을 보인 유형 3, 유형 6, 유형 7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가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적어도 적절하거나 정교한 어휘를 사용해야 성공적인 어휘 수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두 학습자 유형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의 학습자들이 개별 어휘에만 집중해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휘를 사용할 때 어휘의 통사적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많은 학습자들은 주변 단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화용적으로 문맥에 어색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어휘에 대한 학습이 단순히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사, 화용 등의 문법 정보, 표현 의도 및 효과까지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어휘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휘와 관계를 맺으면서 특정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휘 의미 관계나 어종, 결합 관계, 어형, 문형 등을 고려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어휘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어휘의 의미 차이 및 표현 효과 차이 등을 구분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통사적, 화용적으로 맥락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3. 구체적인 어휘 사용 맥락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학습자의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 양상은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휘를 선택・사용하는 전략적 능력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미 전달 효과를 높이는 정교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와 정교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의 큰 차이는 학습자들이 어휘 사용 맥락을 고려하면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의 여부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어휘 사용 맥락 요인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의미 전달 측면에서 어휘가 가지는 뉘앙스나 표현의 의도 및 효과나 맥락적 측면에서 상황 맥락, 독자와의 관계 및 어휘 수준, 글의 주제 및 성격 등이 있다.

언어 주체가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맥락은 단순하게 고려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주체에 의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구성되는 심리적 구조물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맥락을 반드시 의식적으로 고려하면서 어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 요인을 고려한 경우에도 학습자가 기본적인 어휘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어휘를 사용하는 형태로 주로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23].

또한 맥락은 개념적으로는 미시적, 거시적, 메타적 차원으로 구분되며, 이는 각각 언어적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응될 수 있다. 이러한 층위의 맥락은 실제 표현 과정에서 유동적이고 순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신명선, 2009), 학습자들이 실제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고려하는 맥락

23) 본고에서는 어휘 지식의 확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어휘 양적 지식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개발된 여러 어휘 목록을 활용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 교육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요인은 전반적으로 언어적 맥락과 상황 맥락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경우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어휘가 사용되는 사적, 공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정도로 글의 분위기나 사용된 어휘 정도를 고려하는 모습만을 보인다. 이는 문단에서의 장르를 고려한 어휘 바꿔쓰기 과제를 학습자들이 아예 잘 수행하지 못한 점에서도 볼 때,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언어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르에 대한 인식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텍스트가 가지는 장르적 특성 및 언어 관습을 고려하면서 어휘 사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타당성까지 탐구하는 활동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3.4. 다양한 어휘 지식을 활용하는 어휘 전략 활동 제시의 필요성

한편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비율을 살펴보면 어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75% 이상의 학습자들이 단어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문의 어휘 의미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바꿔쓰기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어휘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휘 사용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방법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전략들을 제시하는 것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직접 어휘 의미를 정교화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들로 어휘 연결망 지식을 형성하고, 많은 단어들의 의미를 변별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전략에 대한 예시 설명만으로는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충분한 시범과 관련 활동, 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휘의 다양한 의미 관계, 종류, 관용 표현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어휘의 양을 늘리고, 어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쓰임을 적용하고 어떤 어휘를 선택해서 바꾸는지에 따라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비교해보면서 어휘의 질적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자들 사이의 전략 활용 양상 및 바꿔쓴 어휘의 양상을 비교해보면, 학교급별로 경향성을 언급하기에는 표본이 크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어휘 교육을 따로 다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현재 학교 교육 측면에서 어휘에 대해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단계에서 어휘 능력 차원에서 큰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학교 학습자와 고등학교 학습자의 세세한 전략 선택 및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급별로 학습자들이 보이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전략의 선택 양상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중학교 학습자가 고등학교 학습자에 비해 다양한 전략들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어휘 바꿔쓰기 과제로 제공된 문장의 수준 차이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학습자들에게는 정치나 경제 관련 내용의 문장이 많다 보니 뉴스나 기사문에 쓰일 법한 문장으로 인식하고 그 장르를 고려해 전문적인 어휘로 주로 바꾸고자 하며, 경직된 전략 활용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중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한자어에 친숙한 모습을 보이며, 단어의 종류를 고려하는 전략을 활용할 때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중학교 학습자들에게는 학교에서 흔히 이야기될 수 있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문장이 제공되다 보니 학습자들은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 자유롭게 전략들을 활용하면서도 적절하지만 넓은 의미 국면을 가지는 어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더 쉽고 익숙한 어휘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별로 학습자들에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어휘를 교육 대상으로 삼을지,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IV.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설계

1.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목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을 설계하는 데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어휘 교육의 목표인 '어휘 능력의 신장'과 관련되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자 교수 방법이 된다. 구본관 외(2014)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어휘 교육의 목표]**
> 국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휘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고, 어휘를 사용하는 표현과 이해의 절차와 방법을 익혀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국어 어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의 함양을 통해 국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
> 가. 국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휘에 대한 질적, 양적인 지식을 확충한다.
> 나. 실제 국어 생활에서 표현과 이해 양 측면에서의 어휘 활용 능력을 기른다.
> 다. 국어 어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함양을 통해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킨다.
>
> (구본관 외, 2014: 41, 밑줄은 연구자)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은 어휘 교육의 목표 중 밑줄 친 '어휘 활용 능력', 즉 학습자들이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어휘 지식을 다루는 사고 능력인 '전략적 능력'에 초점을 둔 교육이다. 하지만 어휘 능력의 구조를 다루면서 언급했듯이 어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능력'은 어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

며,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는 어휘 사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24].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어휘 지식을 활용해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다양한 어휘를 전략적으로 탐색해서 사용하며, 이때 어휘 의미를 정교화하고 맥락에 적절하게 선택하는 수행의 질을 높이게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때 다양한 어휘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은 학습자의 인지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과도 관련된다. 신명선(2017: 183)에서 어휘 능력 중 전략적 능력을 강조하는 관점은 '인지 중심 관점'으로 다룰 수 있으며, 인지 중심 관점에서는 '어휘를 통한 인지적 정교화(상위 인지 능력 포함)와 사고력 증진(상상력, 창의력 등)'을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한다. 어휘 바꿔쓰기 과정은 원문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언어 표현의 선택을 동시에 요구하는 인지적 활동으로, 학습자의 언어 지식과 사고력을 함께 활용하는 표현 수단으로 여겨

---

24) 기본적으로 어휘 능력 및 어휘 사용에 대해 정확성, 적절성, 다양성 측면에서 언급하는 학습자들이 많았다. 그만큼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밑줄은 연구자)

S-J-3-B13: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말이나 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어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S-J-3-D2 : 알고 있는 어휘가 많고... 또 그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어휘 능력이 뛰어나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 좀 문맥에 맞게 잘 쓸 수 있고... 또 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좀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말을 쓰는 사람이 어휘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S-J-3-C20 : 어휘 능력이 뛰어나다는 자체는 이게 그냥 같은 어휘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보다 되게 다른 어휘를 다양하게 쓰는 것이 저는 어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H-H-3-C17 : 어휘 능력은... 다양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다양한 단어를 적절하고 사용하는 것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H-H-3-D4 : 어휘 능력은 약간 말할 때 좀 다양한... 어떤 뜻을 정해진 뜻 말고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다. 따라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은 신명선(2017)에서 추구하는 인지 중심 관점의 교육 방향을 충족할 수 있는 전략이자 활동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표 Ⅳ-1>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목표

거시적 차원의 목표	실제 국어 생활에서 다양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목표	어휘 지식을 활용해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다양한 어휘를 전략적으로 탐색해서 사용하며, 이때 어휘 의미를 정교화하고 맥락에 적절하게 선택하는 수행의 질을 높인다.
	어휘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함양한다.

2.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내용 구성

2.1.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내용 구성 원리

어휘 교육은 어휘 습득 단계, 의미 학습 단계, 인지 발달 단계, 언어 심리학적 연구 등을 고려한 교육적 처지가 수반되어야 모어로서 국어 교육에서 어휘가 갖는 위상이 명확해질 수 있다(고주환・이충우, 2015). 어휘 교육에서 어휘 지식의 유형과 그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학습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Ⅳ-2>과 같다.

<표 Ⅳ-2> 어휘 지식의 유형과 가장 효과적인 학습 유형
(Nation, 2013: 76)

지식의 유형		학습 유형	활동
형태		알아차리기를 연관시킨 암시적 학습	반복 읽기처럼 단어와의 빈번한 접촉
의미		강력한 명시적 학습	이미지, 정교화, 의식적 추론을 통한 깊은 처리
사용	**문법, 연어**	암시적 학습	반복

	사용 제약	명시적 학습	명시적 지도와 피드백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은 이러한 어휘 지식 유형 중에서도 특히 의미와 사용 측면에 초점을 두며, 가장 효과적인 학습 유형의 원리 및 활동을 교육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의미’는 언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의 기반이 되며,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의미 학습이 중요하다. 이는 어휘 학습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어휘를 대상으로 한 의미 학습에 대해 다룬 Nagy, W. E(1988)에서는 어휘 학습의 원리를 통합(integration), 반복(repetition), 유의미한 사용(meaningful use)이라고 본다. 어휘 지식은 구조화된 특성을 가지므로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과 새로운 의미가 ‘통합’될 때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본다[25]. 또한 어휘 의미가 자동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하며[26], 어휘 지식에 대해 아는 것과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맥락에서의 사용’과 관련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어휘 의미 학습을 위해서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구체화해서 교육의 실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섭(2016: 90)에서 제시한 어휘 학습 전략의 교수 원리에 따르면, 어휘 학습 전략 자체만을 분리하여 교수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수업 내용과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해 동기를 확

25) 어휘 학습은 단편적인 어휘 개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 개념들이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휘 연결망을 조직화하고 정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신명선, 2004).

26) ‘기존 어휘 지식과의 통합’과 ‘반복’은 어휘 학습 전략 중 기억 강화 전략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Schmitt, 1997, 2000 참고). 또한 기존 어휘와 학습 어휘가 통합된다는 것은 학습 어휘의 연결망 지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표현 어휘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강보선, 2013 참고).

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어휘 수준이나 어휘 학습 과정에 맞는 전략을 고려해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이때 구체적인 활동 및 연습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어휘 학습에 유용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장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휘 학습 전략도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서영서, 2020).

따라서 어휘 전략 교육은 전략 교육에 필요한 사전 지식과 기능을 학습해야 하며,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전략 사용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어휘 학습 전략의 개념 및 특성을 설명하고, 어휘 학습 전략 사용 과정을 학습자들에게 시범을 보여야 한다(이유림, 2016 참고). 이는 본조사에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전략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시 설명만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서 알 수 있다. 우수한 학습자를 제외하면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여 전략에 대한 충분한 시범과 활동, 연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각각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인터뷰] (밑줄은 연구자)

S-J-3-B13: 그래도 뭔가 이런 방법들이 제시돼 있다면 확실히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내가 바꾸고자 하는 단어를 딱 하나만 생각하면 너무 막연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순서를 차례차례 따라가 보면 뭔가... 그러니까 내가 그 단어의 유의어를 알고 있더라도 바로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방법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단어가 이게 이 단어랑 유의어였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찾아볼 수 있어서

H-H-3-D14: 바꿀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꾸려면은 약간 바꿀 수 있는 폭이 좀 더 좁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법을 알게 되면 알게 되면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폭이 넓게 바꿀 수 있는데... 그전에는 그 방법을 잘 모르고 그냥 자신의 방법대로만 바꾸니까 이게 조금 더 폭이 좁게 바꾸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S-J-3-B26 : 이 방법을 원래 생각을 하면서 하긴 하는데... 대체로 제가 이 1번 방법(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를 떠올려 본다.)을 되게 좋아해서.. 이거에 초점을 두고 글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더 다양한 방법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보면서 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 거는(1번 활동) 제가 뭔가 호응 관계를 직접적으로 많이 고려했다거나 아니면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구의 단어를 쓰는 걸 되게 꺼려했는데.. 밑에 와서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시니까.. 약간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말이 되고.. 뭔가 호응 관계에 맞겠구나라는 거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서.. 뭔가 문장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갖고 호응 관계를 더 맞추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휘 전략 교육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어휘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략을 통해 학습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해야 하며 해당 어휘 학습 전략 사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때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목표는 다양한 어휘를 활용하면서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어휘 의미를 정교화하고 문맥에 적절하게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 본조사에서 어휘 바꿔쓰기 양상 분석을 살펴보면, 정확하고, 적절하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인식 조사와 달리 그 사용에서는 간극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학습자들이 단순히 관련된 어휘를 떠올려 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제 사용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경험을 쌓고, 어휘가 가지는 뉘앙스나 특정 어휘 선택으로 인한 표현

효과 등을 파악하고 맥락에 적절한 어휘를 써 보는 적극적인 어휘 바꿔쓰기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하게 대체할 수 있는 관련된 어휘 목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사고 과정을 막을 수 있다[27]. 따라서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차원의 전략들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어휘 사용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2. 어휘 바꿔쓰기 양상 유형에 따른 전략 교육 내용

어휘 전략 교육은 기본적으로 어휘 능력에 대한 인지 중심의 관점과 밀접하기 때문에 개별 학습자의 머릿속에 주목한다. 어휘 능력이 동일한 학습자라 하더라도 선호하는 전략 유형이나 표현 의도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전략 교육은 학습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처럼 학습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경우에만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차경미, 2020: 27). 따라서 본고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 유형을 바탕으로 각 유형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

27) [인터뷰] (밑줄은 연구자)

S-J-3-B26 :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거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뭔가 어떤 의견이 이 같은 데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좀 더 진보적인, 논리적으로... 뭔가 논리를 이끌어서 더 나아갈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인... 보기에 주어진 방법 말고도.. 좀 더 효과적인 그 방법을 제가 생각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창의성이 있다면 보기를..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글을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휘를... 보기 리스트를 주시면.. 그거는 제시해 주신 선생님의 주관하고... 이미 정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제시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조금 창의력을 제한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글을.. 어휘 바꿔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어휘 바꿔쓰기 실패 유형

먼저 어휘 바꿔쓰기 수행 자체를 실패한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부분의 학습자는 원문의 어휘 의미는 이해했지만 바꿀 수 있는 어휘를 떠올리지 못한 경우로, 어휘 연결망 지식이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는 '어휘의 인식 및 이해'에서 '어휘 의미의 정교화 및 적용' 단계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휘의 의미와 어휘망 지식 등을 명시적으로 제공해 학습자 머릿속의 어휘 목록 및 어휘 지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학습자 스스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어휘 이해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참조 자원 전략으로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조금씩 다른 어휘 전략을 활용하면서 어휘 지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면서 어휘 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직관에 의존한 어휘 바꿔쓰기 유형

모어 화자로서 학습자가 어휘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깊은 사고 과정을 생략한 채 직관적으로 어휘를 바꿔 쓴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는 새롭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쉬운 어휘, 익숙한 어휘를 쓰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학습자의 머릿속에 저장된 어휘 목록 및 어휘 연결망 지식이 잘못되거나 어휘를 사용하는 맥락이나 다른 어휘와의 의미 호응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어휘를 사용하는 유형 2의 학습자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는 어휘 이해 및 표현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 어휘 이해 측면에서는 기존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양적 지식을 확장하며, 어휘 표현 측면

에서는 어휘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사고 과정에 대한 전략적인 탐색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학습자가 큰 고민 없이 떠오른 어휘로 바로 바꾸었지만 바꾼 단어가 우연히 적절한 유형 3의 학습자와 같은 경우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의사소통 과정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어휘 능력이 높은 수준의 학습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휘나 다른 상황 맥락에서도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에게도 이해 및 표현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문 어휘와 바꿀 수 있는 어휘망 지식을 늘리도록 참조 자원 전략으로 사전을 활용하거나, 떠올린 다른 어휘와의 직접적인 의미 비교를 통해 의식적으로 다양한 어휘를 실제 맥락에 적용해보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유형 2와 유형 3의 학습자는 단순히 의미가 비슷한 어휘를 바꾼 것에 만족하며, 화용적인 적절성이나 표현 효과 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대체로 학습자에게 친숙한 어휘를 사용하려는 태도와 수동적인 어휘 사용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어휘를 사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3)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 유형

학습자가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고 및 행동으로서 다양한 어휘 전략들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때 어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휘의 언어적, 의미적, 맥락적 측면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는 유형이다. 이때 학습자들이 어휘를 전략적으로 탐색해서 사용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결과적으로 바꿔쓴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어휘, 적절하지만 단순한 어휘, 정교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①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어휘를 사용한 유형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유형 4의 학습자는 ‘어휘 의미의 정교화 및 적용’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어휘망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략이 제시되어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략들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주변 단어와의 호응이나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 등을 고려하면서 어휘를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문법, 통사, 화용적인 지식에 대한 지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유형은 외래어, 외국어를 남용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교과서에서도 어휘의 종류와 관련해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으로 자신의 어휘 사용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학습자가 자신의 어휘 사용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깨닫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어색한 어휘를 사용한 유형 5의 학습자들은 의미적 적절성 수준에서 어휘의 의미역 및 사용 양상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형 4와 마찬가지로 전략을 제시해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양상을 보이거나 무의식적으로는 활용했으나 인식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부터 명시적으로 인지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각 어휘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어휘 의미의 정교화 및 적용’ 단계에서 어휘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 과정을 거치도록 다른 단어와의 의미 비교 활동을 제시할 수 있으며, ‘어휘 선택 및 바꿔쓰기’ 단계에서 인지적으로 깊게 고민해 더 적절하고 정교한 어휘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지니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형 4와 유형 5 학습자의 가장 큰 문제는 어휘를 개별 어휘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으로, 두 유형 모두 문법, 통사, 화용적 지식이 부족해 부적

절하거나 어색한 어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문맥 속에서 어휘를 사용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어휘 사용 맥락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표현 의도 및 효과, 독자 및 장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어휘를 의사소통 단위에서 인식하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니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② 적절하지만 단순한 어휘를 사용한 유형

적절하지만 단순한 어휘를 사용한 유형 6은 유형 4와 유형 5의 경우와 달리 의미적 정확성과 적절성은 확보되었지만, 표현 의도 및 효과나 독자 및 장르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어휘 사용을 자주 보이는 유형을 가리킨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므로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쉽고 익숙한 어휘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어휘 사용 태도를 보인다. 이에 자연스럽게 맥락에 더 적합한 어휘를 찾기 위해 노력하거나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 바꾸거나 표현 의도 및 효과를 고려해 어휘를 선택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학습자에게는 쉽고 익숙한 어휘가 아니라 의미의 완전성과 전달성 측면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바꿔쓰는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어휘 선택 및 바꿔쓰기’ 단계에서 인지적으로 깊게 고민해 더 다양한 어휘를 적절하고, 정교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지니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③ 정교한 어휘를 사용한 유형

정교한 어휘를 사용한 유형 7의 학습자를 살펴보면, 이들은 어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의미적, 맥락적 측면에서 전략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어휘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경우는 어휘의 형태, 통사적 정보 구성에 초점을 둔 바꿔쓰기 양상을 보인다. 이때 다른 유형의 학습자들은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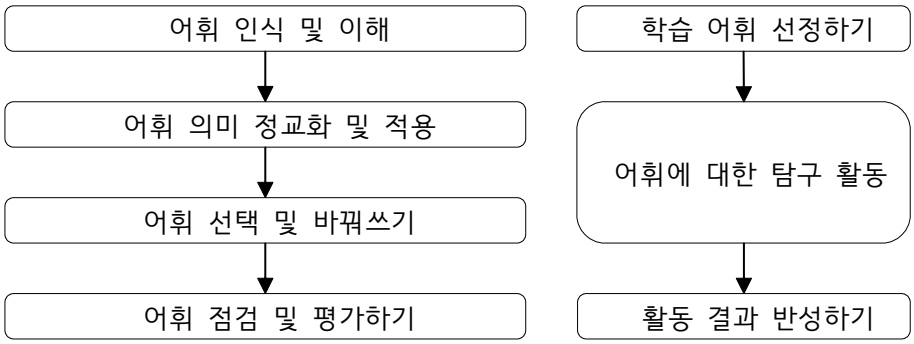
활용하지 않는 단어의 한자 지식을 활용한 전략이 나타난다. 이 유형의 학습자들에게는 어휘의 언어적 특성만을 고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미 전달 측면에서의 어휘 뉘앙스나 표현 효과, 맥락적 측면에서의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미 전달 측면에서 어휘가 가지는 뉘앙스나 특정 어휘 선택으로 인한 효과를 고려한 경우로 어휘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 정교한 어휘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다른 유형에게는 잘 사용되지 않던 관용 표현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맥락적 측면에서는 많은 학습자들이 글의 성격 및 목적 같은 장르적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주로 언어적 맥락과 상황 맥락에 주목한 학습자가 많으며, 사회문화적 맥락은 글의 사적, 공적인 어휘 사용 상황으로만 간단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두 경우의 학습자들에게는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언어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르에 대한 인식 교육부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학습자들은 적절성을 고려하는 것뿐 아니라 어휘 사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타당성까지 탐구하는 활동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정교한 어휘를 사용한 유형의 학습자는 모두 다양한 어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어휘 사용을 항상 반성적으로 점검하는 태도를 함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휘 바꿔쓰기 전략은 자료를 활용할 때 인용 및 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자료를 다루는 글쓰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서 문장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것까지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3.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 따른 전략 교육 활동

어휘 학습 전략 교육은 보통 ‘학습 어휘 선정하기-어휘에 관한 탐구 활동하기-활동 결과 반성하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를 어휘 바꿔쓰기 전략

과정인 ‘어휘 인식 및 이해-어휘 의미 정교화 및 적용-어휘 선택 및 바꿔쓰기-어휘 점검 및 평가하기’와 결합해서 다룰 수 있다. 그 과정은 아래의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어휘 바꿔쓰기의 과정과 어휘 학습 전략 교육 과정

이때 어휘 학습 전략 교육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어떤 어휘를 다루고 바꿀 것인지 선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학습 어휘를 제시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목표에 어휘 학습을 연관시킴으로써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에 적용시킨다면 학습자들은 제시된 문장이나 문단에서 바꿀 수 있는 어휘를 스스로 전략적으로 탐색하게 하고 선정한 어휘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까지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때 제시되는 문장이나 문단에 사용되는 어휘의 수준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어휘군이 선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바꿔쓸 수 있을 만큼 대응될 수 있는 어휘가 충분하고 다양하며, 학습자의 어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어휘 바꿔쓰기의 과정에서 최대한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기초 어휘보다는 더 정확하고 정교하면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28]

28) 많은 어휘 교육 연구에서 교육용 어휘를 선정할 때는 모어 화자로서 성숙한 언어 사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기초 어휘보다는 더 정확하고 정교한 어휘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강가혜, 2017; 차경미, 2013). 즉 일상생활에서

어휘에 관한 탐구 활동은 어휘 의미의 정교화 및 적용과 어휘 선택 및 바꿔쓰기 과정과 대응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는 어휘의 이해 및 표현 차원에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상하위 전략들을 인식하고 적용해야 하며, 이를 활용해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해 어휘를 탐색하고 선택해서 바꿔쓰는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어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휘가 해당 맥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특정 어휘의 선택으로 바꾸면서 의미 전달 측면이나 표현 효과 측면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휘 선택 및 바꿔쓰기 양상을 점검・조정・평가해 보는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략을 내면화해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어휘 바꿔쓰기 과정 단계에 따라 어휘 바꿔쓰기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위 전략들과 관련 활동들을 다음 <표 Ⅳ-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Ⅳ-3>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 따른 전략 활동

어휘 바꿔쓰기 과정	어휘 바꿔쓰기 전략 활동
어휘 인식 및 이해	① 어휘의 형태 및 사전적 의미를 인식한다. ② 어휘의 구조 및 어형(접사, 어근, 한자)을 분석한다. ③ 어휘가 포함된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측한다. ④ 친구들과 어휘가 무슨 의미일지 이야기하거나 교사에게 물어본다. ⑤ 어휘를 사전에서 찾아본다.
어휘 의미 정교화 및 적용	① 유의 관계/반의 관계/상하 관계에 있는 어휘를 나열해보고 적용해본다. ② 대응되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를 나열해보고 적용해본다. ③ 관련되는 관용어/사자성어를 떠올리고 적용해본다. ④ 내가 알고 있는 어휘로 어휘의 뜻을 풀이해 본다.
어휘 선택 및 바꿔쓰기	① 위 단계에서 함께 다루었던 계열 관계 어휘들의 의미와 표현

자주 접할 수 없으며 학술 텍스트 같은 문어 상황에 자주 다루어지는 사고도구어 같은 정교한 어휘가 어휘 교육의 대상으로서 어휘 능력의 양적, 질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효과를 고려해본다. ② 단어의 가치(중립, 긍정, 부정)와 어감을 고려해 표현한다. ③ 단어와 단어의 의미 호응을 고려하여 표현한다. ④ 다른 단어와의 연어 관계 및 결합 관계를 고려해 표현한다. ⑤ 단어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친구들과 토의한다. ⑤ 글의 장르를 인식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⑥ 상대방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한다.
점검 및 평가하기	① 다양한 어휘를 떠올려 보고자 노력했는지 점검한다. ② 바꾼 어휘가 원문과 의미적으로 유사하고 적절한 의미를 드러내는지 점검한다. ③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어휘를 선택했는지 점검한다. ④ 바꿔 쓴 문장/문단을 친구들과 바꾸어 살펴보고 어휘의 사용을 비교해본다.

3.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수·학습의 실제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내용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실제를 구현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어휘 바꿔쓰기는 학습자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다른 어휘를 찾고자 하거나 맥락에 더 적합한 어휘를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실제 작문 과정에서 이러한 어휘 바꿔쓰기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데, 본고에서는 어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 어휘 바꿔쓰기를 활용하고자 한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다른 어휘를 찾는 것은 소극적 전략으로, 맥락에 더 적합한 어휘를 찾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 전략으로 어휘 바꿔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습자는 이 과정에서 어휘 지식 및 능력의 부족을 통감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은 학습자의 어휘 바꿔쓰기 양상에 맞게 전략 및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소극적 전략으로서 어

휘 바꿔쓰기 전략을 다루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 전략으로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맥락에 적절하고 정교한 어휘를 선택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은 어휘 교수·학습의 국면에서 기존에 학습했던 어휘의 의미 관계, 어휘의 체계, 어휘의 종류 등과 같은 다양한 어휘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마무리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어휘를 효과적으로 바꿔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어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맥락 속에서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하면서 다양한 어휘를 생각해내는 과정에 지금까지 학습했던 어휘 지식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다루어졌던 어휘의 다양한 지식 및 특징들을 어휘를 실제 맥락에서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다. 다양한 전략 및 방법들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학습자들에게 예시로 제공해주면서 함께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을 거치는 연습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

<연습 활동>

아래에 제시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해당 문장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어휘로 새롭게 바꾸는 바꿔쓰기를 수행해 봅시다.

<원 문장>

각박하게 변화한 세상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기에는 세상은 아직 아름다운 구석이 많다.

예시) 바꾼 문장: **무관심하게 변화한 세상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아름다운 면이 많다**

활용 방법	이유
⑤, ⑥	'각박한'이라는 단어가 '무관심하게'라는 단어보다 더 부정적인 어감을 주기 때문에 '무관심하게'를 써서 뒤에 아직 아름다운 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문장 처음에서 강조하려고
①, ⑤, ⑥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단어가 '구석'인 것 같아서 그걸 조금 더 아름답

	다라는 단어에 조금 더 호응할 수 있게 '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①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한다.
②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를 떠올려 본다.
③ 단어에 대응되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를 떠올려 본다.
④ 관용표현(사자성어, 숙어)을 활용한다.
⑤ 주변 단어와의 의미 호응을 고려한다.
⑥ 단어의 가치(긍정, 부정)나 어감을 고려한다.
⑦ 단어의 접사나 어근을 고려하거나 단어에 쓰인 한자를 살펴본다.
⑧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문형을 고려한다.
⑨ 한 단어가 아니라도 길게 풀어서 설명한다.

본 수업은 궁극적으로는 어휘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학습자가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 어휘 지식을 활용해 다양한 어휘를 전략적으로 탐색해서 사용하며, 이때 어휘 의미를 정교화하고 맥락에 적절하게 선택하는 수행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어휘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기억하며 학습자들이 최대한 다양한 어휘를 섬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어휘 사용을 항상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들을 내면화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어휘 사용 과정에서의 정교한 어휘 사용 및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어휘를 실제 사용하는 과정은 주로 작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학습자는 어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다양한 상황 맥락에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휘를 선택하고 사용하며 바꿔쓰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학습자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 활동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전략들을 어휘 이해 및 표현 과정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친구들과 서로의 작문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통해 어휘 선택에 의한 표현 효과를 인식하고

새로운 어휘 표현에 대해 학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습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다양한 어휘를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직면하는 교육 내용의 최종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다. 이때 각 어휘 바꿔쓰기 전략 및 방법들을 활용하는 활동 번호에서는 위의 연습 활동처럼 예시와 설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된 어휘 목록들을 최대한 많이 제시하거나 학습자들이 스스로 국어사전을 활용해 단어를 찾으면서 어휘 바꿔쓰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자료>에 제시된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어휘로 새롭게 바꾸는 바꿔쓰기를 수행해 봅시다.

<자료>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앞세워 익명으로 타인에 대한 비방과 욕설 같은 무차별적인 악플을 달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 <자료>에 제시된 단어들에서 바꾸고 싶은 단어들을 골라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서 내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구분하고 그 의미를 적어 봅시다. (이때 사전을 활용하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2-1. 1번에서 고른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고려해 생각하는 단어들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자료>에서 바꿔쓸 수 있는지 적용해 보고, 달라진 점(의미, 표현 효과 등)을 적어봅시다.

어휘 의미 관계	고른 단어	떠올린 단어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위 관계		

* 바꿔쓰기

→ 달라진 점?

2-2. 1번에서 고른 단어들의 종류를 고려해 이를 대응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바꾸어 봅시다. 그리고 <자료>에서 바꿔쓸 수 있는지 적용해 보고 달라진 점(의미, 표현 효과 등)을 적어 봅시다.

어휘 종류	고른 단어	대응하는 단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 바꿔쓰기

→ 달라진 점?

2-3. 1번에서 고른 단어를 풀어서 써 봅시다. 그리고 이를 <자료>에서 바꿔쓸 수 있는지 적용해 보고 달라진 점(의미, 표현 효과 등)을 적어 봅시다.

고른 단어	의미 풀어쓰기

* 바꿔쓰기

→ 달라진 점?

3. 2번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휘를 바꿔서 써 봅시다. 이때 단어의 의미 가치(긍정/부정)나 독자의 어휘 수준, 글의 주제 등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형식으로 바꿔 써 봅시다.

* 최종 바꿔쓰기 (바꿔 쓴 문장을 여러 개 만들어도 됨)

4. 내가 바꿔서 적은 문장을 아래 표를 바탕으로 스스로 점검해보고, 다른 친구들이 바꿔 쓴 문장과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바꾼 이유에 대해 함께 토의해 봅시다.

점검 기준	네	아니오
다양한 어휘를 떠올려 보고자 노력했는가?		
바꾼 어휘가 원문과 의미적으로 유사하고 적절한 의미를 드러내는가?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어휘를 선택했는가?		

표현 의도 및 효과에 대해 고민했는가?		
독자나 글의 성격 등에 대해 고민했는가?		

2)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아래 <자료>의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어휘로 새롭게 바꾸는 바꿔쓰기를 수행해 봅시다. <자료>는 학생이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찬성하는 글을 적은 것입니다. 완성된 글은 친구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이렇게 바꾼 이유에 대해 함께 토의해 봅시다.

<자료>

최근 들어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을 넘어 현재에는 시청자들이 댓글이나 리트윗 같은 기능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앞세워 익명으로 타인에 대한 비방과 욕설과 같은 무차별적인 악플들을 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플을 본 당사자가 정신적 피해, 더 크게는 자살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 네티즌들은 익명이라는 보호막 아래,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익명제를 폐지하고 실명제로 자신이 적은 댓글이나 글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에 글을 쓸 때 본인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3)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활용해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적어 봅시다. 완성된 글은 친구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휘 사용을 점검해 봅시다.

V. 결 론

본고는 학습자들이 어휘 능력을 신장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어휘 사용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어휘 교육으로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의 어휘 교육이 어휘론 일반의 지식만 제공할 뿐, 실제 언어 생활에서 어휘를 섬세하게 이해하고 맥락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Ⅱ장에서는 어휘 의미를 추론하거나, 의미 차이를 변별하거나, 의미를 명료화하는 전략적 능력으로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에 주목하고 어휘 교육에서의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최근 어휘 교육의 목표로서 어휘 능력은 지식이 아닌 능력에 관심을 두고 실제 어휘 이해와 표현을 잘하는 학습자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고려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문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적 능력은 어휘 지식, 어휘 사용 태도, 어휘 사용 맥락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어휘 능력을 구성하게 된다. 이때 어휘 사용 맥락은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휘 능력의 전제가 된다. 어휘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맥락을 바탕으로 언어 주체의 주관적인 심리적 판단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다양한 맥락 요인들이 관여하면서 학습자의 어휘 사용 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서의 어휘의 선택 및 사용 전략에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언어 수행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언어 능력으로서 유창성 요인을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어휘 유창성의 요인으로 어휘의 다양성 및 어휘 수준,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어휘 사용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제시한다. 어휘 다양성은 학습자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는지와 관련된다. 미시적 차원의 어휘 유창성은 개별 어휘와 어휘 관계에 주목한 것으로, 어휘 사용의 정확성 측면에서 적절한 형태와 문법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어휘 관계에서의 결합 관계 및 계열 관계도 고려하는 것이다. 거시적 차원의 어휘 유창성은 개별 어휘를 넘어 의사소통 단위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어휘 사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의사소통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지, 의사소통 상황 및 독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화용적 능력을 토대로 한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사소통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판단(judgement)'이다(신명선, 2005). 이러한 판단은 실제 수행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에 본고에서는 어휘 바꿔쓰기 전략 활동을 제안한다.

어휘 바꿔쓰기는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표현 방식의 선택을 함께 요구하는 인지적 활동이다. 따라서 어휘 바꿔쓰기 과정은 결국 어휘 사용 과정과 연결되며 '어휘 인식 및 이해-어휘 의미 정교화 및 적용--어휘 선택 및 바꿔쓰기-어휘 점검 및 평가하기' 의 단계로 순환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는 어휘 지식, 어휘 사용 태도, 어휘 사용 맥락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유형 및 범주를 살펴보면 언어적 측면에서 모어 화자는 확장과 대체의 바꿔쓰기 유형을 보이며, 내용적 측면으로 효과적인 바꿔쓰기를 위해서는 원문과의 의미적 유사성과 바꾼 어휘 표현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중요시한다. 또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의 과정에서 상위 인지 전략과 맥락 이용 전략은 상위 전략으로서 항상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어휘 선택 및 표현에 있어서는 어휘적 전략, 문법적 전략, 풀어쓰기 전략, 참조 전략, 사회 관계 전략 등을 하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어 교육에서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해 어휘 바꿔쓰기 전략을 다루는 것은 실제 맥락에서 체계적인 어휘 사용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전략 교육이라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맥락을 재구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어휘 바꿔쓰기 양상을 분석하여 어휘 사용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을 발견하고

자 하였다. Ⅱ장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바꾼 어휘의 질적 수준과 활용한 전략의 종류 등을 고려해 학습자들의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어휘 바꿔쓰기 양상 유형을 어휘 바꿔쓰기를 실패한 경우와 수행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수행한 경우는 다시 직관에 의존한 어휘 바꿔쓰기와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어휘 바꿔쓰기의 수행 양상은 바꾼 어휘에 대한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의 정확성과 적절성 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어휘 바꿔쓰기, 어색한 어휘 바꿔쓰기, 적절한 어휘 바꿔쓰기, 정교한 어휘 바꿔쓰기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략적인 어휘 바꿔쓰기는 의미와 맥락 차원의 고려 요인에 따라 언어적 측면, 의미적 측면, 맥락적 측면에서의 전략 사용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각 유형의 학습자들이 어떻게 어휘를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휘 바꿔쓰기 전략들을 어떻게 활용했고, 어떤 의도 및 목적으로 표현했는지 등의 전략적 능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의 어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교한 어휘를 전략적으로 탐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어휘 사용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어휘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어휘 사용 맥락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유의어 전략 외에도 다양한 어휘 지식을 활용하는 전략들을 활동의 측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 자료와 어휘 바꿔쓰기 전략 및 어휘 능력의 개념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을 설계할 수 있다.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어휘 바꿔쓰기 전략 교육을 제시하면 그 목표는 당연히 다양한 어휘를 활용해 어휘를 바꿔쓰는 과정에서 어휘 의미를 정교화하고 어휘를 문맥에 적절하게 선택하는 수행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어휘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교수·학습의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내용을 구성하는 원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어휘 전략 교육의 원리를 참고해 전략은 수업 내용과 통합하여 가르쳐야 하며, 이때 구체적인 활동 및

연습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어휘 바꿔쓰기 유형이나 어휘 바꿔쓰기 과정에 적절한 교육적 접근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본고는 기존에 분절적이고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어휘 지식을 종합해서 활용하고 어휘 이해 및 표현 과정이 통합되어 실제 의사소통 맥락에서 어휘를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으로 어휘 바꿔쓰기를 활용하는 어휘 교육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 과정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어휘 지식을 실제로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취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인 '전략'의 형태로 교육 내용을 재구조화하였다. 국어 교육에서 어휘 학습 방법에 대한 방법인 전략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어휘 수행 전략으로서 어휘 바꿔쓰기 전략 수행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실제 어휘 사용 과정 및 사고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활동으로 논의했다는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구본관, 신명선, 서혁, 이도영, 민병곤, 김봉순, 원진숙, 이관규, 김정우, 이경화, 전은주, 김창원, 강보선, 권순희, 송영빈, 박동열, 신동광, 김호정(2014), 『어휘교육론』, 사회평론아카데미

구본관, 박재연, 이선웅, 이진호, 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 집문당.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김석우, 최태진, 박상욱(2015). 『교육연구방법론』. 학지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출판

원미진(2019).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사

최미숙, 원진숙, 정혜승, 김봉순, 이경화, 전은주, 정현선, 주세형(2016).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아카데미.

I.S.P. Nation (2013).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창구・손옥현・이정민 역(2018). 『외국어 어휘의 교수와 학습』. 소통

Schmitt, N. & McCarthy, M. (1997). *Vocabulary: Description, acquisition and pedag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O'Dell, F., Read, J., & McCarthy, M. (2000). *Assessing vocabul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Oxford, R.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New York.

논문

강가혜(2017). 어휘 선택 과정의 메타적 인식을 활용한 어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보선(2013). 표현 어휘 신장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공성수(2017). 학습자 중심의 요약하기와 바꿔쓰기 교육—대학생 글쓰기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2(2), 128-175.
구본관(2011ㄱ).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27-59.
구본관(2011ㄴ). 어휘 교육의 이론과 실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 49-92.
곽혜영(2018).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요약문에 나타난 패러프레이즈 사용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85, 1-23.
김광해(1990). 어휘 교육의 방법, 국어 생활 22, 국어연구소.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규훈・이준영・김혜숙(2013). 국어학: 연어 (collocation) 의 어휘 교육적 활용 방안 탐색. 새국어교육, 95, 521-555.
김규훈(2019). '틀 의미론'의 어휘 교육적 적용-신문 텍스트의 어휘 타당성 탐구를 실제로. 문법교육, 36, 1-25.
김미영(2016). 정보 활용 글쓰기에 나타난 '바꿔쓰기' 전략 분석-학문목적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88, 305-332.
김미혜(2015). 영어 바꿔쓰기 협력활동에서 집단구성방식이 중학교 학습자의 영어 바꿔쓰기 능력 및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영(2014). 텍스트 기반 어휘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훈밀(2020). 영어 어휘 다양성과 어휘 정교성이 한영번역에 미치는 영향. 번역학연구, 21(2), 43-65.
노숙원(2019). 내용 중심 패러프레이징 전략에 대한 질적 연구. 응용언어학, 35(2), 135-160.
마광호(1998). 어휘 교육의 과제. 국어교육연구, 5, 95-117.
민경아, 곽도형. (2021).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술적 글쓰기에 나타난 바꿔 쓰기 양상 연구-한국인 대학원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84, 57-87.

박소희, 김주환, 천해주, 김영서(2020). 작문 능력의 국제 비교를 위한 평가 준거 탐색. 리터러시연구, 11(6), 223-254.
박종미(2014). 이해 어휘의 표현 어휘 전환을 위한 유의어 바꿔 쓰기 교육 방법 연구, 한국어교육학회, 145, 1-25.
박현진(2017). 외국인 학부생의 학문적 글쓰기를 위한 '바꿔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381-404.
손영애(2000). 국어과 어휘 지도의 내용 및 방법. 국어교육, 103, 53-78.
신명선(2004). 어휘 교육 목표로서의 어휘 능력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2, 263-296.
신명선(2005). 어휘 능력의 성격을 통해 본 어휘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 연구. 선청어문, 33, 497-524.
신명선(2009). 국어 표현 과정에서 작용하는 어휘 사용 기제와 그 전략에 관한 연구, 국어의미학 29, 한국어의미학회, 91-131.
신명선(2010). 어휘 선택과 표현의 효과-상하위어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10, 한국작문학회, 137-166.
신명선(2011).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국어과 어휘 교육 내용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0, 61-101.
신명선(2013). 맥락 관련 문법 교육 내용의 인지적 구체화 방향. 국어교육연구, 32, 69-103.
신명선(2015). 국어 어휘 능력 평가의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0(2), 60-97.
신명선(2017). 어휘능력의 개념과 자장 (磁場), 그리고 교육의 실제성. 문법교육, 29, 169-214.
신명선(2020ㄱ). '어휘 개념에 대한 메타적 인식' 교육에 대하여. 국어교육학연구, 55(1), 69-105.
신명선(2020ㄴ). 관점 선택과 어휘 능력, 그리고 교육. 우리말글, 84, 179-212.
신명선(2020ㄷ). 사고도구어 (academic words) 교육을 위한 논제 구체화에 관한 연구 신명선. 선청어문, 47, 337-377.

신희성(2020). 고등학생의 고쳐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휘문법적 선택의 유형 및 메타인지 양상 연구-문법교육의 기반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를 지향하며. 국어교육연구, 73, 71-116.

양세희(2017), 문법 교과서의 학습 활동 유형 변화 양상 분석 - 고등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3, 한국국어교육학회, 65-96.

오현아(2011). 문법 교육에서 맥락의 수용 문제. 한말연구, 29, 217-245.

유민애(2014). 어휘 의미 추측 전략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어휘 학습 방안: 선다형 어휘 주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이경(2015ㄱ). 담화 차원에서의 한국어 어휘 유창성 신장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경(2015ㄴ). 한국어 어휘 유창성과 평가 구인에 대한 인식 연구-채점자 논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8), 59-86.

이경(2016). 한국어 유창성 신장을 위한 어휘 사용 전략 연구-한국어 고급 학습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7(3), 149-175.

이기연(2012). 어휘 평가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기연(2014). 어휘 능력 평가의 지평 확대를 위한 소고. 한국어 의미학, 44, 171-197.

이영숙(1996), 국어과 지도 대상 어휘의 선정 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유림(2016).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 전략과 표현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유림, 김영주(2016). 어휘 학습 전략 교육이 L2 한국어 작문의 어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 의미학, 53, 1-24.

이인영(2015). ‘바꿔쓰기 (paraphrasing)’가 학문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9(1), 149-180.

이정민(2010). 한국어 어휘 학습 전략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종철(2011). 작문 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159-182.

이현주(2015). 고쳐쓰기를 통한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문교육, 18, 119-140.

임성규(2000). 표현 영역에서 어휘력 신장 방안 연구—문단 전개법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17, 57-88.

정혜연(2014). 표현바꾸기(paraphrase)와 통역의 유사성. 통번역학연구, 18(4), 227-245.

정혜연(2016). 패러프레이즈 능력과 통역 전문성의 연관성. 번역학연구, 17(2), 119-140.

차경미・이기연(2019). 모어 화자의 국어 어휘 표현 전략 연구.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1), 179-200.

차경미(2020). 국어 어휘 수행 전략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숙기(2018). 중등학생의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 나타난 자료 글 차용하기 수행 양상 연구-인용과 환언하기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38, 201-245.

팜티튀린(2012). 바꿔 쓰기 활동을 통한 한국어 문법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정민(2017). 전문번역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수업에서 바꿔쓰기 연습의 유용성 고찰. 통번역학연구, 21(1), 275-306.

Alvi, F., Stevenson, M., & Clough, P. (2021). Paraphrase type identification for plagiarism detection using contexts and word embedd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18(1), 1-25.

Canale, M. (2014).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ommunicative language pedagogy. In Language and communication (pp. 14-40). Routledge.

Çeşme, H. (2015). Paraphrase approaches challenges and strategies of graduat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Master's thesis, Eğitim Bilimleri Enstitüsü).

Chen, M. H. (2019). Phrasal Paraphrase Learning: Exploring an Effective Strategy to Consolidate Vocabulary Knowledge. Taiwan Journal of TESOL, 16(1), 41-66.

Choi, Y. R. (2012). Paraphrase practices for using sources in L2 academic writing. English Teaching, 67(2), 51-79.

INJAI, R. (2015). AN ANALYSIS OF PARAPHRASING STRATEGIES EMPLOYED BY THAI EFL STUDENTS: CASE STUDY OF (Doctoral dissertation, BURAPHA UNIVERSITY)

Hagaman, J. L., Casey, K. J., & Reid, R. (2016). Paraphrasing strategy instruction for struggling readers. Preventing School Failure: Alternative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60(1), 43-52.

Jun, J. (2021). Paraphrasing chinese idioms: Paraphrase acquisition, rewording and scoring. Turkish Journal of Computer and Mathematics Education (TURCOMAT), 12(3), 1999-2005.

Ji, N. Y. (2012). Modes of paraphrasing attempted by Korean L2 writers, English Teaching, 67(4), 131-148.

Keck, C. (2014). Copying, paraphrasing, and academic writing development: A re-examination of L1 and L2 summarization practices.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25, 4-22.

Laufer, B., & Nation, P. (1995). Vocabulary size and use: Lexical richness in L2 written production. Applied linguistics, 16(3), 307-322.

McCarthy, P. M., Guess, R. H., & McNamara, D. S. (2009). The components of paraphrase evaluation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3), 682-690.

McLeod, A. K. (2020). A Paraphrasing Game for Intermediate EFL Learners. In English Teaching Forum (Vol. 58, No. 3, pp. 38-41).

Milićević, J. (2008). Paraphrase as a tool for achieving lexical competence in L2. In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Complexity, Accuracy and Fluency

in Second Language Use, Learning and Teaching. Brussels: Royal Belgium Academy of Science and Arts (pp. 153-167).

Nagy, W. E. (1988). Teaching vocabulary to improve reading comprehension.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Polat, Y., Bajak, S., & Zhumaeva, A. (2021). A New Approach for Paraphrasing and Rewording a Challenging Text. Arab World English Journal (AWEJ) Volume, 12.

Purdue OWL (2018). Paraphrasing exercise. Purdue Online Writing Lab.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using_research/paraphrase_exercises/paraphrasing_exercise.html

자료

교육부(2013),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김진수 외(2018), 중학교 국어 1-1, 비상교육

이관규 외(2018),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비상교육.

민현식 외(2018),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부 록

<학습자 설문지> - 중학교 대상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 자료는 학생 여러분이 어휘를 바꿔서 쓰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의 지시에 따라 자유롭게 응답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락처를 적어주신 분들에 한해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인터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담에 응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이정민(0112wjdals@snu.ac.kr)

학년		반		번호		성명		연락처	(희망자만)

<활동 1. 밑줄 친 어휘 바꾸기>

[제시된 문장에서 밑줄 친 어휘의 뜻을 생각해 보고, 그 어휘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 봅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제시된 문장의 의미와 비슷하게 단어를 바꾸어 보고, 그렇게 바꾼 이유도 적어 봅시다.]

예시: 고난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어른스러워진다.

① 고난
- 의미: 괴로움과 어려움
- 바꿔쓸 수 있는 단어: 어려움, 고통, 고생, 시련 등
- 최종 선택 단어: 시련
- 최종 선택 이유(선택한 단어가 가장 바꾸기 적절했다고 생각한 이유)
  : '고난'에 맞서는 것보다 '시련'에 맞서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서

② 어른스러워지다
- 의미: 나이가 어린데 어른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다
- 바꿔쓸 수 있는 단어: 성장하다, 성숙하다, 능숙하다 등
- 최종 선택 단어: 성숙해지다
- 최종 선택 이유(선택한 단어가 가장 바꾸기 적절했다고 생각한 이유)
  : 몸과 마음이 자랐다고 보는 '성숙하다'가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1. 그의 인성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① 뛰어나다

- 의미 :

-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

- 최종 선택 단어 :

- 최종 선택 이유(선택한 단어가 가장 바꾸기 적절했다고 생각한 이유)

:

② 부정하다

- 의미 :

-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

- 최종 선택 단어 :

- 최종 선택 이유(선택한 단어가 가장 바꾸기 적절했다고 생각한 이유)

:

2. 이번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① 발표되다

- 의미 :

-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

- 최종 선택 단어 :

- 최종 선택 이유(선택한 단어가 가장 바꾸기 적절했다고 생각한 이유)

:

② 예측되다

- 의미 :

-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

- 최종 선택 단어 :

- 최종 선택 이유(선택한 단어가 가장 바꾸기 적절했다고 생각한 이유)

:

<활동 2.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어휘 바꾸기>

[제시된 문장의 의미와 비슷하도록 최대한 많은 단어를 자유롭게 아래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바꾸어 보고, 아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렇게 바꾼 이유도 적어 봅시다.] (**복수의 방법 활용 가능**)

①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를 떠올려 본다.
② 단어에 대응되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를 떠올려 본다.
③ 주변 단어와의 의미 호응을 고려한다.
④ 한 단어가 아니라도 길게 풀어서 설명한다.
⑤ 관용 표현(사자성어, 관용구)을 활용한다.

예시: 대중 매체는 정보를 전하기만 하고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고치지는 못하므로, 허위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 바꿔쓰기 →** 대중 매체는 정보를 전달만 할 뿐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정정하지는 못하므로, 허위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바꿔쓴 단어	활용한 방법(번호)	어떻게 활용했나요? 이렇게 바꿔쓴 이유는?
전하다-전달하다	①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떠올려 봄. 둘이 유사한 의미인데 전달하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고치다-정정하다	②	대응하는 한자어를 떠올림. '정정하다'가 의미를 더 세밀하게 표현해서
손해를 입다-피해를 받다	①, ③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떠올렸지만, '피해를 입다'는 단어 호응이 어색해서 '받다'로 바꾸었다.

1. 학교 축제를 준비하는 회의가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곡을 결정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

*** 바꿔쓰기 →**

바꿔쓴 단어	활용한 방법(번호)	어떻게 활용했나요? 이렇게 바꿔쓴 이유는?

2. 최대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와의 시합에서 낭패를 맛본 그는 스스로 갈고닦아 실력을 키웠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 바꿔쓰기 →**

바꿔쓴 단어	활용한 방법(번호)	어떻게 활용했나요? 이렇게 바꿔쓴 이유는?

<활동 3. 독자를 고려하여 어휘 바꾸기> (A형)

[아래 글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촉법소년*의 나이 제한' 문제와 관련한 주장을 전개한 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독자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휘를

바꾸어 봅시다. 내용의 변화 없이 바꾸고 싶은 단어나 표현을 적절하게 바꾸어 보고, 그렇게 바꾼 이유도 적어 봅시다.]

> 최근 뉴스를 보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행위도 더 과격해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 잔인한 게임이나 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폭력적인 장면을 보다 보면 잔인함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에 친숙한 만큼 어린 나이에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나이 제한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바꿔쓰기 →**

*** 이렇게 바꾼 이유 :**

<활동 3. 장르를 고려하여 어휘 바꾸기> (C형)

[아래 글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한 기사문입니다. 이 기사문을 바탕으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찬성'을 주장하는 글로 바꾸어 봅시다. 글을 적을 때 최대한 기사문의 단어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장르를 고려해 단어나 표현을 바꿔서 적어 봅시다.]

최근 청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범죄 행위가 잔인해지면서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법안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현재 청소년들의 발달 정도와 주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심리학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매체를 자주 접할수록 범죄에 빠질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촉법소년 나이 제한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주장하는 글쓰기 : '찬성' 입장**

*** 단어나 표현을 바꿀 때 생각한 것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습자 설문지> - 고등학교 대상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 자료는 학생 여러분이 어휘를 바꿔서 쓰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의 지시에 따라 자유롭게 응답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락처를 적어주신 분들에 한해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인터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담에 응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이정민(0112wjdals@snu.ac.kr)

학년		반		번호		성명		연락처	(희망자만)

<활동 1. 밑줄 친 어휘 바꾸기>

[제시된 문장에서 밑줄 친 어휘의 뜻을 생각해 보고, 그 어휘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 봅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제시된 문장의 의미와 비슷하게 단어를 바꾸어 보고, 그렇게 바꾼 이유도 적어 봅시다.]

예시: 고난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어른스러워진다.

① 고난
- 의미: 괴로움과 어려움
- 바꿔쓸 수 있는 단어: 어려움, 고통, 고생, 시련 등
- 최종 선택 단어: 시련
- 최종 선택 이유(선택한 단어가 가장 바꾸기 적절했다고 생각한 이유)
  : '고난'에 맞서는 것보다 '시련'에 맞서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서

② 어른스러워지다
- 의미: 나이가 어린데 어른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다
- 바꿔쓸 수 있는 단어: 성장하다, 성숙하다, 능숙하다 등
- 최종 선택 단어: 성숙해지다
- 최종 선택 이유(선택한 단어가 가장 바꾸기 적절했다고 생각한 이유)
  : 몸과 마음이 자랐다고 보는 '성숙하다'가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1. 그의 인성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달라도,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누구도 반론하지 않는다.

① 뛰어나다

- 의미 :

-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

- 최종 선택 단어 :

- 최종 선택 이유(선택한 단어가 가장 바꾸기 적절했다고 생각한 이유)

:

② 반론하다

- 의미 :

-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

- 최종 선택 단어 :

- 최종 선택 이유(선택한 단어가 가장 바꾸기 적절했다고 생각한 이유)

:

2. OO 그룹의 작년 실적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대규모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되어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① 발표되다

- 의미 :

-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

- 최종 선택 단어 :

- 최종 선택 이유(선택한 단어가 가장 바꾸기 적절했다고 생각한 이유)

:

② 예측되다

- 의미 :

-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

- 최종 선택 단어 :

- 최종 선택 이유(선택한 단어가 가장 바꾸기 적절했다고 생각한 이유)

:

<활동 2.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어휘 바꾸기>

[제시된 문장의 의미와 비슷하도록 최대한 많은 단어를 자유롭게 아래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바꾸어 보고, 아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렇게 바꾼 이유도 적어 봅시다.] (**복수의 방법 활용 가능**)

①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를 떠올려 본다.
② 단어에 대응되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를 떠올려 본다.
③ 주변 단어와의 의미 호응을 고려한다.
④ 한 단어가 아니라도 길게 풀어서 설명한다.
⑤ 관용 표현(사자성어, 속담, 숙어)을 활용한다.

예시: 대중 매체는 정보를 전하기만 하고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고치지는 못하므로, 허위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 바꿔쓰기 →** 대중 매체는 정보를 전달만 할 뿐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정정하지는 못하므로, 허위 정보로 많은 사람들 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바꿔쓴 단어	활용한 방법(번호)	어떻게 활용했나요? 이렇게 바꿔쓴 이유는?
전하다-전달하다	①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떠올려 봄. 둘이 유사한 의미인데 전달하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고치다-정정하다	②	대응하는 한자어를 떠올림. '정정하다'가 의미를 더 세밀하게 표현해서
손해를 입다-피해를 받다	①, ③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떠올렸지만, '피해를 입다'는 단어 호응이 어색해서 '받다'로 바꾸었다.

1.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금액은 넉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바꿔쓰기 →**

바꿔쓴 단어	활용한	어떻게 활용했나요? 이렇게 바꿔쓴 이유는?

	방법(번호)	

2. 최대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와의 시합에서 낭패를 맛본 그는 스스로 갈고닦아 실력을 키웠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 바꿔쓰기 →

바꿔쓴 단어	활용한 방법(번호)	어떻게 활용했나요? 이렇게 바꿔쓴 이유는?

<활동 3. 독자를 고려하여 어휘 바꾸기> (A형)

[아래 글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촉법소년*의 나이 제한' 문제와 관련한 주장을 전개한 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독자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휘를 바꾸어 봅시다. 내용의 변화 없이 바꾸고 싶은 단어나 표현을 적절하게 바꾸어 보고, 그렇게 바꾼 이유도 적어 봅시다.]

최근 뉴스를 보면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범죄 행위도 더 과격해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 잔인한 게임이나 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장면을 시청하면서 잔혹성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부터 스마트폰에 친숙한 만큼 어린 나이에도 잔인한 범죄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나이 제한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바꿔쓰기 →**

*** 이렇게 바꾼 이유 :**

<활동 3. 장르를 고려하여 어휘 바꾸기> (C형)

[아래 글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한 기사문입니다. 이 기사문을 바탕으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찬성'을 주장하는 글로 바꾸어 봅시다. 글을 적을 때 최대한 기사문의 단어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장르를 고려해 단어나 표현을 바꿔서 적어 봅시다.]

최근 청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범죄 행위가 잔혹해지면서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제한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과거와 다른 현재 청소년들의 발달 정도 및 주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심리학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매체를 자주 접할수록 범죄에 빠질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주장하는 글쓰기 : '찬성' 입장**

*** 단어나 표현을 바꿀 때 생각한 것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Lexical Paraphrasing Strategy Education to Improve the Lexical Competence

Lee, Jeong-m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Vocabulary learning is important in order to accurately and effectively express what you think and feel in language. Accurate understanding and appropriate expression of vocabulary have a great influence on learners' language competence and serve as the basis for communication. Therefore, vocabulary education aims at learners who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vocabulary in detail and can actually use vocabulary accurately and appropriately in the context of specific vocabulary use. However, the current vocabulary education provides only knowledge of vocabulary theory in segments, and discussions on appropriate vocabulary use are not properly implemented at the textbook.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lexical paraphrasing as a strategic vocabulary education content that can handle

the process of elaborating vocabulary meaning using various vocabulary in the actual context and selecting vocabulary appropriately in the context.

In Chapter II, discussed that lexical paraphrasing strategy education can be a clue to the improvement of lexical competence by specifying the concept of strategic ability as a subordinate of lexical competence and examining detailed factors of lexical paraphrasing strategy. Lexical paraphrasing strategy education provides an experience for learners to systematically elaborate the meanings of various vocabulary and learn the expression effects of the vocabulary. In addition, the strategic competence that can be method of performing vocabulary allows learners to experience self-directed problem solving, which can help them to have an active vocabulary attitude as a linguistic subject. The process of paraphrasing vocabular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writing skills based on the experience of consciously using various vocabulary that learners could not normally use in real context and reconstructing the context.

In Chapter III, qualitatively analyzed the lexical paraphrasing patterns of 247 middle and high school learners, and examined the learners' paraphrasing patterns, strategies, and detailed factors involved in vocabulary use process.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learners' lexical paraphrasing types were analyzed based on 'semantic similarity to the original text' and 'accuracy and appropriateness of changed vocabulary at the microscopic and macroscopic levels'. According to this analysis, learners' lexical paraphrasing types were categorized into a total of seven types. In some cases, lexical paraphrasing has failed and has been performed. When lexical paraphrasing is performed, it appears as intuitive lexical paraphrasing and strategic lexical paraphrasing. Intuitive lexical paraphrasing patterns can be categorized as using inappropriate or awkward vocabulary and using appropriate vocabulary. Strategic lexical paraphrasing

patterns can be categorized as using inappropriate vocabulary, awkward vocabulary, appropriate but simple vocabulary, and sophisticated vocabulary. Strategic lexical paraphrasing can be divided into the use of strategies in linguistic, semantic, and contextual aspects according to factors that consider meaning and context dimensions.

Therefore, based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hapter II and learner data of Chapter III, in Chapter IV devised the contents and activities of lexical paraphrasing strategy education to improve lexical competence. This paper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vocabulary education, which previously provided vocabulary knowledge segmented and unilaterally. In addition, it provides an educational experience that can handle accurate and appropriate vocabulary by using vocabulary knowledge in the context of actual use. In addition, it deals with 'strategies' as a systematic and specific action plan that learners can use in vocabulary learning and performing processes, not just content or activities.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dealt with strategic abilities that were insufficient for discuss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key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Vocabulary Education, Improving Lexical Competence, Strategic Competence, Vocabulary Strategy, Paraphrasing

* Student Number : 2020-27281